

2023년

인천광역시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용수기 공모전 사례집



CONTENTS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업개요	2
-----------------------	---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용수기 공모

사용수기 공모 수상작 [인천광역시장상]	6
-----------------------	---

- 결심은 변화를 안고 찾아온다. 망설이지 마세요!
- 나는 원장 4년차!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은 도입 4년차!
- 수포자도 할 수 있어요!! 이제 나도 회계 전문가!!
- 처음은 낯설지만 지금은 여유가 생겼어요
- 투명한 회계경영의 첫 단추!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용수기 공모 참가작	20
-------------	----

- Next-step이 다가와도 I'am 준비 완료예요.
- ONE(원이 하나가 되는)
- 나~~~돌아갈래
- 나도 할 수 있을까?
- 마침내, 회계관리는 어렵다는 생각과 헤어질 결심(복잡하고 어려운 회계관리, 누군가는 단순화해야 한다)
- 무서운 회계는 이제 그만!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으로 웃어요~!
- 不避之樂(불피지락).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 산 하나만 넘으면 만나게 돼요, 스마트한 내 친구 '정책정산'
- 시스템이 어린이집 회계 해결사
-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더라!
- “아하 이거였네~~”
- 아하!! 그렇구나!!
- 옹! 회계는 숫자일뿐 도전 옹!
- 야호! 자동입력 시스템으로 업무의 질이 향상되었다!
- 어린이집 운영관리를 한번에 ~~~ 빠르고 편리하게 ~ 논 스톱 시스템!!!
- 엑셀(Excel)을 못하는 내가 필요경비 정산을? :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새 친구(필요경비 정산) 이야기
- 여전히 서툴고 부족하지만 든든한 지원군
- 용기와 결단의 연속 = '인천광역시 어린이집관리시스템'
- “유레카”, 앞으로는 내가 아닌 너만 믿을 게!!!
-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과 함께 벌써 3년!!
-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용수기
-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으로 함께해요.
-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통한 어린이집 회계 관리의 편리함
- '인천광역시 어린이집관리시스템'은 어린이집 운영의 '전진'을 위한 도구
-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입문 성공기 - 익숙함을 버리고 조금은 귀찮음과 두려움에 도전하다
- 인천시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은 나는 한 단계 올라서게 만들었다
- 첫알빠(첫 걸음 어렵다고 느껴도 알고 보면 빠른 길!)
- 필요경비 정산, 더 이상 미루지 말아요! 엑셀파일은 이제 안녕~
- 필요경비 정산을 해결하다.
- 혼자서도 잘 할 수 있어요. 모바일로도 척!척!척!
- 회계시스템은? 운영의 오아시스

어린이집 회계컨설팅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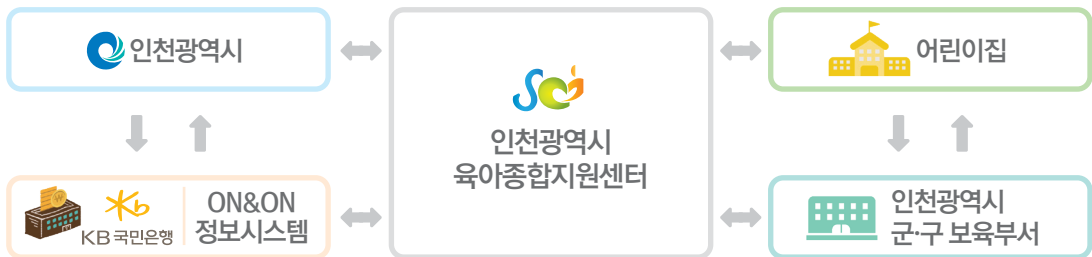
필요성 및 목적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용으로 인하여 어린이집의 재무회계 수준을 향상시키고 어린이집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보장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인천시의 역할 수행이 요구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회계 컨설팅, 교육을 통한 재무회계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어린이집의 공정하고 투명한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사업대상 인천광역시 관내 어린이집

사업예산 금110,000천원(시비:100%)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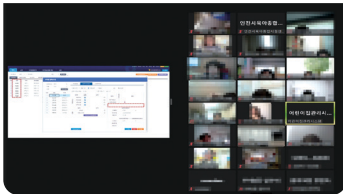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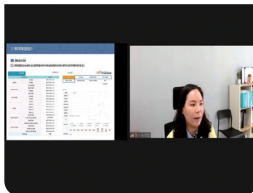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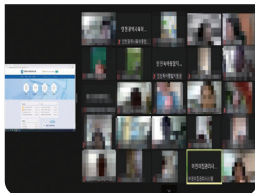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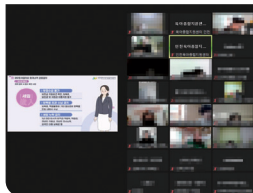
주요사업내용

(비상근)컨설턴트 관리,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교육, 어린이집 재무회계 교육, 회계컨설팅, 모니터링, 간담회, 사업평가회, 공모전

◎ (비상근)컨설턴트 관리

모집 및 선발	교육	O.T	간담회

◎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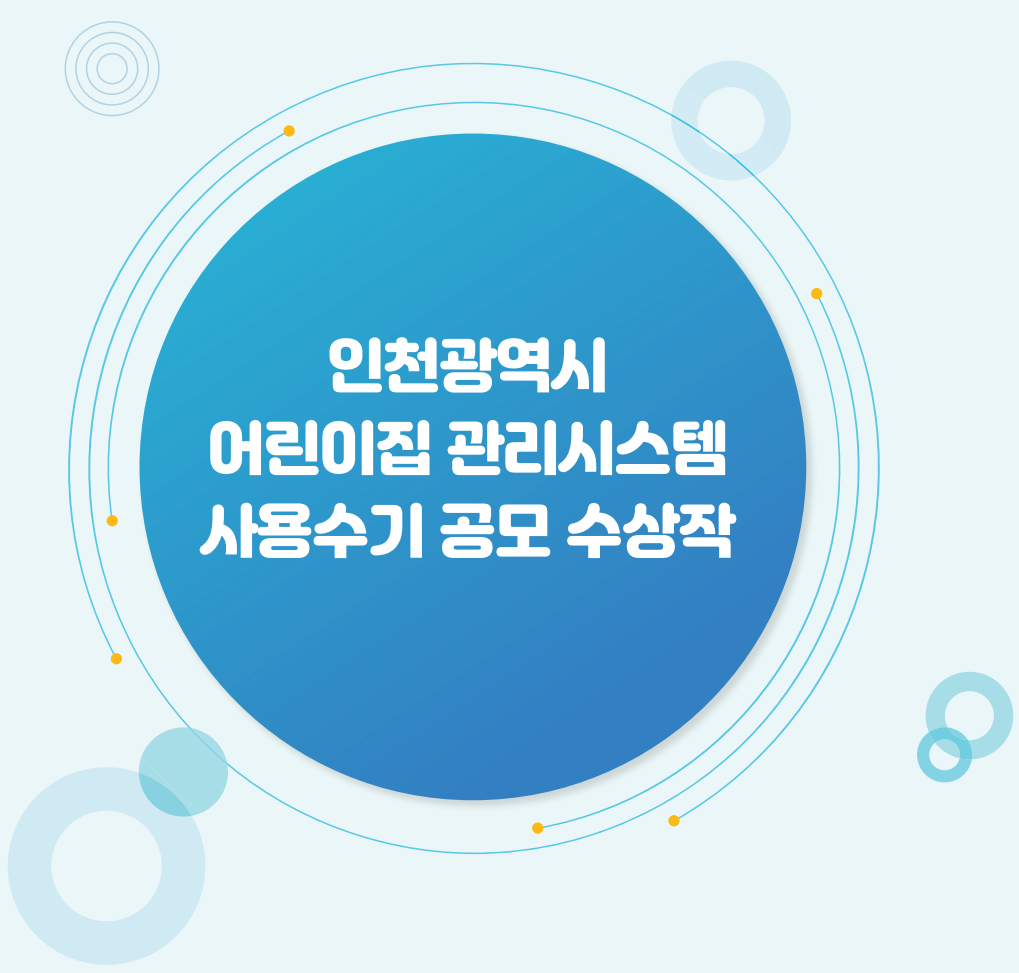
입문교육	심화교육	활용교육	
방법 : 비대면/대면 교육 내용 :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기초 사용법 교육	방법 : 대면 교육 내용 :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회계관리 사용법 교육	방법 : 비대면 교육 내용 :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아동,교직원,물품 관리 사용법 교육	
			
예·결산 및 추경결산교육	인천형어린이집 정산교육	필요경비 정산교육	어린이집 재무회계 영상교육
방법 : 비대면 교육 내용 : 회계내역 검증,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실무 교육	방법 : 비대면 교육 내용 : 인천형 어린이집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정산 교육	방법 : 비대면/대면 교육 내용 :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필요경비 정산 사용법 교육	방법 : 비대면 교육 내용 : 어린이집 재무회계 절차, 계정과목 교육
			

◎ 회계컨설팅, 모니터링

1:1 컨설팅	모니터링
방법 : 현장방문 컨설팅 내용 : (2시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용법, 요청사항 등	방법 : 현장방문 모니터링 내용 : 회계컨설턴트 컨설팅 과정 모니터링
	

◎ 사업평가회, 시상식

사업평가회 및 시상식
방법 : 대면 진행 내용 : 사업보고 및 공모전 시상식 수상소감 발표 등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용수기 공모 수상작

[인천광역시장상]

- 결심은 변화를 안고 찾아온다. 망설이지 마세요!
- 나는 원장 4년차!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은 도입 4년차!
- 수포자도 할 수 있어요!! 이제 나도 회계 전문가!!
- 처음은 낯설지만 지금은 여유가 생겼어요
- 투명한 회계경영의 첫 단추!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결심은 변화를 안고 찾아온다. 망설이지 마세요!

신일해피트리더루츠어린이집 이은주

Part1. 못 만났다면... 아이구!

매일 아침,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접속과 함께 나의 빛나는 하루는 시작됩니다.

저는 이제 발을 내딛는 새내기 원장입니다. 힘든 도전 끝에 국공립 위탁을 받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패기와 열정으로 하루하루를 대하며 척~척~ 진행이 되는가 싶었는데, 그것도 잠시... 회계라는 큰 벽 앞에서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에 어떤 지도나 네비게이션도 없이 혼자서 길을 찾아 헤매야 하는 출구 없는 캄캄한 길에 선 기분 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숫자로 가득 찬 걱정주머니가 항상 무겁게 짓누르고 있어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실제 호umon란으로 응급실 신세를 지는 등 ‘회계’라는 녀석은 수포자인 제겐 미움덩어리이며 공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지인 원장님께 물어보는 것도 한두번이지... 너무 폐가 되는 것 같고, 밀려오는 업무에 너무나도 정신이 없어 자포자 기한 심정으로 선택한 방법은 민간회계업체에 의뢰를 하여 전적으로 맡기는 것 이었습니다. 한 달을 의뢰하고 확인해 봤을 때 회계초보인 제가 봐도 너무 엉망이고, 허술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무엇보다 해야 할지도 모르는 겁보였지만 도 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해보겠다는 결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전은 시작됐지요! ~~~~

숫자와의 겨루기는 험난했습니다. 무작정, 들어간 인천광역시 어린이집관리시스템의 관,항,목,세목 이러한 생소한 단어와 마주하게 되었고 바로 자동으로 로그아웃을 했답니다. 채차 용기를 내어 로그인 했지만 마우스를 어디에 어떻게 클릭해야할지, 소요한 예산비용을 어느 목에 넣고, 어디에 어떻게 적어야 할지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야말로 백지 상태였죠. 정말 기절 곳 하나 없는 저는 우연찮게 인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회계~~~로 시작하는 교육명을 보고 무조건 클릭을 했지요. 한번 들은 교육으로는 무슨 말인지 도통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 입문교육, 심화교육, 활용교육, 재무회계영상교육, 필요경비정산, 추경교육 등 회계라는 단어가 들어간 교육 이 공지될 때마다 산삼을 발견한 듯 반가웠고, 꾸준히 받으며 감을 찾아 갔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할 때는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영상매뉴얼을 보며 나름 궁금증을 해소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인천육아종합지원센터에 공지된 회계컨설팅을 보고 “이거다!”하며 박수를 치고 환호를 지었지요. 일 대일 맞춤컨설팅을 해준다는 내용에 너무 신이 났습니다. 더 없는 무료 고급과외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현직 원장님이 방문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원장 입장에서 처음에는 창피함이 들었지만 그러한 저의 협소한 생각은 무의미해 졌죠. 평소 몰랐던 부분에 대해 적어 두었다가 귀찮으실 정도로 물어보았는데, 짜증은커녕 너무나도 친절하게 잘 설명 해 주시고, 소요예산에 따른 세목 구분도 하나하나 설명하며 알려주시는 등 눈높이 맞춤교육을 해주셨습니다. 현직 원 장님이셔서 그런지 초보원장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을 잘 파악하시어 기초부터 차근차근 잘 알려 주셨습니다. 말씀 하나하나 혹시라도 놓칠까 귀 기울이며 깨알같이 속기로 메모를 하고, 용기 내어 전표작성도 해보았는데 옆에 든든히 계셔서 그런지 불안함은 온데 간데 없고, 하나씩 전표작성을 진행 할 때마다 남모를 성취감까지 생겼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나요? 컨설턴트 위원님이 가르쳐 주신대로 보시는 앞에서 작업을 하고 이어 나가 자 “금세 습득 하시고 잘 하시네요. 곧 혼자서도 잘 하실 겁니다. 원장님! 정말 잘 하셨어요” 하며 연이은 칭찬을 해주

시자 나도 모르게 울컥 눈물도 나고, 커다란 자신감이 마구 솟구쳤습니다. 그 후로도 2차 컨설팅을 의뢰하여 일대일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저는 많이 성장하였습니다. 지도 없이 길을 헤매고 있는 제게 컨설팅을 통한 두 차례의 교육은 정말 업그레이드된 네비게이션을 켜고 쉽게 길을 찾아간 격이었습니다.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시는 컨설턴트 위원님... 교육 종료 후에도 따로 전화하여 자주 물어봐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잘 알려주시며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동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구원해주신 너무 소중한 은인 이십니다 ~”

Part2. 4개의 탭! 누르기만 하세요.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어린이집관리시스템을 열자마자 보이는 회계, 아동, 교직원, 물품관리 4개의 탭은 각각 클릭했을 때 누구도 사용하기 쉽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회계관리는 실제 회계업무를 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하는 초보원장에게는 한눈에 보기 좋게 너무 편리하게 잘 되어 있어서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그 놀라움이란.....

- 놀라움 하나! ~ 보조금통장과 연계되어 계좌연동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미등록전표 관리를 통해, 월회계보고 전까지 금액 일치, 불일치를 표시해주어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을 관리 해줍니다. 따라서 월회계보고 전까지 잔액 맞추기 작업이 수월합니다. 00이 안될까 불안하지 않지요^^
- 놀라움 둘! ~ 10단계의 단계별 검증하기는 빨간불, 파란불의 감박거름을 통한 상세설명으로 초보원장인 제게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쉽게 바로 전달해줍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통해 저는 추경도 하고, 수정할 부분이 있을 경우 빨리 인지하고 처리할 수 있어서 너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비서분의 표정 리액션도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지요^^
- 놀라움 셋! ~ 예산작성, 추경작성 등 바로 작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보육통합예산보고도 클릭 한번으로 바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 놀라움 넷! ~ 정산, 결산탭에서는 기타필요경비, 특별활동비, 누리반운영비, 정부보조금정산까지 세부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정산되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어 예산 사용의 전반적인 흐름을 분기, 반기별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분석을 통해 예산, 집행, 계정별 점유율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 놀라움 다섯! ~ 핸드폰에서도 작업이 가능하여 영수증을 직접 촬영하고 바로 올리면 결의서와 같이 출력되어 별도로 부착할 필요가 없어 지면장부를 이용하는 제게는 너무 편리합니다. 전자문서로의 기능도 충분히 활용되고요. 초보인 저는 목 구분이 어려워 종종 잘못 입력하고 월회계 보고를 할 때가 많아 걱정이 태산이었지만 그러한 부분도 익월에 정정전표로 수정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에서 놀라웠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하고 안아주는 것 같아 이 또한 감동입니다. 저는 많이 안겼네요 ^^^^
- 놀라움 여섯 ~ 세입, 세출계정 및 세목도 잘 분리되어있고 계정코드 검색 시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어 전표관리 작업 시 수월하고, 전표금액 분리기능도 있어서 계정과목에 따라 나눠 전표작성을 할 수 있다는 점 또한, 편리하고 용이합니다.

아동관리 탭에서는 기타필요경비 및 특별활동비에 대한 청구, 수납을 할 수 있고 계좌연동기능이 있어서 수납과 미납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청구, 수납 작업을 통해 개인별 정산이 자동으로 되고, 정산서 출력 및 납입고지서, 납입증명서도 자동으로 출력되는 등 다양한 편리기능이 많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반기별 정산과 운영위원회 보고 시 예산의 투명성, 정당성, 정확성 면에서 손색이 없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기 때문에 꼭 ~ 사

용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배워가는 단계라 교직원관리와 물품관리는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하지만 시스템 밖에서 작업했을 때 보다 작업속도나 효율적인 면에서 많은 차이를 가져오리라 생각합니다.

교직원, 물품관리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회계, 아동관리처럼 은인이 될 큰 예감을 해보며 다가가는 중에 있습니다. 인사, 급여관리, 물품대장, 교구라벨 등 너무 편리한 기능이 많아서 보는 순간 바로 반했습니다.

Part3. 옆에 있어 든든합니다.

결산보고와 새 학기 예산보고를 할 즈음에 저는 그동안 같고 닮은 실력으로 정산서도, 예산서도 스스로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만 생각하면 한숨이 ...휴 ~~ 그때는 배워가는 과정이 익숙하지 않아 힘들어서 내가 왜 사서 이 고생을 하고 있을까? 하며 후회 한 적도 많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겁보로 그냥 주저앉아 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저는 지금 제 자신이 놀라울 정도로 성장해 있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부분은 남아 있고,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종종 생기지만 그때마다 제 직무책임 전화기 옆에 가까이 붙어있는 1899 - 4181 번호는 사이다처럼 한 번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요. 매일 전화를 하고 사오정 같이 굴어도 헬프데스크 상담원 선생님께서는 항상 친절하게 응대 해주시고,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원격지원까지 해주시면서 끝까지 도움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에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겁보는 사라졌습니다. 제게는 든든한 인천시 어린이집관리시스템 헬프데스크 상담선생님과 컨설턴트 위원님, 동영상 메뉴얼, 책자 등 언제든지 어려울 때 손쉽게 찾아보고, 손 내밀면 따뜻하게 잡아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초보 원장님들..처음에 마주하는 회계란 녀석은 분명 공포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체계적인 인천광역시 어린이집관리시스템의 무한하고 막강한 지원을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원장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재무회계관리를 쥐락펴락하시는 역량 강화된 원장님으로 거듭 나시길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옆에 있어 든든합니다. 모두 해낼 수 있습니다.도전!”



나는 원장 4년차!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은 도입 4년차!

국공립루원SK2꿈가득어린이집 권영미

나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4년차, 올해 5월 신규개원을 해낸 병아리 원장이다. 원장이 된 첫해를 떠올려보면 원장으로의 첫 시작은 코로나와 함께였다.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되면 꽃길만 걸을 것 같았던 내 생각은 그저 생각일 뿐이었다. 현실은 자갈길...아니 가시밭길...그 자체... (선배 원장님들이 그저 존경스러울 뿐이다.) 원장의 길을 걷기 시작하며 가장 먼저 마주한 큰 산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회계관리였다. 회계에 대한 이해와 막막함이란 상상 그 이상이였다.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처음 접한 회계의 시작은 걸0마넷을 통한 회계 관리였다. 그래도 뭔가 프로그램적으로 갖춰진 회계관리가 있어서 그나마 감사하며, 열심히 회계에 대한 연수를 듣고 선배 원장님께 부탁드려 개인지도(?)를 받으며 밤샘 공부(?)도 병행하면서 조금씩 회계관리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다.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과의 아찔한 만남!

그러던 중 나에게 또 한번의 시련이 다가왔다! 그것은 바로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아니.. 난 이제 조금씩 회계에 대한 걸음마를 떼려고 하는 중이었는데... 또 다른 시스템의 등장은 뭐지? 누가 자꾸 이런 걸만 들어 내는거야!!!) 투덜거렸지만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과의 만남을 받아들였다. KB은행 보조금 전용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인증서를 등록하고 사용자등록과 기존 회계관리프로그램에서 자료변환 신청을 완료하여 드디어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과의 만남을 이룰 수 있었다.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었기에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인육중)에서는 기초사용자 교육을 한번 듣고 두 번 들으면서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과의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을 얻었다. 나도 어린이집 원장이 처음! 너(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도 도입이 처음!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보자~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아~ 잘 부탁해~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컨설팅을 만나다

기초사용자교육을 여러 번 들었지만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사용하면서도 모르는 것 투성이인데... 선배 원장님께 여쭙보지만 선배 원장님도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은 처음이라고 하시며 손사래치신다. 진짜 큰!일!났!다!! 다들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은 처음이잖아! 10년차 원장님도.. 20년차 원장님도.. 모두 처음~! 그렇게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때쯤 회소식이 들려온다. 회계 컨설팅을 신청하는 어린이집으로 현장 지원이 시작되었다. 나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걸 신청해? 신청하지 마? 고민...(왠지 나의 회계관리를 타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나의 부족함이 만천하에 공개될 것 같은 자존감이 떨어지는 느낌 ㅜ.ㅜ) 하지만 나는 걱정을 뒤로하고 호기롭게 1:1컨설팅을 신청했다.

드디어 어린이집에 컨설턴트님 도착!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친절하시다. 내가 바라고 바랬던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으로 나를 이끌어주실 선배 원장님이시다. 전표등록은 교육을 통해 배워서 할 수 있었지만 지출된 비용이 환불되어 들어오면 반납처리를 해야 할 때, 한꺼번에 지출한 금액에서 전표를 분리 작성해야 할 때 등 어려움이 느껴졌던 부분들을 모두 쏟아 내었다. 세상에나! 1:1 컨설팅에 오신 컨설턴트님은 2시간 동안 병아리 원장의 각종 어려움에 대한 토로를 다 들어주시고 공감해주셨다. 그저 내 이야기를 들어주심에 감사했고, 천천히 전표등록, 전표검증, 월 회계보고 등에 대한 궁금증도 하나씩 해결할 수 있었다. 열심히 노트에 적는 나를 보며 '나중에 기억나겠어요?'라는

물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적습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더니 어머니! 1:1컨설팅은 1회에 끝나지 않는다고 한다. 또 신청할 수 있다고... 세상에나.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2번, 후에는 3번까지도 받을 수 있다니 1:1 컨설팅은 정말 든든한 마음과 함께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었다.

든든한 나의 구세주! 헬프데스크 1899-4181

1:1 컨설팅을 계기로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나의 능력은 업그레이드가 되었다. 환불되는 돈을 어떻게 전표 등록하고, 잘못 등록한 관항목을 어떻게 수정한단 말인가... 시스템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씩 사라지고 한번 해보자! 라는 자신감이 생겨났다. 하지만 사용하던 중간 모르는 부분의 등장은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때 눈에 띄는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메인 화면의 헬프데스크!!! 도움의 전화. 나는 망설임없이 1899-4181로 전화를 걸었다. 헛갈리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궁금한 부분을 여쭙어보니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설명하는 방법대로 같이 해보라고 하신다. 따라하다보니 해결되지 않던 부분들이 해결되었다. 그 후로도 나는 헛갈리거나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헬프데스크로 전화를 건다. 그곳에 든든한 나의 구세주!가 계신다.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하며, 여러 가지의 기능 중에서 '회계관리'만을 사용해왔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옆에 있는 아동관리, 교직원관리, 물품관리도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에 적응이 되었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막상 아동관리, 교직원관리, 물품관리를 열 어보니 '이건 또 뭐지?' 느낌이 좋지 않다. 새로운 것이 등장했다.

막연하게 두렵기보다는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교육을 찾아보고 있는 나. 어느새 관리시스템은 기초, 중급, 고급 교육에서 입문, 심화, 활용 교육으로 변화했고, 나는 그 교육들을 순차적으로 들었다. 교육을 들으며 업그레이드된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경험했고, 원장이 혼자 이리저리 뛰는 시스템이 아니라 보육교직원이 함께 어린이집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원장인 내가 시스템에 적응하고보니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나는 선생님들의 업무분장을 확인하고 물품관리(교재교구, 비품, 해당 메뉴)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접근권한을 설정하였다. 이제 선생님들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 자신이 맡은 관리영역에 로그인하여 교재교구, 비품 탭에 사진과 기본사항을 기록하여 물품대장과 교재교구대장을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물품을 담당하는 보육교직원 뿐 아니라 다른 보육교직원들도 로그인하여 원내 비치되어 있는 물품이나 교재교구 등을 한 눈에 검색하고 필요한 것을 찾을 수 있었고, 필요한 새로운 물품도 구매하고 또 기록하며 물품관리 영역을 활발하게 사용해가고 있다. 또 아동관리와 교직원관리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일괄등록하여 관리함으로써 아동관리를 통해 보육료, 기타필요경비, 특별활동비의 청구, 수납을 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으며 부분반환 시, 미납금에 대한 확인이 좀 더 수월해졌다. 이제부터는 필요경비 정산도 가능하다고 하다. 내가 새롭게 배워야 할 것이 또 나타났다.

1:1컨설팅을 통해 필요경비의 정산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 보아야겠다. 또한 교직원관리 부분에서는 기초적으로 교직원의 호봉관리와 재직증명서를 쉽게 출력해낼 수 있다. 교직원 관리 부분도 점차적으로 활용도를 높여볼 계획이다.

어린이집 관리시스템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나!

새롭게 위탁을 받아 올해 5월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하였다. 개원은 처음하다보니 정말 모든 것이 새로웠고, 내가 해보지 못한 많은 것들을 해내야만 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나는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이미 경험했다!'는 것이었다. 2020년 내가 처음 어린이집 원장이 되면서 2020년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이 처음으로 도입되어 사용되기 시작했다. 나의 원장 시작과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은 같은 출발을 시작한 동기(?)와도 같다고 해야할까. 처음 2020년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이 시작되면서 내 핸드폰에 <어린이집관리>라는 앱을 설치했다. 핸드폰 앱을 통해 전표관리를 할 수도 있고, 증빙자료를 촬영하고 관리할 수도 있다.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잘 사용하지는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사용하지 못했다.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에 잘 몰라 항상 알아가야 할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부터는 이 앱을 활용해본다. 증빙자료(영수증)를 촬영하고, 촬영한 자료를 모아두었다가 언제든 전표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다.

처음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만났을 때는 ‘누가 또 이런걸 만들어서는...일만 늘어났잖아.’라고 푸념했지만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만난 4년차인 지금은 내가 이 시스템에 많이 스며든 느낌이다. 가끔은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처음 접하게 된 동료 원장님들이 이 시스템에 대해 물어오면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알려주기도 하고, 나의 구세주인 헬프데스크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도 한다. ^^ 나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과 함께 이만큼 성장하였다. 아직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과의 아찔한 만남을 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다. 예전의 나처럼 두려움 때문에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과의 만남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고 싶다! 강추!강추!

아직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있어도 사용을 포기하는 사람은 없다!



[필요경비 정산] 수포자도 할 수 있어요!! 이제 나도 회계 전문가!!

국공립햇살어린이집 이민경

원래 숫자와 친하지 않았다. 원장이 되고 가장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바로 “회계”였다.

처음에는 다른 회계 프로그램을 썼었는데 수작업으로 계산해서 넣거나 하는 업무들이 있어서 숫자를 틀리지 않을 까 항상 두 번, 세 번 계산하고 확인하다 보니 업무 시간이 길어지기 일쑤였다. 그런데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회계업무 시간이 확 줄어들어서 만족하던 중에 이번에 도입된 필요경비 정산 시스템 교육을 받고 나니 또 다른 신세계가 열리게 되었다.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먼저 원아 부모님에게 필요경비 입금을 받으면 계정과목대로 한명 한명 수기로 나누고 납부 내역을 기록하다 보면 시간도 엄청나게 오래 소요됨은 물론 수기로 나뉘던 계정과목의 금액이 틀리는 오류가 수시로 발생하였다.

작년 필요경비 정산 시 수입 금액이 장부와 맞지 않아 시스템에서 필요경비 수입 부분을 출력하여 하반기 부분의 모든 영유아의 납부내역을 수작업을 맞추는 작업을 하였다. 야근을 하면서 결국 찾아낸 나의 실수는 바로 몇몇 친구들의 행사비를 지자체 특성화비 계정과목으로 넣어놓거나 납부를 하지 않은 원아인데 납부라고 표시를 해 놓은 경우도 있었다. ‘아무리 숫자와 친하지 않다지만 어찌 이런 실수를 반복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급격한 스트레스가 밀려오며 ‘아, 역시 나는 숫자와 친하지 않아, 회계가 많이 어렵구나!’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올해 필요경비 정산 시스템이 개설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금도 해매고 있는데 더 어려운 프로그램이 생긴다면 나는 더 어려움이 생기겠구나!’란 생각으로 서둘러 연수를 등록하고 가는 발걸음 내내 마음이 점점 어두웠다. 그런데, 강사님의 연수를 받다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어렵다고 생각했던 필요경비 정산 부분에 대한 정말 편리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첫째, 처음 연령별 과목별로 금액 설정을 해두면 아이가 필요경비를 입금했을 때 자동으로 나누어져서 수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었다. 기존에 수기로 입력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오류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경비 대장에 따로 수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다.

둘째, 지출 부분의 금액이 아이들마다 개별 정산이 자동으로 되어서 내가 금액을 수기로 나눠서 숫자가 틀리지 않는 부분이다. 이 역시 정말 마음에 든다. 숫자에 약한 나는 계산기나 엑셀로 수식을 넣어 계산하다 보면 손가락이 잘못 작동되거나 계산을 잘못해서 이상한 오류에 빠져 틀리기가 일쑤였다.

셋째, 자동으로 수입과 정산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회계업무 시간이 줄어 원에 항상 발생하는 다양한 업무들에 집중하여 원 운영이 지금보다 훨씬 원활해지는 부분이었다. 금액이 틀려서 계산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흘러 지나가 있어 항상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는 점이 매번 속상했다.

넷째, 필요경비 정산 기간이 되면 예민해지는 나의 기분으로 본의 아니게 미간의 주름을 봐야 하는 선생님들의 마음도 편해진다는 점이다.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필요경비 정산에 대한 스트레스와 걱정으로 고민에 빠져있는 나의 모습이 선생님들에게도 긍정적인 기운을 주지는 못할 것 같다. 하지만 이제 새롭게 개발된 필요경비 정산 프로그램으로 나의 스트레스와 걱정은 사라지게 되었다. 일 년에 두 번 어두워지던 원장님과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이별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회계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항상 실수가 발생해서 어려움이 많았던 원장 업무 중에 하나였는데 그 중 가장 어려움을 느꼈던 필요경비 정산 부분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기존 업무에서 발생하던 실수와 어려움을 확!!! 줄일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며,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또 숫자와 친하지 않아서 발생했던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불필요한 업무 시간들이 줄어들 수 있어서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어린이집 원장은 슈퍼우먼과 같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관리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업무들을 처리할 때 각각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지만 지금은 회계업무를 처리할 때 정확한 업무 처리를 위해 더욱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는데, 기존 업무 처리 시간 중 회계 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줄여서 다른 업무들을 처리할 수 있는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고마운 친구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이제 나의 어린이집 생활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업무 파트너 중의 하나이다.

계속해서 개발해주시는 좋은 프로그램을 받아들이 준비가 되어있다. 사용하다 보면 생기는 회계와 교직원, 영유아 관리에 대한 어려운 부분에 대해 계속 고민해주시고 개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학을 포기했던 수포자도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과 함께라면 이제 나도 회계 전문가!!! 어린이집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유능한 업무 파트너가 있어 초보 원장으로서의 어려움과는 이제 안녕하며 이제 3년의 경력을 가진 초보 원장이지만 역량이 아주 많은 원장과 같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과 함께 하루하루 더욱 발전하고 더 성장하고 있다.

처음은 낯설지만 지금은 여유가 생겼어요~~^^

푸른숲어린이집 이정아

인천관리시스템 사용 전 사전조사 및 비교분석

관리시스템에 대한 내용은 시범사업으로 국공립과 공공형어린이집이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관리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 조금은 두려움이 없지 않았습니디. 2020년 인천관리시스템에 대한 구청에서 설명회를 듣고 현재 우리원이 하고 있는 시스템과 비슷한 점이 있어 시스템 사용에 긍정적으로 마음으로 설명회를 참여 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하기 전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몇개원의 원장님께 사용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보며 우리원과 맞는 부분에 대해 고려해 보았습니다. 민간회계시스템을 사용중인 현재 상황에서 장단점을 먼저 비교해 본다면, 민간업체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점, 사진이나 영수증을 하나하나 인쇄하여 붙였지만 인천시스템에서는 사용료가 무료인 점과 사진이나 영수증 인쇄하지 않아도 되는 점이 장점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공공형을 준비중인 저희원에서는 선정기준에서 점수를 추가할 수 있어 장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시군구 사업안내 및 설명회 참여



시스템 사용에 대한 의견 취합 및 장단점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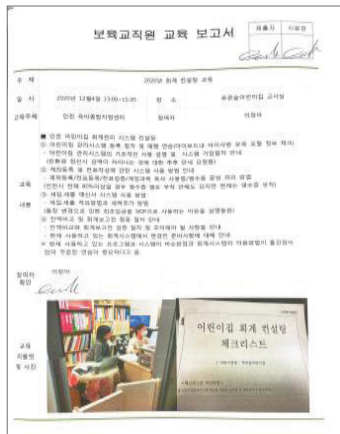


인천육아종합지원센터 시스템 교육 및 컨설팅 지역연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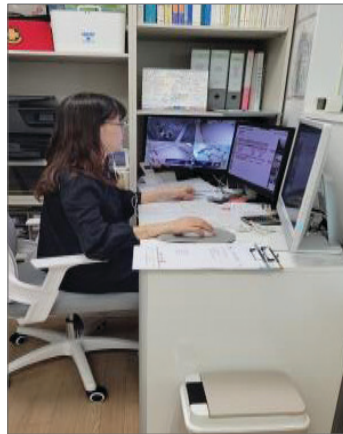
관리시스템 사용은 아기가 첫발을 내딛는 마음으로 은행변경을 시작으로 인천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교육과 컨설팅을 신청하여 대면교육으로 시스템 사용방법을 교육 받을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가 능숙하지 않아 시스템 사용전 걱정이 되었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연습삼아 한달 두달 회계시스템에 등록하는 연습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계시스템 입문 중 제일 도움이 되었던 것은 관리회계시스템 컨설팅이었습니다. 시스템 운영중이신 컨설팅 담당 원장님께서 직접 쉽게 사용하는 노하우와 시스템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께 시스템을 사용해 보면서 현재 전표관리, 결산관리, 예산관리 등의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과 시범을 그리고 직접 실행 해 볼 수 있어서 자신감을 갖을 수 있었습니다.

▶ 교육진행 과정

인천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 및 컨설팅 지원



회계시스템 운용 노력 및 컨설팅 실천 연습 진행



관리시스템의 사용후 달라진 점과 장점

2003년부터 어린이집을 시작해 2020년 까지는 매월 회계 정산시기에 맞춰 민간 업체에 월비용 또는 연간 비용을 내며 회계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회계 업체가 사회복지 관련 사항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아 어린이집 회계매뉴얼과 다르게 전표 및 예산을 책정되어 여러번 수정하는 부분이 있어 지도점검이 오면 이것을 확인절차가 필요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월 영수증 인쇄 및 사진을 결의서 뒷부분에 별도로 붙이는 작업이 번거로운 작업이었습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인천관리시스템을 사용하면서 당일 지출내역이 핸드폰과 연계되어 전표관리 및 지출내역을 확인하면서 서류 작업이 단순화 된 부분이 인천회계관리시스템의 장점으로 말할 수 있으며 이에 더불어 비용의 전혀 들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관리시스템의 사용 전과 후의 원장으로서의 자세에 관련하여 비교해 볼 수 있는 예로 최근 3년치의 회계관련 지도점검을 받으면서 원장으로서 시군구 담당 주무관에게 인정받는 푸른숲이 된 계기가 된 점이 크나큰 장점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 인천관리시스템 사용 예시

헬프데스크 운영



편리한 등록 시스템



인쇄 절약 및 시간단축



추천의 글

2021년부터 1월부터 인천관리시스템에 연계하여 전표를 등록하고 영수증과 사진을 등록하면서 첫 월회계보고 후 원가 내가 해냈다는 기분과 예산을 직접 짜면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좀 더 구체화되어 예산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1년 계획하고 있었던 공공형 선정에 시스템 사용으로 가점을 받고 선정에 일조할 수 있었던 점도 놓칠 수 없는 부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후로도 관리시스템에 관련된 인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심화교육 그리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원아관리 및 필요경비 정산에 대한 교육을 들으며 인천관리시스템내의 활용도를 높이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은 대부분 항상 바쁜 일과에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하게 마련입니다. 이에 인천관리시스템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적게 인쇄하고 단축된 회계처리로 작은 여유라도 함께 느낄 수 있는 원장님들이 많이 계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인천관리시스템 사용수기를 올립니다.



투명한 회계경영의 첫 단추!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화성파크드림어린이집 이정화

나는 초임원장이다. 2021년 원장으로 위탁을 받아 이제 막 걸음마를 댄 햇병아리 원장이다.

초임원장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업무는 무엇일까? 원아관리, 충실한 보육과정의 운영, 부모 상담과 교사 교육 등 어떤 업무도 우월을 가릴 수 없이 중요한 업무들이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투명하고 확실하게 처리되어야 업무는 무엇일까, 그건 바로 재무회계라고 생각한다. 정부지원보육료, 인건비 지원금, 부모부담경비, 보조금 등 어린이집 운영비는 단 1원을 사용하더라도 예산에 따라 계획적인 지출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증빙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이다. 그러나 보육교사 시절 담당해본 회계업무라고는 고작 결의서 수기작성과 영수증 증빙이라는 매우 단순한 업무뿐이었던 나에게 단 1원의 오차 없는 투명한 회계경영은 그저 막연한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어린이집 운영을 시작하기에 앞서 어린이집 재무회계 교육을 찾아 들던 중 인천광역시에서 KB국민은행과 업무협약 하여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20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보육재정의 공공성 제고 실행방안으로 마련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의 궁극적인 목적이 투명성이라니 회계업무에 대해 고민하던 나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의 시작, 정기교육과 회계컨설팅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국민은행으로 달려가 전용통장과 전용카드를 발급 받기, 또 하나는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정기교육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기초교육 1차, 2차.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동일한 교육을 반복하여 들어보며 시스템 사용방법을 익혀보았다. 교육을 듣고 난 뒤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시작으로 여러 항목을 설정하며 차근차근 관리시스템을 살펴보았는데 이때는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를 정도로 재미있게 탐구하는 시간이었다.

이어지는 중급, 고급, 실무교육, 예·결산 및 추경결산 교육, 필요경비 정산교육, 활용교육 등 비대면 줌으로 진행되는 여러 교육에 몰입하여 강의를 듣고자 하였고 시스템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꼼꼼하게 기록을 하며 이론과 실재를 동시에 적용해볼 수 있었다.

어느 정도 회계업무가 손에 익어질 무렵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내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오류가 없는지 판단해줄 전문가가 필요했다. 곧바로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1:1 회계컨설팅을 신청하고 체크리스트에 따라 내 자신을 점검해보았다. 컨설팅 당일, 평가를 받아야 하는 두려운 마음과 동시에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설렘이 동시에 느껴졌다. 1:1 컨설팅에는 같은 지역구의 어린이집 원장님이 참여하였는데 동료 원장님이라 그런지 더욱 친근하게 궁금했던 점을 묻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받기도 하며 혼자서만 고민하던 부분을 전문가에게 지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했다. 또, 이렇게 대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했다.

그저 시스템을 만들어 두고 사용자가 알아서 이용하도록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의 사용자로서의 숙련도를 높이고 1:1 컨설팅, 소그룹 컨설팅을 통해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과 투명한 재무회계 관리를 지원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해하기 쉽게, 따라만 하면 되는 매뉴얼

어린이집을 운영하기에 앞서 가장 처음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예산서 작성이다. 예산서 작성 경험이 적은 초임원장으로서 비슷한 규모의 어린이집의 예산예산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 예산예산을 불러와 우리 어린이집 예산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사실 타 원의 예산안을 열람하고자 요청하는 것도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차인금액을 바로바로 확인하며 세입·세출 예산서를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추가경정 시에도 직전 예산 불러오기를 통해 변경된 예산 부분을 손쉽게 수정할 수 있어 편리하였다.

전용통장과 전용카드가 연계되어 미등록계좌 내역을 한눈에 확인하여 전표등록을 바로 할 수 있는 점도 매우 편리한 부분이다. 카드내역 연계로 지출결의서에 영수증이 첨부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세부영수증이 업로드 되는 등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스마트한 회계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생성된 전표는 전표검증을 통해 오류를 확인하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류는 전표 정정하기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초임원장이 가장 흔히 하게 되는 실수가 계정과목 설정에 대한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회계 보고 후에도 전표정정을 할 수 있다니 정말 고마운 일이다.

그 외에도 세목 정산하기, 회계내역 검증하기, 예산 보고하기 등 정기교육과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유튜브 채널의 영상물 등을 통해 학습한 매뉴얼대로 따라만 하면 되니 회계 관리가 점점 어렵지 않게 느껴졌다.

오! 나의 헬프데스크, 원격지원

회계업무를 시작한 초기에는 매일같이, 아니 하루에도 서너 번 헬프데스크에 S.O.S를 요청하였다. “상담사님 저는 초임원장인데요.”로 통화를 시작하여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사용하다 생긴 어려움이나, 필요경비 정산이나 예결산 시 혼동이 있는 경우 등 경험이 적은 초임원장으로서 직면한 문제들을 함께 풀어냈다.

나중에는 “아~ 00원장님”이라고 이전 상담내용을 말하며 먼저 인사를 건네거나 “처음에는 뭐든 쉽지 않죠, 지금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서툰 실수에도 따뜻한 말을 건네며 나를 응원하던 상담사님도 있었으니 헬프데스크는 든든한 지원군, 나의 업무 helper라는 친근한 마음으로 언제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었다.

헬프데스크 운영에서 가장 도움이 된 것은 원격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유선상으로 여러 번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던 부분을 원격지원을 통해 모니터를 공유하며 문제해결 방법을 함께 찾아볼 수 있었다. 헬프데스크는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즉각적인 질문과 응대가 가능하여 빠른 시간에 오류를 예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올해 상반기 관할 구청에서 진행하는 지도점검이 있었다. 회계 점검에 대비해 꼼꼼히 서류를 확인하고 지도점검을 받았는데 점검을 마치고 난 담당 공무원이 회계 지침에 따라 회계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말을 해주었다. 잔뜩 긴장을 하고 시험성적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순간 마음이 풀어지더니 보상을 받는 기분까지 들었다. 종종 동료 원장님들이 관리시스템에 관련해 궁금한 점이 생길 때 전화를 주신다. “00원장님은 뭐든 알고 있으니까 헬프데스크 대신 원장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라고 우스갯소리로 해주신 말에도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기교육이 있을 때 교육에 참여하고, 매뉴얼에 따라 시스템을 이용하고,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울 때 헬프데스크와 상담했을 뿐이다.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으로 회계경영의 첫 단추를 잘 끼웠더니 자연스럽게 두 번째, 세 번째 단추가 끼워지고 있다. 햇병아리 초임원장에서 이제는 날개 깰 몇 개 빠쪽 자란 중달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아직 원장으로서의 배움과 경력이 짧지만 앞으로 변화하는 시스템이나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적용하는 원장이 되겠다고 다짐한다.

무엇을 하든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제 막 초임원장이 된 후배 원장님들께 감히 단언한다.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과 함께 재무회계의 첫 단추를 끼우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잘 따라서 가다보면 어느덧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무회계의 기반을 마련하여 어린이집 회계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이다. 물론, 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용수기 공모 참가작

- Next-step이 다가와도 I'am 준비 완료예요.
- ONE(원이 하나가 되는)
- 나~~~~돌아갈래
- 나도 할 수 있을까?
- 마침내, 회계관리는 어렵다는 생각과 헤어질 결심
(복잡하고 어려운 회계관리, 누군가는 단순화해야 한다)
- 무서운 회계는 이제 그만!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으로 웃어요~!
- 不避之樂(불피지락).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 산 하나만 넘으면 만나게 돼요, 스마트한 내 친구 '정책정산'
- 시스템이 어린이집 회계 해결사
-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더라!
- "아하 이거였네~~"
- 아하!! 그렇구나!!
- 앗! 회계는 숫자일뿐 도전 앞!
- 야호! 자동입력 시스템으로 업무의 질이 향상되었다!
- 어린이집 운영관리를 한번에 ~~~ 빠르고 편리하게 ~ 논 스톱
시스템!!!
- 엑셀(Excel)을 못하는 내가 필요경비 정산을? :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새 친구(필요경비 정산) 이야기
- 여전히 서툴고 부족하지만 든든한 지원군
- 용기와 결단의 연속 = '인천광역시 어린이집관리시스템'
- "유레카", 앞으로는 내가 아닌 너만 믿을 게!!!
-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과 함께 벌써 3년!!
-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용수기
-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으로 함께해요.
-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통한 어린이집 회계
관리의 편리함
- '인천광역시 어린이집관리시스템'은 어린이집 운영의 '전진'을
위한 도구
- 인천광역시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입문 성공기 - 익숙함을
버리고 조금은 귀찮음과 두려움에 도전하다
- 인천시어린이집회계관리시스템은 나는 한 단계 올라서게
만들었다
- 첫알빠!(첫 걸음 어렵다고 느껴도 알고 보면 빠른 길!)
- 필요경비 정산, 더 이상 미루지 말아요! 엑셀파일은 이제 안녕~
- 필요경비 정산을 해결하다.
- 혼자서도 잘 할 수 있어요. 모바일로도 척!척!척!
- 회계시스템은? 운영의 오아시스

Next-step이 다가와도 I'am 준비 완료예요

더샵노리숲어린이집 박성희

‘사람은 결코 완벽할 수 없다’

고로 나는 운영자이지만 잘 모르는 회계는 전문업체의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고,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전문 보육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마인드로 십 년 넘게 어린이집을 운영했다. 회계 업무가 중요하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기에 업무의 정리는 전문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였다. 약간의 비용이면 영수증까지 붙여서 책자로 만들어 주니 그보다 편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필요경비의 개인 정산은 업체에서도 개별 아동별로 정확히 정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정산서를 제출하는 기간이 되면 엑셀의 기초도 모르는 나는 늦은 시간까지 숫자들과 씨름을 해야 했고, 지출 정산 중 문제가 발견되면 어디서 실수가 있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없는 점이 힘들었다. 무엇보다 그런 문제점을 알고있지만 직접 회계 업무를 하는 경우 실수에 대한 부담감이 만만치 않아 같은 실수와 고민을 반복하면서도 업무 스타일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 나의 아킬레스 건이었다. 그러던 중 21년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 받아 개원을 하게 되었고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용이 기본 사항이 되면서 더 이상 민간업체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해보자 다짐하면서 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개원과 함께 물밀 듯이 밀려오는 수많은 업무와 병행하며 잘 하고 있는지 실수는 하는 것이 없는지 주저하며 다시 민간업체에 맡길까? 하는 생각이 수없이 들었다. ‘업체에 맡기면 이렇게 긴 시간 야근은 하지 않을텐데...’ 하지만 내가 누구인가? ‘시대의 변화를 알고 그에 맞는 보육을 하는 원장이다.’

원 운영을 하려면 표준보육 과정과 누리과정에 맞는 연간계획을 작성하고 계속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더 좋은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다듬어 가는 것처럼 운영에 있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응원하며 매뉴얼 책과 초급-중급-고급 회계교육을 받으면서 시스템과 친해지려 노력했다. 적응 초기에 가장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은 전·현직에 계시면서 오랜 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해 오신 선배 원장님들의 컨설팅이었다. 업무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 좁은 시야로 시스템을 사용하던 나에게 컨설팅은 인천광역시 어린이집관리시스템을 단순한 회계 입력 프로그램에서 운영의 파트너로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게 하고 작은 부분도 세밀하게 볼 수 있는 천제 망원경이자 현미경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현실적이고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 또 하나의 파트너는 바로 헬프 데스크였다. 종종 겪게 되는 어려움은 헬프데스크에 전화하면 상담 선생님이 친절히 알려주시고 잘 안 될 경우에는 원격으로도 지원을 받아 해결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또 신기하게도 다음 달이면 잊어버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나와 같은 초단기 한정 기억 우수자를 위해 같은 내용을 몇 번이나 친절하게 알려 주는 헬프 데스크가 있어 실수해도 긴장하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컨설팅과 사후지원이 좋다고 해도 관리시스템 자체가 우수하지 않았다면 적응과 사용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다. 6개월 정도 지나니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고 업무도 간소화되고 시스템에 대한 편리함을 알게 되었다.

회계시스템은 회계관리-아동관리-교직원관리-물품관리로 나뉘져 있다.

그중 회계관리는 국민은행 통장과 연동이 되어있어 전표등록을 통해 수입과 지출내역의 잔액을 비교 할 수 있고 매월 하는 월 회계 보고시에도 전표 검증 기능을 통해 단계별로 검증을 할 수 있어 내가 놓치는 부분을 파악해 분석해 주는데 전표 검증에서 초과되거나 잘못 집행된 것은 빨간불이 깜박거리며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알려주고 입력이 잘 되어있으면 파란불과 함께 예쁘게 웃으며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친절함까지 가지고 있다. 어디서 실수가 있었는지 파악하느라 애를 먹었던 과거와 달리 전표를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바로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의 디테일이란... 시스템을 만들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것이 느껴진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물품관리의 경우 아직 사진 출력이 물품대장과 함께 되지 않아 별도의 대장을 관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세금의 투명함을 위해 세무 서비스를 이용하여 큰 어려움이 없지만 홈텍스를 통한 부가세 신고나 월별 혹은 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세금 납부, 연말 정산 및 보수 총액신고와 같은 업무는 업무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상/하반기 정리 업무로 바쁜 매해 7월과 익월 1~3월에 해당 업무가 몰려 있어 잊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현재 시스템에서 고용이나 노무와 관련된 안내를 잘 받을 수 있어 편리함을 느끼는 것처럼, 매달 혹은 매해 이러한 세금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면 팝업이나 공지사항을 통해 알려 주거나 홈텍스, e-세로, 건강보험관리공단과 같이 관련 업무를 하는 사이트가 연동되어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준다면 그야말로 관리자의 입장에서 논스톱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한 유일무이한 관리시스템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한다.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회계시스템을 이용하지 이제 삼년 째 접어든다.

이제는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운영의 전반적인 세입지출을 바로 확인하고 세목에서 잘못 된 것을 다시 정정하거나 추경을 잡아 운영 회의때 보고 할 수 있는 여유로움이 생겼다. 막연한 두려움과 점검이라는 부담감에 망설였지만 지금은 회계 시스템의 효율성과 편리함으로 내가 어린이집 살림을 잘하고 있구나하는 자신감과 함께 전체 운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몸에 익으면서 보육이나 일반 운영에 할애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 보육의 질 역시 향상되고 있다. 또한 필요경비 정산도 정산/결산 탭에 들어가면 한눈에 얼마가 입금되었고 지출되었는지 알 수 있어 개인정산을 하는데도 수월하다. 엑셀 초심자로 엑셀과 숫자만봐도 긴장이 되었던 내가 이제는 관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쉽게 개별 정산을 해내고 있다. 또, 교직원관리도 보육시스템에서 불러오기하여 복사를 하고 기본 사항만 저장하면 교직원 급여, 4대보험 등 세금이 얼마가 지출되는지 알수 있다. 그전에는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민간회계업체에서 해 줬기 때문에 잘못 된 건지도 모르고 집행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부터는 자동계산되어 급여가 반영되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자신감을 얻고 해볼만 하다 느낄 때 즈음 23년 상반기부터 만5세 필요경비 정산을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으로 진행한다는 업무 연락에 다시 긴장되었지만,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의 똑똑함과 편리성을 믿으며 회계정산교육을 받고 나의 의지와 노력을 믿으며 책상에 앉아 매뉴얼을 찾아 보면서 하나하나 입력하고 있다. 비록 느리게 가고 있지만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는 확신과 함께 운영의 투명함과 적절성의 획득이라는 큰 자부심을 갖고 똑심 있게 해 나아가고 있다. 종종 닥치는 업무 폭탄에 흔들릴 때도 있지만, 한번 하기가 힘들지 한번 해 보면 누구보다 편리함을 알기에 지금의 시간을 즐기려 한다.

그래서 Next time에 그 어떤 업무가 주어진다고 해도 I'am 준비 완료예요.

Because, 나는 발전할 준비가 되어있는 원장이니까요.

ONE (원이 하나가 되는)

국공립마전힘찬하나어린이집 이진미

나는 올해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은 매일이 고군분투인 신입원장이다. 이런 나에게 누군가 ‘원장이 되었다는 걸 언제 가장 실감하세요?’라고 묻는다면 나는 단연코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용할 때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교사일 때는 정말 생각만 해도 심정지가 올 것 같았던 회계 시스템을 지금 나는 원장이라는 자리에서 매일 마주하며 어린이집 운영에 정말 중요한 요소임을 실감하고 있다.

처음 회계 시스템을 사용할 때는 ‘내가 이렇게도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이었나?’라는 생각이 끊이지 않았다. 정말이지 말 그대로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아마도 헬프데스크에 수십번, 아니 수백번도 넘게 전화했으리라.....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민망하고 미안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분들이 항상 친절하게 설명해주시고 원격지원을 통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주신 덕분에 초보 원장은 이 ‘회계 시스템의 길’을 나름대로 헤쳐 나갈 수 있었다.

그저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할 따름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매일 직원분들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기에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인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회계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초급부터 중급, 고급까지 수준별로 진행되는 교육은 경력이 있는 원장님들께도 분명하게 도움이 되고, 특히 새롭게 시작하는 원장님들에게는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되었다. 회계에 ‘회’만 들어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편두통이 오던 나에게 이 교육은 진통제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다.

더군다나 이 진통제는 한번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월마다 주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언제든지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이고 유용한 교육이다. 물론, 인천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자체적으로도 동영상상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활용해도 되지만, 대면 교육에서는 개인적으로 운영에 대해 궁금한 사항도 물어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 기관의 원장님들의 참여로 인한 서로 간의 다양한 정보 공유라는 특징점이 있기에 나는 대면 교육을 선호하고 또 추천한다. 개인적으로 나는 교육을 통해 시스템 등록, 전표등록, 전표정정, 등 회계 처리 요소들을 습득하고 적용할 수 있던 점이 매우 만족스러웠다.

사실, 나에게는 회계의 기본적 부분을 숙지 및 사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항상 마음 한 켠에 자리잡고 있는 의문이 있었다. 그것은 ‘그런데.....지금 내가 맞게 잘하고 있나?’라는 것이었다. 원장은 소속 기관의 최종 결정권자이다. 따라서 그 일에 있어서 지도 점검하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렇기에 누군가에게 지도를 받거나 허가를 받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원장으로서 운영에 대해, 특히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피드백 받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어떤 실수가 있다고 해도 그로 인한 잘못된 결과가 나오기 전에 빠르게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좀처럼 쉽게 오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센터에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회계 컨설팅 프로그램은 눈에 띄어 수밖에 없었다. 알고 보니 이미 많은 원장님들이 회계 컨설팅을 통해 기본적인 회계 시스템 사용방법 및 회계 업무에 필요한 피드백을 받으며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나 또한 당연히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간 내가 처리해 온 시스템에서 전표등록과 세목이 맞게 구별되어있는지 그리고 시스템에서 회계목록을 볼 때 어

땡게 정리하면 더 한 눈에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보육료, 기타필요경비 청구수납작업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간단한 부분이긴 하지만, 전표 목록 앞에 키워드 제목을 붙여놓아야 보기에 편하다는 점도 그때 알게 되어 지금도 잘 적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장에 계신 원장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더 믿을 수 있었고 회계 처리에 대한 고민들을 나누며 차분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 대나무 숲에서 혼자만 외치던 고민들을 전문가에게 도움받고 현장의 이야기들로 공감받으며 짧게나마 위로와 배움이 공존하는 시간이었다.

현재 시군구는 인천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어린이집 모두가 같이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에서 현재 나는 회계, 아동, 교직원(급여대장) 영역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물품도 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이다. 급여의 경우도 보육 교직원 호봉 맞춤 설정으로 되어있어 클릭 몇 번이면 사용이 용이하다. 전반적으로 한 눈에 잘 들어오고 관리하기 쉽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기존에 다른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했던 원이라면 바꾸는 것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처음이 좀 낯설 뿐, 사용을 반복하고 적응하다보면 왜 사용을 전체적으로 권장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올해까지는 필요경비정산에 대한 시스템 이용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지만, 내년부터는 시스템으로만 정산하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면으로 정산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 시스템으로 정산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모두가 회계 초년생이 된 것처럼 그 복잡한 심경은 이루 표현할 수 없으리라.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모두가 다 같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모두가 동그라미처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별 대수롭지 않은 생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 19 펜데믹을 겪으면서 ‘같이, 하나’라는 말을 정감 있게 사용했던 때가 정말 오래전 일인 것 같다.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서로를 위한 방법이 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들이 익숙하던 때에 모두가 서로 다른 어린이집을 저마다의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가장 투명하고 정확해야 하는 회계라는 영역에서는 우리 모두 프로그램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소속감이 생기면서 벅찬 감정이 움트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이 연결이 더 견고해지도록 센터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회계 교육, 컨설팅, 단계적인 추진 과정 등이 정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천에 있는 모든 원들이 하나가 되는 프로그램! 그게 바로 인천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이 아닐까 싶다.

신임원장인 나에게 회계 시스템은 등록부터 만만치 않았지만 인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회계교육과 여러 선배 원장님들의 도움을 받아 시스템 등록부터 회계, 교사 급여, 아동 등록 등 현재는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하나로 어린이집의 살림을 찬찬히 살펴보는 중이다. 필요경비정산과 아직도 시스템 사용에 있어서 미숙한 부분들이 있지만 처음처럼 걱정이 되지는 않는다. 초보자부터 경력자까지 모두에게 필요한 서비스로 충분히 채움을 받고 사용할 수 있으리라. 그리고 회계를 처음 시작하게 될 다른 기관의 원장님들에게 나 또한 언젠가는 도움을 주며 더 큰 동그라미를 만들어가리라 생각한다.

나~~~~ 돌아갈래

다원어린이집 송보경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 입문교육, 심화교육, 입문교육, 심화교육.....교육이 올라 오면 자주 바다 건너 육종지로 충전을 하러 달려갔습니다. 배워도 곧 잊어버리고 또 배우고 또 잊기를 반복하였지만 그래도 누가 이기나 보자며 스스로에게 계속 채찍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산 편성이나 회계보고 사용하니 큰 불편은 없으나 항상 무엇인가 모자란 것 같아 계속 충전을 하고... 그렇게 4년을 인천시스템으로 사용했지만 포기하고 싶어졌습니다. 열심히 누르고 열심히 매달을 회계시스템을 사용했지만 매번 지도 점검에서는 -틀렸어요. -틀렸어요 “이번달까지만 해보자”하고 이어온 것이 4년이 되었다.

인천회계시스템 회계 씨시스템이 편리하다고 하지만 사용을 해보니 매해마다 생명이 10년씩 깎기는 기분은 무엇 때문인지.... 국방부 빼고는 어린이집을 괴롭히지 않는 곳이 없다는 3D업종중 최고인 어린이집을 접고 싶은 현실에서 회계까지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교육하는 중에 강사님께서 “여기를 누르세요..저기를 누르세요” 따라만 하면 잘 할 수있을 것 같았는데 혼자하면 깊은 밤 컴퓨터 모니터를 보아도 정신만 없는 것인지...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여 그런 것 일 수는 있지만 프로그램을 더 단순하게 할 수는 없을까하고 기대해 본다.

그렇게 힘들어하는 친구들 말이 “회계업체에 맡기면 편해요. 목숨 걸고 하지 마세요”

고민 고민하다가 회계 업체로 회계를 돌리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ㅠㅠ

입력하고 프린트해서 장부를 엮고 사진을 찍어서 저장을 하는 것이 시간을 많이 걸리게 하였고 프린트를 할때도 짝수가 아니면 영수증이 다른 결의서에 붙어 프린터용지를 많이 버려야 했기 때문에 프린트를 할때면 너무 예민해져서 온몸에 스트레스가 느껴질 정도 였습니다. 아이들 부모님 교사 등 모두가 정신없이 돌아가는 12시간을 보내는 어린이집이어서 정신차리고 편안하게 회계를 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결국은 회계업체로 바뀌어야했습니다. 나의 포기가 다른 이들이 따라하기가 되면 안되는데.... 회계 업체로 바꾸니 편한 점이 있고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편한점은 한달 수입지출을 정리해 장부로 만들어 보내주니 머리를 조금만 쓰니 편안하였고, 불편한 점은 시스템마다 다른 점이 있어 또다시 익혀야 하는 것이 불편하며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곧 문서의 전산화가 완벽하게 된다면 인천회계시스템 사용이 훨씬 편리 할 것 같습니다.

2024년도에는 다시 인천회계시스템으로 돌아가려합니다.

불편해도 익숙한 것이 좋고 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국공립검단양우내안애어린이집 고영은

2022년 국공립 신입 원장 1년차! 생각 할 것도 많고 할일도 많았다. 무엇보다 해야 할지 머릿속만 복잡하고 손에 잡히는 일이 없었다. 닥치는 일부터 해결하고 문서 만들기를 시작하였다. 문서 겉 표지를 만들고 문서 양식을 찾고 문서 내용을 하나하나 채워 넣기를 두 달 정도 시간이 흘렀다. 하다가 모르는 일이 생기면 선배 원장님을 찾기도 했다.

어느날 선배 원장님이 ‘인천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 ‘사용은 시작 하였냐’ 고 물어 보셨다. 말로만 듣던 시스템이나 어린이집 회계를 업체에 맡기고 있던 나로선 아차 싶었다. 안되겠다 싶어 ‘어린이집회계컨설팅’을 신청하였다. 얼마 뒤 컨설턴트에게서 전화가 걸려와 일정 조율을 하고 기다리게 되었다. 기다리는 동안 왠지 무겁고 불편한 마음은 무엇 때문일까? 아마도 어린이집관리시스템에 관하여 무지했던 나로선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에 하루 배운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알 수 있을까? 란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컨설턴트가 오기 전에 어린이집 등록과 통장 연결을 해 놓아야 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두가지도 등록하는데 시스템 관리센터에 몇 번을 전화하고서야 등록을 하였다. ‘어렵다’라는 생각은 더 커지게 되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고 계속해서 시스템화 되어가는 변화속에서 나는 항상 시작이 두려웠던 것 같다. 하지만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매번 넘어야 하는 산이기도 하고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위해 열심히 쫓아가야 한다. 이것은 언제나 숙제이다. 드디어 컨설턴트가 오시는 그날이 왔다. ‘딩동 땡땡’ 문을 열고 컨설턴트를 맞이하였다. 본인을 소개하시는데 우리와 같은 원장님이시라고 하셨다. 그동안 난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을 잘 모르면 내 얘기를 이해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하였던 터라 우선 안심이 되었다. 우선 자리에 나란히 앉아 시스템을 열고 우리 어린이집 난감한 회계상태를 이야기 하기 시작했고 컨설턴트는 한번에 알아들으시고는 처음부터 정리하는 순서와 방법을 이야기 해 주셨고 하나하나 짚어가며 이럴 땐 이런 기능도 있으니 참고해 보라며 그 앞에서 실습도 해 보이고 나 또한 한번 해 보라며 실습 할 기회를 주셨다. 말로만 들을 때 보다 훨씬 이해가 빨랐다. 그 후 계속되는 설명은 시간이 갈수록 습득이 빨라졌다.

우선 약간의 자신감이 붙었고 컨설턴트가 알려 주는대로 하나 하나 입력하다보니 한달치 회계 입력을 마쳤다. 그 순간 안도의 마음이 느껴졌다. 배우는 동안 관,항,목에 대한 이해도 확실해 졌다. 하지만 컨설턴트가 계서서 할 수 있었지만 나 혼자도 할 수 있을지 미지수였다. 시간은 훌쩍 지나 컨설턴트가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컨설턴트 원장님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달라고 하시고 돌아가셨다. 많이 긴장을 했던 탓인지 온 몸에 힘이 쭉 빠졌다. 다음날 이제 배운대로 다시 해보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시스템을 열고 하나 하나 적용 해보기 시작 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昨天的 일인데 생각이 나질 않았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도 모르겠었다. 매뉴얼이 어디 없을까? 인천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하였더니 매뉴얼을 보내 준다고 하셨다. 너무 다행이다 싶었다. 그동안 시스템 관리 센터에 문의도 해보고 육아중에서 실시하는 중 교육도 들으며 기초를 닦았고 기초적인 부분은 이제 혼자서도 어느정도 할 수 있게 되었다. 회계 업무가 어린이집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앞으로는 모든 인천시 어린이집은 ‘인천광역시 어린이집관리시스템’을 이용 하여야 한다고 들었다. 나처럼 ‘막연히 어려울 것이다.’ ‘귀찮을 것이다.’ ‘난 한번도 내가 회계를 해본적이 없어’ ‘내 회계를 누가 들여다 보고 틀렸다고 하면 어떻하지’ 했던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실 것 같다. 무슨일이든 시작이 어렵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 이번엔 한번 더 실감을 하였다. 앞으로 더욱더 편리하고 유익한 시스템 사용을 위해 공부도 하고 내가 아는 것을 초보 원장님들께 전달 할 수 있을 정도로 습득하도록 할 것이다. ‘인천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으로 회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고 회계 업무 시간도 줄게되어 나름 만족하며 사용 하고 있다. 나같은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 하기 어려우신 분들 걱정 하지 맙시다. 나도 했으니까요!

[필요경비 정산] 마침내, 회계관리는 어렵다는 생각과 헤어질 결심(복잡하고 어려운 회계관리, 누군가는 단순화해야 한다)

검단아이다움어린이집 정연희

어느덧 어린이집 원장 20년차. 주변에서 직업을 들으면 흔히들 아이들의 보육이 이 일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이 모르는 이 일의 핵심은 회계관리에 있다.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모든 업무는 결국 예산과 직결되어 있기에 회계관리는 업무의 꽃일 수 밖에 없다. 그래서인지 운영과 관리를 해야 하는 원장이라는 직책을 달고 부터는 회계관리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과 시스템의 부재가 더 크게 느껴졌다. 아무리 획기적인 SNS여도 서버가 불안정하면 이용자간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듯 어린이집에서의 안정적인 보육을 위해선 회계와 관련해 신뢰할 수 있는, 획일화되고 단단한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인천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어린이집들이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황이다 보니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회계관리의 중요성을 알기에 하루종일 회계업무에서 눈을 뗄 수 없는 현실이 버겁게 느껴졌고,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는 압박과 더불어 요즘같은 업무의 간소화시대에 좀처럼 업무량이 줄어들지 않았기에 업무능력이 떨어지는게 아닌지 걱정이 앞섰다. 고민 끝에 선택은 민간업체였다. 그러다보니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은 민간업체에서 보내주는 회계장부에 영수증만 풀칠하여 붙이는 게 전부였고, 그런 편리함이 주는 위험함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어느새 예산관리와 관련해서 아무런 고민이 들지 않을 만큼 회계는 나와 무관한 일이 되어 있었고, 어린이집 예산서는 어린이집 실정과 동떨어진것이 대부분이어서 수입지출이 엉망이 되는 날들이 허다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어린이집의 모든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동시에 모든 것을 직접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스스로 의문이 생기고 결국 어렵더라도 다시 혼자서 예산을 짜고 필요성에 맞춰 계획, 집행해봐야겠다는 다짐이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나는 이를 무척 반길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물론 익숙하지 않아 여러 위기가 있었다. 이 많은 기능을 나 혼자 관리해야 한다는 두려움과 동시에 다양한 기능이 처음엔 오히려 번잡스럽게 느껴졌고, 모든 데이터를 직접 입력해야 한다는 수고스러움까지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다. 저장을 누르지 않거나 입력을 누락해 다시 입력하는 등 시행착오를 거치며 차츰 인천시 어린이집관리시스템의 사용에 익숙해졌고, 결국 이 시스템이 업무의 간소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시스템은 회계관리, 아동관리, 교직원관리, 물품관리까지 어린이집운영에 필수적인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항목들을 이용하여 편리하다고 느꼈던 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번째, 흐리기만 했던 회계관리를 투명하게

매월 회계보고를 하기 위해 거쳐야하는 필수 단계인 전표검증은 실수를 최소화하고 걱정을 없애준다, 이는 단계별로 이루어져 있어 전표검증을 진행하며 지속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스템이 주는 명확한 분석과 통계로 보다 더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관리를 할 수 있다.

두번째, 복잡했던 교직원관리를 간편하게

교직원관리가 전과 다르게 편리해졌다. 보육통합연계를 통해 필요한 기초정보를 업로드하고 시스템을 사용하여 급여관리를 하다보니 행정업무시간이 반으로 줄어들었다. 또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등의 계산이 용이하고 체계적이어서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세번째, 여러번 확인해야 했던 물품관리를 한번에

교재교구등의 매입내역과 재고관리를 물품별 이미지등록을 통해 단가 처분 수량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물품의 상세정보 확인이 용이하다. 이전에는 직접 수기로 적어 관리해야 했지만 스마트하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물품관리대장과 물품관리의 라벨을 쉽게 출력할 수 있어 업무의 간소화가 확실하다.

네번째, 아동보육료, 기타필요경비 특별활동비에 대한 정산을 쉽고 정확하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기능은 아동관리인데, 보육통합시스템 업로드로 아동관리 등록을 하면 아동의 정보가 자동연계 된다. 이용아동 연명부에 재원증명서 보육료관리까지 모든 게 회계담당자를 설레이게 하는 효자 탭이다. 그중에서도 최근 도입된 아동 보육료항목은 어린이집 규모와 상관없이 원아수를 숫자로 환산하는 방식이다. 어린이집마다 정해진 청구항목인 기타필요경비와 특별활동비를 세목으로 나누어 청구하고 자동연계로 한번에 수납적용하는 자동연계전표등록은 편리함과 신속성이 보장되는 최고의 시스템이다. 또한 어린이집 아동정원이 많은 적던 클릭 버튼으로 한꺼번에 정산등록을 하면 개인별 사용항목이 한눈에 보이는 믿음직한 시스템이다. 이보다 더 정확하고 간편한 시스템이 또 있을까?

인천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의 사용으로 회계의 투명성과 정확성 그리고 신속성을 갖추게 되었지만, 돌이켜보면 인천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 시스템을 공부하고 직접 경험해보면서 결국 회계컨설턴트가 될 수 있었고, 이 과정을 통해 직업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운영관리의 핵심인 예산을 직접 계획하고 집행하고 처리하는 그 모든 과정을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확신과 이를 통제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이 원장으로서의 전문성을 더 키워나가고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줬다. 나아가 이만큼 오래 이 일을 하고도 더 성장하고 전문성을 키워나갈 부분이 있다는 것도 리프레시가 되는 계기가 되어주기도 했다.

회계 컨설턴트가 된 후 시스템의 매력과 편리함이 주는 정보를 나만이 아닌 누구에게라도 자꾸 가르쳐주고 자랑하고 싶어지게 만들었다. 나는 자긍심을 가지고 인천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의 전자처처럼 시스템사용을 권장하고 인천시육아지원센터의 회계교육을 독려했다. 여러 번의 컨설팅과 헬프데스크의 도움으로 자신감을 갖게했다.

출근하자마자 원장실 컴퓨터엔 인천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이 켜져 있다. “따르릉 따르릉~~” 아침부터 시끌하게 울려대는 휴대폰으로 다급한 목소리의 동료 원장님 질문이 쏟아진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묻고 또 물으신다. 그럴 때마다 혼자 헤매어가며 시스템을 공부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대답해드린다.

“원장님! 회계관리탭에서 계정과목을 잘못 기입한 걸 이제야 발견했는데 어떡하죠?”

“네~원장님 괜찮아요. 틀린계정과목은 수입처리하고 수정하고자하시는 계정과목으로 다시 지출 잡으시면서 정정전표를 만드시면 됩니다.” “우리 어린이집은 원아수가 엄청 많은데 기타필요경비랑 특별활동비 청구수납을 세목별로 일일이 분할하라고 하시니 어떡해요?”

“네~ 기타필요경비나 특별활동비 같이 부모님께 청구한 항목은 아동 보육료 탭에서 전표등록을 하시면 일일이 분할하지 않고 자동연계로 간편하게 등록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아 수가 많은 적던 해당항목 체크하고 클릭하면 너무 편리합니다. 그리고 납입 통지서나 영수증도 인쇄할 수 있어요~”

나는 또박또박 설명하고 또 설명한다. 동료 원장님은 그제서야 안도의 숨소리를 내뿜는다.

이 시스템을 처음 접했을 땐 적응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시스템을 처음 접할 때 응당 느낄 막막함과 답답함을 알지만, 힘겹게 느껴졌던 회계업무 중에서도 기타필요경비와 특별활동비에 대한 정산방법을 해결할 최고의 시스템으로 도입되면서 정제화된 시스템으로 더 효율적이고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결국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대해 더 깊이있는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에 시스템을 사용하며 축적한 실질적 노하우를 전해드리고 오늘도 끊임없이 성장의 길을 함께 걷는다.

무서운 회계는 이제 그만!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으로 웃어요~!

구립제일아이돌어린이집 박정연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 받고 전 원장님의 업무 인수 인계를 받으면서도 제일 걱정스러웠던 부분인 회계에 대해 물어 보면 “괜찮아요 회계관리 시스템이 있어서 교육을 받으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라는 전 원장님의 말씀에 ‘회계관리 시스템?’ 하며 고개를 갸웃거리고 3월부터 어린이집을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생활을 하며 어깨 넘어로보아 온 원장님은 월초부터 월말까지, 분기별로, 연말에서 연초 원장님께서 컴퓨터 앞에서 떠나시질 못하고 정산하시고 영수증을 모으시고 복사하시고 붙이는 걸 보며 회계는 정말 힘들고 무서운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회계를 해야 한다니 걱정만 가득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백만원의 자릿점은 두 개고 두 개 이상의 자릿점 이후의 숫자부터는 금액이 얼마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금액 공포증이 있는 나에게 회계는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 왔습니다.

원장이 받아야 할 교육은? 회계는 어떻게 하지? 회계보고는? 어린이집 통장 사용은? 많은 물음표와 처리해야 할 일로 정신이 없는 와중에 인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신청란에 뜬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 입문 교육’을 보고 바로 신청! 계양구에서 남동구를 오가며 두 번의 대면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받고 회계시스템 사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인 저에게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은 회계에 대한 걱정을 조금씩 줄일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입문 교육인 만큼 로그인 방법부터 배우고 계좌 전표가 무엇인지 전표 관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시스템 사용법을 익히며 계정 복사 등 응용 할 수 있는 팁을 알게 되고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매뉴얼 책자를 보고 사용법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심화 과정과 활용과정을 통해 아동, 교직원 관리, 물품 관리 등의 유용한 사용법을 배우고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과 상담원과의 수시 전화를 통해 어린이집에서 회계 시스템을 이용해 계정과목을 나누고 저장하고 3월 교사의 급여와 사회보험 등의 일을 처리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 초보는 초보였네요! 어린이집 퇴직금 통장을 등록하려고 시도 하다가 사업자 등록 번호를 다른 번호로 저장되어 계좌 전표가 생성되지 않고 전에 저장해 놓은 계좌 전표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헬프에 연락을 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자문을 구하자 친절하신 상담자분과 함께 통장 등록을 다시 시도 하였지만 잘못된 사업자 등록 번호로 저장되어 계좌 전표를 불러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담자 분께서 방법을 찾아 보고 연락을 주시겠다고 하셔서 기다림이 시작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전화만 보고 있는 상황에 헬프에 다시 연락하여 방법이 있는지 물어 보고 아직 찾는 중이라는 말에 실망하기를 두 번 7일만에 방법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고 상담자 분께 감사 인사를 여러 번 한 기억이 있네요. 회계시스템을 리셋하고 다시 통장등록부터 상담자 분의 전화를 받으며 하나하나 처리해서 회계관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만나지만 늘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고 자세하게 설명에 주시는 상담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늘 수고 하신다는 말을 전합니다.

회계시스템 사용 초보의 실수를 뒤로 하고 교육만으로 알 수 없었던 시스템 이용법은 두 번의 회계 컨설팅을 통해 더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컨설팅을 나오신 원장님께서 처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 “사용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렵고 힘드신가요?”육아지원센터를 오가며 교육을 받았지만, 저는 당당하게 “다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컨설팅 원장님께서 “힘든거 하나도 없습니다. 요령을 배우면 금방이에요”하며 로그인 방법부터 알려 주시고 제가 문의 했던 컨설팅 물론 문의하지 않은 컨설팅까지 자세하게 알려 주셨습니다. 컨설팅원장님의 쌓아 오신 노하우를 전수해 주시고 회계보고하는 법, 적요란에 적어야 할 자세한 내용과 보조금 체크 방법 등 교육은 받았지만 무심코 넘겼던 사항들과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컨설팅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컨설팅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궁금한게 있으면 물어보라고 하시고 오늘 이해가 어려웠다면 컨설팅을 한 번 더 신청해도 되니 컨설팅 신청을 또 하라고 알려 주셨습니다. 교육을 받을 때는 이해했다가 교육 후 접목 시키려고 할 때 이해가 가지 않았던 사항들에 대한 질문도 해소 해 주셨습니다.

아직은 회계에 대한 것을 계속 배워야 하는 상황이지만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회계 관리 시스템을 통해 무서웠던 회계가 조금씩 이해되고 이제는 회계 시스템 설정을 통해서 계정과목을 추가하기도 하고 삭제하기도 하며 회계시스템을 많이 접목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회계시스템 달인이 되는 그날까지 회계시스템에 대해 더 공부하고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不避之樂(불피지락)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화평어린이집 안정현

저는 현재 국공립 원장이면서 인천육아종합지원센터 회계컨설턴트로 부지런히 저의 삶을 한발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공립 원장이 되기 위해서 마음먹은 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예산서 작성을 위해서 과거에는 엑셀과 계산기를 번갈아 가며 작성하였습니다.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풀기 어려운 딜레마를 안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 규모에 따라 매년 예산서를 수정 보완했던 지난날을 극복했었고 소중한 저의 삶은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는 원장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실천적 수행의 다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역사회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하며, 저가 가진 전문성을 근무하고 있는 현재 보육교직원들에게 나눔을 가지고 또 실습교사들에게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더불어 교육현장에서 배운 보육과정을 자신 있게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재능 기부하겠다는 교육적 전문 재능 기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계를 어렵게 배우고 스스로 터득하는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는 차근차근 가르쳐주고 안내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나눔 재능 기부의 또 하나의 다짐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계 컨설턴트 도전도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9월 인천 회계 관리시스템을 처음 사용했던 저는 기존의 회계프로그램의 사용에 익숙한 나머지 인천 회계 관리시스템의 편리한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각 탭의 기능에서 각 탭의 설정되는 자동 연계(일괄분할, 전표검증, 월 통합보고, 예산서 통합보고 등)와 회계, 아동, 교직원, 물품관리의 다양한 기능에서 흥미로움과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려운 수학문제를 풀었는데 정답이 나온 것처럼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흥미롭고 즐거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산서를 수정 보완했던 지난날을 극복했던 연습과정이 있었고 각 탭의 기능별로 새로운 기능에 대한 도전과 경험이 있었기에 마음이란 놈을 달래고 감싸 안으며 한 발, 한 걸음 나아가며 겨우 시스템의 기능에 익숙해졌습니다.

한편 유보통합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던 저는 조직 관리와 리더십에 대한 연수과정에서 ‘Be yourself’ 너답게라는 어린이집 조직문화의 중요성과 원장의 리더십에 대한 연수과정이 오랫동안 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중점을 두고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어린이집 회계컨설팅을 진행하면서부터 너답게 운영이라는 것은 결코 막연한 너답게 이기보다 공공보육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과정에서 소중한 자신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보통합,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언택트 시대를 의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적절한 인천 회계 관리시스템의 기능 변화는 마치 유보통합에서 디지털보육환경을 피할 수 없으면 영 유아 보육환경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과학기술을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쌓는 피할 수 없으면 즐길 것을 강조하는 것 같았습니다.

인천 회계 관리시스템의 기능 변화는 불편과 불안이 공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회계 관리시스템의 필요성과 목적에 부응하는 긍정의 변화를 기대하며 인천 회계 관리시스템의 체제는 교육, 헬프데스크, 컨설팅으로 조성되어 다양한 기호를 지원하고 소통하며 공감하고 있습니다. 마치 교육현장에서 배움의 교육공동체가 놀이과정을 기록 평가하는 작업과정이 있듯이, 인천 회계 관리시스템에는 배움 선택과 안내자 역할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옴니버스 경험들을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인천 회계 관리 시스템의 회계, 아동, 교직원, 물품 관리를 잘 하고 있었지만, 시행되는 인천정책정산(아동정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영상매뉴얼을 보면서 접목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고 그동안 혼자 전전공공 고민하

다가 자기 주도적 해결에 실패하고 컨설팅을 신청하여 마침내 자율성을 되찾았습니다. 둘째, 인천정책정산(아동정산)을 더는 미룰 수 없어서 인천 회계 관리시스템 기본부터 인천정책정산(아동정산)까지 업체 회계 대행이 아닌 원장이 직접 사용해보겠다는 도전과 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들의 도전은 노심초사(勞心焦思) 마음으로 애쓰며 속을 태웠지만, 극복하고 있는 원장님들에게 헛되지 않았다고 다 같이 응원합니다. 셋째, 인천정책정산(아동정산)시행 컨설팅 속에는 인천 회계 관리시스템의 회계까지 연동되는 컨설팅으로 일석이조(一石二鳥)의 배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들을 독립적으로 연결한 경험들은 인천 회계 관리시스템에서 각자 처해 있는 어려움들이 해소되고 점차 기능을 정착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 경험이 공감되는 이야기들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자는 원장님들과 경험한 인천회계컨설팅의 이야기였으며 후자는 개인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얻은 소중한 2가지의 경험이야기입니다.

인천 회계 관리시스템의 필요경비 정산은 흥미와 실험, 그리고 협동체의 실천 :

저 원장은 상반기 필요경비 정산서를 6월부터 시작하였고 늦게 시작한 탓에 마음은 급한 나머지 생소한 각 탭의 기능과 동영상 매뉴얼의 설명과 자료 설명을 보는 것도 흥미를 잃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천 정책정산의 각 탭의 진행과정에서 ‘왜? 무엇 때문에, 안될까? 왜 그런 것일까?....’ 라는 문제해결과정에서 진지하게 집중하지 못하고 하루일과가 복잡다난(複雜多端)하여 여기저기 건드려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마음으로 인천정책정산(아동정산) 기능을 재현과 반복으로 도전하였고 ‘진짜 놀이’를 발견한 것처럼 7월, 8월부터 필요경비 정산서 기능을 사용하는 데 익숙해졌고 놀이가 즐거운 것처럼 흥미와 실험으로 몰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하반기 9월 필요경비 정산서 교육은 인천정책정산서의 아동등록, 청구 작업, 청구 작업 입금확인, 청구/수납내역 전표등록의 일목요연하게 펼쳐지는 기존의 시행착오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저가 외치는 소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아, 다음에는 이렇게 설정해야겠네! 연령별 분리보다는 통합적으로 설정하면 영유아 인가 인원에 따라 청구 작업과 수납작업이 수월하게 접목될 수 있겠구나! 아동등록/수정에서 꼭! 설정해야 하는 보육기준 변경일, 수납방법, 자동등록키워드 기능을 놓치면 안 되는 경우의 수/청구 작업은 새로운 월 시작하기 전에 미리 선 작업을 해두고 다음 입금되는 계좌연동을 하면 세입 전표 세목을 분리하여 전표관리가 되는 편리함을 인지/청구 작업·수납작업 전표등록은 분주한 회계 실천적 수행에서 한 부분을 해결해주었고, 한편 실수를 한 전표등록은 수정하는 도전을 하게 해주었고 연계전표삭제 탭에서 해결하여 청구 작업·수납작업을 재설정하여 증빙 재 정렬로 최종 확인하여 완성/개인별 정산은 과정중심과 경험 중심, 배움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 현장학습을 가면 입장료와 차량비는 연령별로 분류하거나 매출전표를 각각으로 확인해야하지만 이런 수고는 이후 정산에서 더 정확한 개인별 정산 시행 가능, 또는 각 연령별 현장학습과 차량비를 고려해야겠네!/특별활동비와 기타특성화비는 숫자를 대표하는 문자를 써서 수학 법칙을 간명하게 나타내는 대수학처럼 재미와 딱 맞아짐으로 제일먼저 개인 정산 할 때 사용하는 저가 좋아하는 기능이었구나!’ 이러한 과정들은 각 탭의 위치와 순서, 다양한 기호들과 저의 손끝이 이해가 되는 기능들의 협동체로써 가장 중요한 마인드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저의 도전과 인내하는 태도였습니다.

인천 회계 관리시스템의 필요경비 정산은 함께 만들어가는 이해 :

현대사회는 컴퓨터와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또 비교적 쉽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생겨나면서 꼭 개발자가 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기계발을 위한 본인의 업무 역량 향상을 위해서 사고의 논리력과 문제해결력을 길러야 합니다. 사람의 목표에 따라 문제해결능력과 논리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를 정산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움직이는 과정에 집중하며 아주 친절하다 못해 하나하나 세세한 사항을 다 알려주고 실천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처럼 더 단순하고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명령을 해야 합니다. 그건 바로 가장 편안하게 우리가 인천 회계 관리 시스템의 필요경비 정산을 왜 사용하는 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까지 내가 일일이 다 입력해야 돼?’ 하지만 필요경비 정산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효율성과 논리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된 23년 상반기 필요경비 정산은 그야말로 현장

에는 아비규환(阿鼻叫喚)이었습니다. 동영상매뉴얼부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생각의 사고는 잘 펼쳐지지 않았습니
다. 자연스럽게 실천적 수행의 어려움이 생기면서 포기하는 법도 빨라졌습니다. 기존의 필요경비 정산은 상. 하반기
정산 시 엑셀에 수기로 입력하며 계산하는 개인별 고려도 있었고 세목을 통합할 수 있는 유동성으로 익숙한 정산 진
행과정에서 집중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목 분할에 대한 필요경비 정산은 쉽지 않은 힘듦의 긴 여정이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2023년 상반기를 거치면서 부단히 현장에서 원장님들의 도전과 경험이 있었기에 저 또한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컨설턴트의 자리를 지키면서 필요경비 정산에 대한 지원과 안내자로 기억이 스쳐지나갑니
다. 마침내 디지털문서화 확대시행은 결국 부정보다는 긍정의 효과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현장은 원장님들과 함께
걸어가는 길에서 자신감과 동기를 얻었습니다. 적절한 놀이지원을 받은 영유아들이 창의성, 상호작용, 비판적 사고가
증진되어 배움의 가치를 가지듯이 원장님들의 개인적인 노력과 도전은 인천 회계 관리시스템의사용과 헬프 데스크,
컨설팅의 협력적 지원이 만들어낸 새로운 가치와 생성이었습니다.

인천 회계 관리시스템의 필요경비 정산의 시작은 소리 없는 내부적 아우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공성과 투
명성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함께 하는 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관계를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이라고 자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답게 운영 할 수 있는 역량적 가치를 함양을 위해 부정보다는
긍정의 효과에 서 원 운영의 주체자 원장님은 행정가로서의 주도적 해결자가 되길 바랍니다. 2024학년도 시작되는 3
월 지도점검 시 온라인 점검 병행을 위한 우리의 도약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와 함께 길을 가고 있는 원장님들과
우리를 도와주는 시스템의 관리체제는 원장님들의 인천 회계 관리시스템 필요경비 정산의 不避之樂(불피지락).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를 응원하고 함께 열어갈 것입니다.



[필요경비 정산] 산 하나만 넘으면 만나게 돼요, 스마트한 내 친구 ‘정책정산’

국공립청라한신더휴어린이집 양민경

세상에, 정책정산이라니! 정산만으로도 어려운데 그 앞에 ‘정책’까지 붙으니, 눈앞에 큰 산 하나가 우뚝 솟아 있는 것 같아 부담스럽고 거부감마저 들었다. 처음에는 단어가 주는 막연한 부담감에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다 무려 AI 시대에 언제까지 ‘하던 대로’를 고수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래도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차근차근해보기로 했다.

함께할수록 좋은 친구 ‘정책정산’

매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통과리례처럼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고 전표관리에 들어간다. “미등록 계좌내역이 현재 7건 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를 보면 ‘7’을 빨리 ‘0’으로 만들고 싶어 마음이 급해진다. 의자에 앉자마자 등록부터 마친다. “미등록 계좌내역이 현재 0건 있습니다”라는 문구는 언제 봐도 뿌듯하다. “딸깍, 딸깍” 더블클릭 두세 번이면 관 항목이 나누어지고, 적요를 기록하고, 클립 모양을 눌러 카드전표를 연계하면 1차 등록이 끝난다. 그리고 거래명세표와 견적서 등 필요한 증빙서류들을 찍어둔 사진이나 스캔파일을 올리면 2차 등록도 마치게 된다. 이렇게 매일 매일 누적되는 전표들을 월말 회계보고 때 보고 있노라면 뿌듯한 마음과 시원한 마음이 동시에 밀려온다. ‘우와 이런 걸 어떻게 옛날에는 손으로 일일이 적고, 계산기를 두드려서 맞춰 넣었을까?’ 하는 의문과 안도감이 드는 순간이다.

번거롭지만 익숙하고, 낯설지만 편한 것

나는 이제 원장 경력 만 3년 3개월이 지나 이제 막 초보티를 벗은 원장이다. 무슨 일이든 만 3년이면 어느 정도 익숙해질 만도 한데 회계서류 정리와 증빙은 경력이 쌓여도 할 때마다 늘 새롭다. 그래도 어느 정도 시스템이 조금 익숙해지고 있을 무렵, 필요경비 정산 기능을 접하면서 다시 초보가 됐다.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기계를 좋아하고 관심이 많기에 처음 도입된 이 프로그램이 생소하기는 해도 재미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작년까지는 엑셀에서 관리하기 쉽게 표를 만들고, 계산식을 넣어서 연동해 출석한 원아와 그렇지 않은 원아를 분리해 개별로 정산표를 만들고, 합계표에 넣어서 서식에 대입해 정산했다. 수기로 하다 보니, 여러 번의 검증과 정정이 필요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초에 정책정산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몇 번의 기록으로 시스템 내에서 정산을 하고, 자동으로 연계되어 계산이 된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을 것 같았다.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라는데 아이들 개개인을 다 클릭해서 넣는다면 엑셀로 하던 기존 방식이 더 익숙하고 편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다. 하지만 곧 시스템에 익숙해졌고, 하면 할수록 처음의 부담감보다는 장점이 보이기 시작했다.

걸음마 하듯 천 리 길을 걷듯 하나하나

필요경비 정산 시스템이 도입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시스템 홈페이지에 있는 매뉴얼 영상을 켜놓고 걸음마를 처음 배우는 아이가 돼 보기로 했다. 영상을 반복해서 보며 하나하나 따라 해보기로 했다. 영상을 반복 또 반복 재생하며 따라가다 보니, 무언가 되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런데 용어나 내용 중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 ‘정책’이라는 단어가 정산 앞에 붙으니 조금 더 법적 책임감이 들고, 의무감이 들어 조심스럽고 어려운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동영상을 반복해서 보고, 직접 대면으로 교육을 신청해 들으면서 막연히 정책정

산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생각은, 꼭 엉켜있는 실타래를 천천히 풀어 다시 하나의 정돈된 실뭉치를 만드는 것처럼 속도는 느리지만,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다.

노력하는 만큼 비례하는 편리함

이 시스템을 연구한 연구자, 센터 작업자, 선배 원장님들과 컨설팅 위원님 등 여러 선생님에 비하면 내 이해 수준은 아직 어리숙하다. 그렇지만,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구별로 이루어진 비대면 교육 1회, 대면교육 1회를 받고, 영상을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고, 센터 헬프데스크 선생님들을 통해 의문점을 해결하고 도움을 받으면서 점점 필요경비 정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아직은 또렷하게, 명쾌하게, 정확하게, 실수 없이 정산을 마무리하기는 어렵지만, 정정을 하면서 실수를 보완할 기회가 있다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된다.

이젠 '정책정산' 없이 못살아

처음에는 어린이집에서 다른 신경 쓸 일도 많은데 언제 이걸 또 일일이 등록하여 청구, 수납작업을 하고 증빙서류를 모두 다 올리나, 너무 업무가 과중한 것 아닌가 하는 불만도 있었다. 업로드한 회계서류를 모두 출력하니 한달치의 회계서류가 두꺼운 백과사전 한 권 반 분량이 되었다. 어느 원장님은 백과사전 두 권 분량이 나왔다는 분도 계셨다. 나 또한 나무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9월 회계서류를 정리했다. 상반기에는 회계 중간에 교육을 들어, 정산을 적용하지 못했다. 하반기에는 기필코 이 시스템 프로그램을 이용해 정산해 볼 참이다. 이제 하반기 두 달이 지났다. 어린이집에서 필요경비와 특별활동비를 아동 보육료관리를 통해 일괄 청구 등록하고, 연계전표로 수납등록을 했다. 이번 달 필요경비와 특별활동비 수납내역이 한눈에 보여서 미납자나 보조금 지원자 등이 바로 파악됐다. 이렇게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혹시 이번 달에 과지출된 항목이 있는지, 미수납된 아동이 있는지 한눈에 확인되어 편리하다.

산 하나만 넘으면 만나는 멋진 친구 '정책정산'

다만, 아직 이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아서 하나씩 클릭하며 천천히 더듬어 가면서 이 프로그램을 쓰고 있다. 아무래도 아직은 처음이어서 익숙하지 못하지만 조금씩 정책정산과 가까워지고 있는 느낌이다. 마치 3월에 신입적응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어린이집을 찾는 아이들과 만남이 설레고,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을 때 말할 수 없이 기쁘고 뿌듯한 마음처럼 '정책정산'에도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 익숙한 것은 더더도, 때론 한눈에 잘 안 보여도, 어찌면 답답하게 굴어도 봐주고 무뎌져 그냥 넘어가 주기도 한다. 새로운 것은 낯설다.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려워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해보지 않고 가보지 않으면 모른다. 저 너머 새로운 세상에 멋지고 스마트한 친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시스템이 어린이집 회계 해결사

사랑어린이집 이정은

2023년 3월에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처음으로 접해보는 인천어린이집 관리 시스템!

입문과정 교육을 받고 배부해 주신 책자를 교과서 삼아 열심히 배우고 또 수정하며 어린이집 회계를 시작하였다. 처음 해 보는 업무에 많은 긴장감을 가지고 시작하였는데 너무 간단하게 회계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잘 되어 있었다. 처음 한 달은 심지어 재미있었다.

몇 번을 확인하고 도 확인한 후 보육통합시스템에 보고 한 후 실수를 발견하며 자만했던 모습에 반성을 하게 되었다. 이 때부터 인천어린이집관리시스템에 직접 전화를 걸어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질문하였고 또 직원분들이 아주 친절하게 답변 주셨다.(너무 기본적인것도 한 숨 돌리시고 천천히 설명해 주심)

때론 원격으로 완벽하게 설명과 함께 처리 해 주셨다. 자만했던 부분에서 하나씩 기능을 알아가며 또 상담해 주시며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젠 상담해 주시는 직원분 목소리가 반가우리 만큼 익숙하고 대면하지 못했지만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이 같은 친근함이 느껴질 정도이다. 아직 많은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언제든, 어떤 문제든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해 주시는 부분에 감사드린다.

이제 조금 익숙해질 무렵 필요경비 정산이란 큰 산이 앞에 나타났다. 주변 원장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모두 처음이시라는 말씀에 낙담하였다. 좀 실시간 교육을 듣고 나서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왜냐면 전혀 이해되지 않고 더 어렵게 느껴지는 상황에 빠졌다.

그러나 포기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가이드 영상을 보면서 아동등록부터 한 계단씩 올라가보았다. 영상이 너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 보면서 차근차근 해 나갈 때 정확하게 떨어지는 쾌감이 또 첫 회계를 배울 때처럼 재밌기 까지 했다. 여러 차례 번거롭게 문의 하고 질문할 때에 항상 다정한 목소리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친절하게 상담해 주셔서 새내기 원장 회계업무에서 조금씩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저는 수상보다 시스템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참여합니다.

[필요경비 정산] “아하 이거였네~~”

국공립아라파라곤센터어린이집 허정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이 처음 도입되던 2020년부터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왔다. 기존에 000회계 프로그램을 사용에 익숙해 있어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의 전환에 머뭇거렸지만, 인천시에서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재무회계의 수준 향상과 편리성을 위해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시스템이니만큼 어린이집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20년부터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 기존에 000회계 프로그램과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전환 시 관리시스템의 도움으로 큰 어려움 없이 사용하다 어린이집의 원아 감소로 어린이집을 정리하게 되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2022년에 다시 어린이집을 운영 할 기회가 와서 개원하면서 바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데 그동안의 공백으로 조금 낯설기도 했지만, 헬프데스크의 도움을 받아 다시 관리시스템을 사용하였다. 그동안 관리시스템도 많이 업그레이드되어서 좀 더 사용이 편리하도록 다양한 기능들이 생기고 있었다. 하지만 2022년 변화된 기능들을 사용하기에는 개원으로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에서 회계프로그램의 기본만 사용하고 있었다.

평가제를 향해 GO~~GO~~~

무엇보다도 2023년부터 필요경비 개인별 정산을 할 수 있다는 소식에 너무 기뻐다.

그동안 필요경비 개인별 정산을 하려면 하나하나 수기로 분리하고 계산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이런 수고와 어려움이 해결되면 어린이집 회계 업무를 하는데 많은 시간이 절약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됐다.

2022년도에는 다양한 기능의 프로그램을 만져보지 못했지만, 2023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필요경비 개인별 정산 기능을 사용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시스템에서 올려주신 매뉴얼을 보고 3월부터 아동 개인별 청구항목, 청구작업, 수납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청구와 수납의 금액을 기록하고 정산을 맞춰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현재는 의무 사용 기간이 아니니 7월에 어린이집 평가제가 있어 평가제에 집중하고, 평가제를 마치고 하반기부터 필요경비 정산 기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어린이집 교직원과 함께 7월 평가제를 향해 열심히 달려서 9월에 좋은 결과로 평가제를 통과했다.

필요경비 정산을 향해 GO~GO~

좀 더 가벼워진 마음으로 9월부터는 필요경비 정산 기능을 사용하리라.

필요경비에 개인정산을 위해 인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이 있어 교육 신청도 하고, 다시 회계컨설팅도 신청했다. 현장에서 소그룹 교육도 있었지만 거리가 멀어서 현장 소그룹 교육은 선뜻 신청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필요경비 교육이 있던 다음 날 어린이집 큰 행사가 있어 교육에 집중하지 못해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

교육을 들은 여러 원장님께서 교육을 들어도 잘 모르겠다며 걱정의 목소리가 들렸다. ‘큰일 났다. 나는 교육도 못 들었는데 어떡하나~’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천육아종합지원센터에 회계컨설팅을 신청했으니 그때 자세하게 배우면 되지 생각하고 회계컨설팅 오시는 날 만 기다렸다. 회계컨설팅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청구 및 수납 작업 기능을 해 보고 정산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명쾌한 해결을 받지 못해 고민이 됐다. 아직은 시범 사용 기간이라

올해는 지금처럼 수기로 정산해도 된다고 하니 청구작업만 하고 정산기능은 다음 해부터 사용해야 하나 생각하다 청구작업의 기능을 알고 있으니 9월은 기존방식으로 회계보고를 했다. 10월 회계를 하면서 정산에 대한 문의 결과 정산이 가능하다고 하여 이미 회계보고한 9월도 청구항목별 청구작업을 해도 계정에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듣고 9월 청구작업을 하고 정산기능을 눌러서 개별 정산을 클릭해보니 개인별 정산 금액이 안 맞았고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다.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에 올려주신 자료를 보는데 나의 이해력의 부족인지 집중력의 부족인지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 헬프데스크에 문의하는 데 전화로만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 서로 다른 얘기만 하는 것 같아 이해가 잘 안돼서 상담사도 답답하고 나도 답답하고... ‘올해는 그냥 청구작업만 할까?~ 멀어도 대면으로 필요경비 정산 교육을 들으러 가야 하나~~ 다시 한번 회계컨설팅을 신청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시간이 조금 생기면 나도 모르게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켜서 이리저리 만져보고 올려주신 자료를 보면서 9월 청구항목, 청구작업, 수납작업을 지우고 기록하기를 수도 없이 반복했다. 조금만 설명을 들으면 될 거 같다는 생각에 또다시 수화기를 들게 되면 많이 지쳐 목소리가 잘 안 나온 상담사님 목소리를 들으면서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 많은 전화 업무에 시달려 힘드신다고 생각하며 죄송하기도 했다. 다시 청구와 수납을 지우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해 보고 안 되면 또 다시 문의하고를 반복하며 때로는 공감해 주며 힘을 주시는 상담사님의 답변에 힘을 얻고 다시 도전했다.

조금만 더 해 보자, 하면 될 거 같다는 생각에 이리저리 만지고 생각하면서 결국 특별활동을 과목별로 청구항목과 청구작업을 하고 수납작업을 하니 정산이 됐다. “아하 이거였네~~” 그런데 기타필요경비 시도특성화의 정산을 하는데 또 문제가 가로막혔다. 상담사님께서 과목별로 분할입력을 하라고 말씀하셨다. 과목분할을 연령별로 하기에 더 복잡할 거 같다는 생각에 특별활동처럼 과목별 청구항목, 청구작업, 수납작업을 하고 정산을 하니 바로 정산이 됐다. “아하 이거였네~~ 와~~~” 라는 함성이 절로 나왔다. 그 외 부모부담행사비, 현장학습비는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모두 체크하고 정산하니 정산이 됐다. 십 년 묵을 체증이 쑥 내려간 듯 해 났다는 뿌듯함에 몸과 마음이 가벼웠다. 모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콧노래를 부르며 가벼운 마음으로 퇴근~~

간단하고 투명한 정산을 향해 GO~~GO~~

알고 나면 너무 쉬운데 모를 때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는지...

청구항목, 청구작업, 수납작업 이런 기능들이 익숙지 않다 보니 더 어려웠던 거 같다. 또한 개인별 정산이니 청구항목을 연령별로 설정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고 연령별로 청구항목, 청구작업, 수납작업을 하니 정산에서 맞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먼저는 각자의 어린이집 상황에 맞게 청구항목을 잘 설정하고, 청구항목은 연령별이 아닌 항목별로 설정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이해하고 청구항목, 청구작업, 수납작업을 잘해 놓고 나니 전표를 작성할 때도 클릭 한 번으로 척척, 정산도 자동으로 정확하게 실수할 염려 없이 너무 편리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현장의 편리성을 위해 수고해 주신 연구원님들에게 감사가 절로 나왔다. 수시로 전화해서 귀찮게 해 드렸던 상담사님들에게도 죄송하고 감사했다.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필요경비의 세부항목이 분리되어 있는데 특별활동비와 필요경비로만 분리되어 정산이 나온다는 점이다. 필요경비 정산내역이 세부항목(시도특성화, 부모부담행사비, 현장학습비)으로 정산되면 필요경비의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좀 더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024년부터 의무 사용이라고 하니 올해 좀 더 익숙해지도록 관리시스템에 자주 들어가서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해 보아야겠다. 아직 필요경비 정산 기능을 사용 안 하신 선생님들 도전해 보세요. 한두 번 설명을 듣고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여러 번 듣고 봐도 이해가 안 될 때는 “청구항목 설정은 항목별로 설정해야 한다.” 꼭 기억하시고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자주 들어가서 여러 기능들을 만져보면서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 “아하 이거였네~~” 할 겁니다. 이제부터 필요경비 정산 쉽고 빠르게 해봐요~~ 이제부터는 필요경비 정산으로 시간 낭비하지 않을 거 같아서 너무 행복하다...필요경비 간단하고 투명한 정산을 향해 앞으로도 쭉~~욱~~ GO~~GO~~

아하!! 그렇구나!!

크니크니어린이집 김상미

몇 해 전부터 인천을 비롯한 전국에서 회계시스템이 생겨나고 있다. 사실 회계업체를 이용하고 있던 중 인천형 회계시스템이 생겼고 관심이 있었으나 회계라면..이글을 읽고 있는 누구나 ‘아이고! 머리야!’ 소리부터 나올 듯하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이하 ‘나’)는 정산서 및 모든 서류를 직접하고 있는데, 회계까지 직접 해야 하나 고심이 되었다. 우연히 인천시 육아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입문교육이 접수 중인 것을 발견하고, 그래!! 한번 들어보기라도 하자! 하는 마음에 바로 신청을 하였다. 대면이 아닌 비대면 교육이었기에 사실 집중이 떨어졌던 거 같다. 그래서 입문교육을 두 번이나 들었다.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닌데.....잠깐 웃자!!

국민은행 통장은 이미 사용 중이었고 등록을 해보기로 했다. 관리시스템에 접속하고 법인 공인인증서로 사용자를 등록한 뒤 개인공인인증서를 등록했다. 들어가자마자 인천답게 파란 바다를 상징하는듯한 파란 화면이 딱! 눈앞에 나타났다. 두근두근 심장이 뛰는. 이상하게 회계만 하면 심장이 뛰는지 이유는 모르겠다. 입문교육 들었던 것을 머릿속에서 떠올려보며 회계 관리, 아동 관리, 교직원 관리, 물품 관리를 하나씩 둘러봤다.

좌절....아 모르겠다. 두 번이나 들은 나의 입문교육은 세 번째 입문교육 클릭을 선사하였다. 세 번째까지 듣고 나서야 인증키를 등록해보았다. 인증키를 등록하고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버튼을 눌러보았다. 마이보드? 음..개인정보인가? 보균 하고 클릭을 했다. 어린이집 정보가 다 보인다. 무언가 변동될 때도 알아서 바뀌는 똑똑한 시스템이다. 매달 교직원과 아동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교직원 재직 증명서도 바로 출력할 수 있어서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

슬슬 어렵지만 도전해야 하는 전표로 넘어가 봤다. 전표검증을 누르니 한 달 어린이집 살림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통장 잔액도 확인하고 예산이나 필수집행 내역도 확인하고 필요경비, 특별활동비, 급식비 등 사용이 적절한가 분석되어있는 것도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전표관리로 들어가서 전표를 하나하나 클릭하고 내용을 적어보았다. 당일 전표는 안 뜨지만, 전날 전표까지는 바로 올라오니 적요란에 잇기 전에 적어두면 계정을 잡기가 편했다. 보조금이나 누리 지원받은 내역을 옆에 클릭할 수 있어 정산서에 바로 연계가 되었다. 계정과목이 복사하기 붙여넣기가 가능하여 계정과목 선택하고 복사박스 버튼을 체크하면 선택한 계정과목이 바로 복사되었다. 그때 체크를 해제하면 계정과목이 삭제되니 잘못 클릭했어도 걱정이 없었다. 아이들 필요경비 들어온 것도 일괄 분할도 가능하니 여러 번 클릭할 필요가 없었다.

원장님들의 손가락과 팔목은 소중하니깐...지켜주려고 복사해 붙여넣기와 일괄을 만드신 점에 박수 세 번 짹짹. 반납결의를 한 적은 없지만, 반납결의도 전표를 추가해서 금액을 마이너스로만 입력하면 되고 잘못된 전표는 삭제 버튼 하나로 끝!! 너무나도 간편하다. 하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고 머리 아프던 회계가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아직은 전표작성이나 영수증 첨부, 예산서 등 조금씩 공부해가면서 하고 있는 중이라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만, 알아가고 있다는 느낌. 연애 때도 알아가고 있을 때가 가장 설레는 시기 아닐까? 관리시스템을 들어가고 하나씩 알아가고 있는 지금 회계를 하며 가장 설레는 시기인듯하다. 작은 건의사항이 있다면 모바일에서도 가능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영수증도 바로바로 찍어서 첨부할 수 있게...

조금은 어렵지만, 도전정신을 가지고 해나가다 보면 언젠간 회계가 제일 쉬웠어요....아하! 그렇구나!! 하는 날이 올지도...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도 나도 모두 파이팅!!!

앗! 회계는 숫자일뿐 도전 앗!

푸른솔어린이집 강경효

어린이집을 10년 이상 운영하면서도 회계는 매년 나에게 큰 숙제로 다가왔다.

어린이집 아이들을 돌보고 활동 서류를 작성하는것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었지만 회계 시스템은 나에게 너무 어려운 장벽처럼 다가왔다. 그 장벽을 깨는 첫 번째 발걸음이 인천형을 시작하며 시작한 회계 시스템이었다. 처음 시스템을 접하는 나에게겐 걱정스러운 마음뿐이었지만 시스템을 이용하는 지금은 누구보다 회계에 자신있을만큼 어린이집 운영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과정들이었던 것 같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타회계장부 업체를 이용하니 전체적인 어린이집 회계운영이 어려웠고 전전궁궁하며 시간을 보내왔는데 시스템을 이용하니 전체적인 어린이집 회계를 파악하며 원장 스스로 회계를 정리하며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며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 아주 유용하였다. 시스템교육의 장점은 기초 설정에서 카드등록, 카드발급까지 사용자등록을 하면서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과 회계보고까지 연계가 되어 자연스럽게 열린 회계보고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고 또한 시스템교육은 한계좌만 등록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여러 계좌를 바로 등록하여도 연계됨이 편리하였으며 자동등록설정을 통해 어디서든지 결제를 진행하여도 수기가 필요하지 않고 자동으로 설정되는 부분이 굉장히 편리성을 보여주는 듯하였고 계정을 추가하여 다양하게 설정하며 예산서와 결산서를 현금출납을 통해 한눈에 설정이 가능한 부분과 집계를 통해 현재의 지출의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이 든다. 전표관리 및 물품관리, 교재교구비용 등 자동으로 저장할 수 있어 감사기간에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선보일 수 있었고, 페이퍼로 되어있는 문서또한 문서를 저장할 수 있어 정리하기에 유용하였다. 시스템을 사용하며 어려운 부분들은 콜센터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

대면식 컨설팅은 새로운 어린이집 운영의 도입처럼 느껴졌다. 직접적으로 두명의 회계 전문가가 찾아와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회계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궁금한 부분과 문제점들은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회계 전문가분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해보았던 원장님들이란 것을 알고 나선 어린이집 운영의 문제점을 공유하며 필요경비 전체적인 예산평성 및 결산 등이 구체적인 전달교육이 되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

운영에서 힘든 점들이 많지만 특히 회계는 특별하게 교육을 받지 않으면 실수하는 부분이 잦았고 감사와 회계보고에서도 회계에서 부족한 부분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다. 이때까지 인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교육을 2번 이상 참여해보았는데 처음에는 이런저런 말들이 이해되지 않았으나 대면식 교육과 ZOOM을 통한 교육으로 다양하게 전개되는 과정들이 감사와 회계보고에서도 자신 있게 제출할 수 있는 현재를 만든 것 같다. 회계 교육을 받는 모습을 보며 여러 원장님들 또한 조언을 구하는 모습이었고 다양한 곳에서 아직까지도 회계 운영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3년정도 시스템을 사용한 지금 다른 어린이집과의 차별성을 갖출 수 있었고 특별히 타 어린이집도 함께 이러한 시스템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면 더욱 투명한 어린이집 회계 시스템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한번으로 끝나는 교육이 아닌 지속적인 시스템 교육을 운영해줌으로 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다른 원장님들도 도움이 될 듯 했으며 누구에게나 자신있게 회계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된 제 모습을 보며 한층 더 성장한 모습에 뿌듯한 마음이 든다.

야호! 자동입력 시스템으로 업무의 질이 향상되었다!

연지어린이집 김세나

어린이집 원장이 되어 회계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지 11년차이고,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이용한지, 4년차가 되었다.

4년 동안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서 기능면에서 아주 만족을 하지는 못했었다. 기존에 회계 프로그램을 원래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도 그렇고, 기능면에서 거의 유사하다보니 더 그렇게 느낀 것 같다.

원아와 교사 인원이 많다보니 수입지출 금액이 크고, 입력할 회계항목도 많아서 더 만족을 못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다.

특히 앞으로는 서면자료 없이 회계 시스템으로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 그로 인해 지출에 대한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해야 하는 부분도 상당히 부담이 되었다. 매일 입력을 하면 좋겠지만, 보육료 결제 자료가 넘어오는 기간도 있고, 회계시스템 에서도 다음날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실제로 매일 입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지출이 많을 때는 증빙자료를 일일이 스캔하고, 업로드 하는 것에도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수입에 대한 입력을 할 때도 그전에는 계정과목을 선택하고 적요 란에 기재만 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매월 수납청구를 하고, 청구수납전표등록 탭에서 각 원아별 결제부분을 선택하고 전표를 등록해야 하는 과정이 생겼다. 원아의 인원이 90명 정도 되는데, 만5세와 장애아들이 있다 보니 항목별로 신경을 쓰고, 체크해야 할 사항이 많아져서 회계 입력이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프로그램의 기능이 개선되었다는 공지사항이 반갑지 않았고, 회계 프로그램을 입력할 때는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렇게 한달, 두달 시간이 흐르면서 나름 프로그램에 적응을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불평불만만 하던 내가 차차 인천형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의 장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필요경비 정산 교육을 통해 정산기능을 배우게 되면서 인천형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을 찬양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럼 어떤 기능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수입 입력 시 청구수납 전표등록을 통해 아이들의 적요 내용을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기재가 되어 편리해졌다. 특별활동비와 시도특성화비 등 세목별로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편리하게 개별원아별 수납을 등록할 수 있다. 기능 개선이 되기 전에는 세목별로 수납을 등록하지 않고, 몇 월 시도특성화비 누구누구로 시도특성화비를 통으로 입력하다보니, 과목별로 정산이 어려웠다.

그리고, 자동입력이 되지 않아서, 일일이 아이들의 이름을 적으며 적요 란을 채워야 했었다. 한 번에 열 명이 넘는 아이들의 이름을 적다보니, 수납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찾을 때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 하지만, 수납내용이 자동으로 세목계정으로 입력이 되고, 원아별로 자동 입력이 되기 때문에 회계 입력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되었다.

둘째, 개별정산 기능을 통해 정산서를 손쉽게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개별정산 기능은 정산서를 만들기 위해 눈을 비벼가며 깨알 같은 숫자를 찾고, 한 숨 쉴 틈도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해주는 것 같은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숫자 하나만 입력을 잘못해도 처음부터 다시 찾아야했던,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찾기 위해 헤매던, 그리고 용량이 많아 저장되다가 날아가버린 서류로 인해 눈물을 흘린 그 날들의 보상! 이라고 해야 할까? 인천형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의 꽃은 개별정산과 정책정산 등 정산기능에 있다고 생각한다.

처음에 이야기 한 대로 수납 청구 세팅을 잘 하고, 입력을 하면 어려울 것 없이 정산이 이루어진다. 올해는 중간에 필요경비 정산 기능이 생기다보니, 처음 입력했던 3월분이 생각대로 정산처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쉬웠다. 24년도부터는 아동등록, 세목별 청구, 수납을 잘 이용하면, 원하는 정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셋째, 물품관리 기능도 이용하면 편리하다. 우리 어린이집은 물품관리도 모두 인천형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비품과 교구 담당교사가 본인의 USB에 파일을 저장하여 관리하다보면, 파일이 삭제되는 경우도 있고, 잘 지재하고 있는지 관리감독도 어렵다.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은 물품담당 교사를 시스템에 배정하고 운영할 수 있고, 언제든지 원장이 직접 문서를 확인할 수 있고, 저장에 안 되거나 파일이 삭제되는 등의 염려가 없어서 안전하게 관리하기가 좋다. 물품관리번호 부여와 출력도 가능하여 업무처리 속도도 빨라졌다.

평소에 계속 사용하던 시스템이라 굳이 장점을 찾고 적어보지 않아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사용했었는데, 수기 공모를 위해 장점을 적어보니, 인천형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으로 인해 원장업무의 질이 많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다양한 기능들은 계속해서 생기고, 업무 처리에 있어서 생기는 변화는 받아들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기능을 익히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어려움은 있겠지만, 원장님들이 사용하기 쉽고, 편한 기능들이 생기는 것일 테니, 잠깐의 불편함은 감내하고, 새롭게 생기는 기능을 빨리 익히고 적용해보아야겠다. 왜냐하면, 난 인천형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을 믿으니까!

아! 한 가지 건의 내용은 현장에서 사용하는 원장님들의 건의나 제안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주는 인천형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이 되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더 편리하고, 좋은 기능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희망과 기대를 걸어보며 짧은 글을 마친다.



어린이집 운영관리를 한번에 ~~~ 빠르고 편리하게~ 논 스톱 시스템!!!

강화남산군립어린이집 유세영

인천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이 첫 도입되는 시기부터 사용을 했지만, 시작하기 전에 나는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하기에 부담감으로 인해 걱정과 염려가 컸었다. 이유는 새로운 시스템을 배워가며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익히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혹시나 사용하면서 회계가 되돌릴 수 없게 되지는 않을까’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생각하며 미리 걱정했었다.

그러나 막상 사용해보니 기존에 사용하던 걸음마 넷 프로그램을 만든 ‘온앤온’업체에서 만들어서인지 사용법이 거의 비슷하여 어려움 없이 금방 적응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걱정과 염려했던 마음은 금방 사라지게 되었다.

제일 먼저 사용해본 것은 회계 관리 부분이었다. 회계 관리에서 여러 개의 지출 항목이 같은 목일 때 복사하여 전표 등록을 할 수 있어서 많은 양의 지출내역도 빠른 시간에 전표등록을 할 수 있는 부분과 카드결제를 누르면 어느 가맹점에서 몇 시에 구입을 했는지까지 지출 결의서에 기록이 되어 카드영수증을 찾아보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했다. 또한 회계관리 중 전표관리 화면에서 계좌잔액과 회계잔액을 비교하여 혹시나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확인 할 수 있어서 빠짐없이 전표관리를 할 수 있었다.

또한 어플을 사용하여 카드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직접 찍으면 월별로 자동으로 분류가 되어 월별로 업로드를 할 수 있는 부분과 언제 어디서든 전표등록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편리했다. ‘바쁜 원장님들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해서 만들었 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두 번째로 사용 해본 것은 아동 관리이다. 보육통합시스템에서 아동의 명단을 한꺼번에 다운 받아 한 번에 업로드를 하면 아동의 대한 개인정보가 한꺼번에 업 로드되니 추가로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었다. 어린이집에서 수납하는 비용 항목명, 금액을 연령별로 특별활동비와 필요경비의 세목으로 나누어 설정하여 저장해두고 개인별 청구 작업을 딱 1회만 해 놓으면 1년내내 같은 내용으로 청구가 가능하여 필요경비 고지서를 만들어 보호자에게 배부하는데 편리했고, 보호자는 청구내역의 세부내역을 보호자가 매월 확인할 수 있어서 보호자에게는 매월 납부하는 필요경비가 어떤 내역으로 청구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자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도 했다.

보육료 청구 작업을 하고나면 수납시 수납 날짜만 입력하면 바로 보육료대장에 기록이 되어 수납관리가 편리하고, 연말에 수납내역을 확인하여 납입증명서를 보호자가 원할 때 클릭만 하면 수납내역, 보호자정보, 아동정보 등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져 있으니 한 번의 클릭으로 납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어서 업무가 빠르게 처리될 수 있었다.

최근에는 기능개선이 되어 「청구/수납내역 전표등록」기능이 생겨 수납된 아동과 청구한 아동을 매칭만 하면 분할 등록을 따로 하지 않아도 알아서 수납일 기재는 물론, 전표등록, 보육료대장관리까지 한 번에 되니 빠르고 편리하게 업무를 할 수 있어서 업무가 훨씬 줄었다는 생각까지 든다.

세 번째 사용을 해본 것은 물품관리이다. 어린이집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관리시스템이 없었던 터라 그동안 한글프로그램에서 서식을 만들어 비품대장과 교재교구대장을 사용하다 보니 파일이 파손되거나 여러 해 담당교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분실되는 부분도 생기고 재물조사를 통해 여러 번 뒤적거려다 보니 대장이 너털너털해진 부분도 있었다. 그러던 중 인천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에서 물품관리를 사용해보니 사진을 넣고 내용만 기록하면 관리번호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폐기까지 전산에 넣을 수 있어 영구적으로 누적 관리할 수 있고, 분실의 우려도 없다는 장점이 있다.

많은 기능이 있어도 사용법이 어렵고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용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천시 어린이집관리시스템은 시스템 사용의 도움을 주고자 시스템 내에 자주하는 질문과 사용법을 유튜브로 짧게 영상을 만들어 탑재해 놓아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헬프데스크가 있어서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원격지원으로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시스템사용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시스템을 사용해 나가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

최근에는 기능 개선된 개인별 정산으로 필요경비 정산과 만 5세 필요경비 정산, 법정필요경비 정산이 시스템에서 가능하여 이제는 어린이집 운영관리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어린이집 운영관리(회계관리, 아동관리, 물품관리, 교직원관리)를 하기 위해 한 번에 한 시스템에서 논스톱으로 할 수 있는 인천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두려움 없이 사용해 보길 권해본다.



[필요경비 정산] 엑셀(Excel)을 못하는 내가 필요경비 정산을? :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새 친구(필요경비 정산) 이야기

산곡2동어린이집 임윤희

2020년 9월,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처음 만났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투명한 회계는 공보육의 기본이기에,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매뉴얼 책과 씨름하고, 헬프데스크 선생님들과 오전, 오후로 통화하며, 시스템 교육과 회계 컨설팅으로 회계업무를 익히고, 알아가는 과정의 기쁨을 맛보던 새내기 1년차 원장이었습니다.

어느덧 3년이란 시간이 흘러 지금은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어느 정도 익숙하게 다루고, 시스템 안에 있는 다양한 탭들 중 필요한 부분을 쏙쏙 골라 유용하게 사용할 줄 아는 수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제가 뛰어나서 활용 능력이 성장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용은 기능을 익히는 것으로, 매뉴얼 책과 인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 & 컨설팅으로, 누구나 반복해서 사용하면 익힐 수 있고, 숙달되면 시스템 안에 있는 모든 탭들을 활용하여 업무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투명한 회계의 친구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에 새로 사귄 친구(필요경비 정산)를 만난 배경부터 새 친구(필요경비 정산)와 잘 지내고, 친해지기까지에 대한 스토리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새 친구를 알게 되었습니다 : 필요경비 정산

지난 4월, 인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비대면으로 필요경비 정산교육을 진행한다는 안내문을 보고 새 친구(필요경비 정산)에 대한 소식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새 친구의 소식은 저에게 반가움과 기쁨, 걱정과 두려움이 교차되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기초만을 습득한 저의 엑셀(Excel)수준은, 그동안 아날로그방식으로 필요경비 정산을 할 수밖에 없었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 소요, 비효율적인 업무 방법이 늘 불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엑셀을 잘하지 못해도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필요경비 정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기쁨과 반가움이었습니다.

그런 반면, 필요경비 정산이라는 새 친구를 잘 사귄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걱정은 시작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는다 〉라는 글귀를 본 순간, 두려움과 걱정은 사라지게 되었고, 필요경비 정산이라는 새 친구를 설레임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요경비 정산을 시작해야 하는 원장님, 그리고 회계 담당 선생님~ 저도 두려움과 걱정이 많았답니다. 하지만, 시작하고 나니 주변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인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헬프데스크, 회계 컨설턴트, 동영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일단은 미루지 말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노하우 공개 :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새 친구(필요경비 정산) 이야기

낯가림이 심한 저는 새 친구(필요경비 정산)를 사귀는데 있어 초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나니, 새 친구(필요경비 정산)와 잘 지내려면, 친하게 지내려면, 몇 가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고, 그 부분만 지킨다면 어느정도 어려움은 해소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 인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필요경비 정산 교육에 참여하면 좋습니다. 저는 5월 11일에 비대

면 화상교육과 5월 18일에 대면교육으로 필요경비 정산교육에 2번 참여하였으나, 정확한 이해는 하지 못하고 필요경비 정산과정에 대한 흐름 파악만 할 수 있었습니다. 준비없이 교육에 참여해서 흐름만 파악한 것 같습니다.

→ 지금은 매월 인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비대면 교육과 대면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가기 전,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 매뉴얼- 동영상 매뉴얼을 시청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아동 등록, 청구 작업, 수납 작업, 개인별 정산을 해 본 후, 궁금한 부분을 메모해서 교육에 참여한다면 훨씬 효율적인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의 궁금증을 정확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필요경비 정산 전문가를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by-case)이기 때문에, 동영상으로는 해결이 안되는 우리 어린이집만의 궁금한 부분은 분명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대면교육 시,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본 어린이집은 매월 다른 현장학습비, 특별활동 일부 과목만을 신청한 원아 등 동영상으로는 개인별 정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필요경비 개인별 정산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지출에 따른 증빙서류들이 갖추어져야 가능합니다. 지출 증빙 자료(카드결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가 첨부되지 않은 전표는 개인별 정산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어린이집은 나름 꼼꼼하게 지출 증빙을 해 둔 덕분에 이 부분에서는 수월하였습니다.

다른 세출 전표도 마찬가지로, 특히 특별활동비 지출, 기타필요경비 지출이 이루어진 항목은 한번 더 꼼꼼하게 증빙서류들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타필요경비 항목은 현장학습비, 행사비, 시도특성화비로 나누어서 청구가 이루어져야 정산등록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들이 기타필요경비를 항목별(현장학습비, 행사비, 시도특성화비)로 나누어서 세입처리를 하고 계시겠지만, 혹여나 그렇지 않고 일괄 세입처리 하였다면 각각 항목별로 나누어서 세입처리를 해 주어야 필요경비 개인별 정산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네 번째, 특별활동비를 과목별로 일괄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과목에 따라 연령별로 전표를 분리해서 등록해야 개인별 정산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과목에 따라 연령별로 결제를 하면 분리를 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본 어린이집은 연령별 특별활동 과목이 다르다보니 연령별 청구 금액도 달랐고, A과목의 경우는 연령별 금액이 달라 과목별 일괄 결제는 개인별 정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 어린이집은 관리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정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증빙번호가 바뀌는 것을 감수하고 전표를 삭제한 후 다시 연령별로 분리하여 개인별 정산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매월 지원받는 보조금 금액이 본 어린이집에서 청구하는 금액보다 많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장애아 친구들을 지원해 주는 금액을 그밖의 지원금으로 세입 전표등록을 하나로만 하는 줄 알았으나, 개인별 정산을 하려면 세입 전표등록을 항목별로 나누어 전표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그밖의 지원금(법정 아동 기타필요경비 행사비), 그밖의 지원금(법정 아동 기타필요경비 시도특성화비), 그밖의 지원금(법정 아동 기타필요경비 현장학습비)로 각각 나누어 세입 전표등록을 하고, 남은 금액은 그밖의 지원금으로 세입 전표등록을 해야 개인별 정산이 가능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특별활동비를 선택해서 하는 원아가 있을 경우, 같은 과목이어도 연령별로 금액이 다른 경우는 청구 방법이 달라집니다. 보통 특별활동비는 항목별로 나누지 않고, 일괄 청구, 수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어린이집처럼, 특별활동을 모두 하지 않고 선택해서 하는 원아가 있을 경우, 또는 A과목 금액이 연령별로 다른 경우에는 과목별로 금액을 청구해야 정확한 개인별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 참고 : 본 어린이집은 A과목에 대한 연령별 수업시간이 달라, 같은 과목이어도 연령별 금액이 다릅니다.

새 친구(필요경비 정산)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열려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 틀려도 괜찮습니다 ~ 다시 하면 됩니다!! 잘못 청구했는데 어떻게지? 정산등록 매칭을 잘못했네? 설마 삭제된걸까? 개인별 정산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새 친구(필요경비 정산)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열려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 ① 연령별 청구 금액이 달라 실수로 잘못 청구하였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세부내역에서 청구내역을 삭제하고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수납내역과 집행내역의 정산등록을 잘못 매칭시켰습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정산초기화에 들어가 틀린 부분의 청구년월과 청구항목을 찾아 초기화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틀린 부분만 초기화되어 다시 매칭시킬 수 있습니다.
- ③ 전표를 수정해야 하는데,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수정 가능합니다~ 정산 등록을 마쳐서 수정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전표를 수정해야 할 경우에는 정산 초기화 작업 후에 수정이 가능합니다.
- ④ 오늘(11월)부터 정산작업을 시작해도 될까요? 늦은게 아닐까요? 아닙니다~ 새 친구(필요 경비 정산)는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달은 기등록 전표 연계로, 이번 달은 계좌내역 연계로 전표를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하반기 개인별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새 친구(필요경비 정산)는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회계담당자 선생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걱정은 시작하고 난 후에 해도 늦지 않으니, 새 친구(필요경비 정산)를 하루빨리 만나 보세요~ 시간이 절약되고, 재무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서툰고 부족하지만 든든한 지원군

남동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이상순

나의 어린이집 원장경력에는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다양한 어린이집 유형의 원장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이력 때문에 각 유형의 어린이집이 가지고 있는 운영의 어려운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나에게 운영에서 제일 어려운 점은 회계였고, 인천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알기 전까지 회계는 “그냥 다 어렵다”, “누군가 대신 회계를 해주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뿐 이었다.

인천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사용하기 전 나는 스스로 해보지도 않고 “회계는 너무 어려워!, “숫자는 나하고 거리가 멀어~”, “학부모, 교사, 원아 관리, 안전한 환경과 시설 관리도 벅찬데... 회계는 다른 누군가 또는 회계대행 업체가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해보지도 않고 회피 하려고만 했다. 무엇보다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출산을 저하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원아모집에 신경을 더 써야 했고, 학부모님의 민원처리 많아지면서 어린이집 업무의 중요도에서 회계는 점점 멀어져 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경력이 쌓이면서 어린이집의 예산을 세우고 목적에 맞게 돈을 사용하고 투명하게 사용 내역을 공개하며 정확한 회계 관리가 필요하였다. 특히 보육의 공적 영역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수입과 지출의 흐름을 파악하고 계획성 있게 어린이집을 운영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이처럼 계획성 있게 정확한 어린이집 회계 관리와 운영관리의 어려움을 인천시 어린이집관리시스템이 도와주고 해결해 주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지출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생긴다.

우리 어린이집의 경우 평가제 관찰 주간에 있었던 일이다. 한 겨울의 1월, 평가제 현장관찰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오후 갑자기 싸늘함이 느껴지면서 뭔가 이상함이 감지되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그 예감을 틀리지 않았다. 오후 4시 쯤 갑자기 바닥이 차가워지더니 냉기가 흐르기 시작했고 어린이집 시설을 확인해 본 결과 보일러 메인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메인 시스템을 통째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었다. 보일러 메인 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며 그 시간 또한 불안정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평가제 현장관찰을 진행할지 연기할지 결정 해야만 했다. 공사를 진행 할 경우 평가제 현장관찰 시 평가제 영역별 지표항목에서 N평정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현장 관찰 주간의 연장은 불가피 하다고 생각 했고 한 달 후 보일러 메인시스템을 교체하고 평가제 현장관찰을 무사히 받을 수 있었다.

또한 그해 12월 겨울, 4층 건물옥상의 물탱크가 터져 어린이집 전체가 물바다가 되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였다. 주말 보내고 월요일에 출근을 했는데 1층 천장에서 물에 새고 있었고 2층, 3층, 4층으로 올라가 보니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옥상에 올라갔을 때 물이 팔팔 쏟아지는 현상을 목격 했다. “아~ 또 일이 터졌구나...” 상황을 수습하다 보니 물탱크가 터졌고 옥상으로 내려가는 하수구가 얼어 물이 미쳐 빠져나가지 못하고 건물 안으로 새어 들어와서 벌어진 일이었다. 이 또한 수습하는 과정에 웃기지만 슬픈 일들이 많았다. 한 겨울 바지를 걷고 바가지로 찬물을 퍼내기도 했지만 물탱크와 시설공사를 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였다.

이렇듯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면 원장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설과 관련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더 어려운 것은 이러한 공사로 인한 시설비를 충당하는 것이다. 갑작스런 상황으로 예산에 없는 비용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처리가 시급하였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인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덕분에 어린이집의 세입·세출 관련하여 꼼꼼히 들여다보고 효율적으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었다. 인천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으로 일 년의 회계 관리와 운영관리를 하여 한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인천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은 통해 세출에서 줄일 수 있는 관항목과 추가로 편성해야 하는 관항목에 대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고 추가경정 예산을 작성하는 데 편리하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

특히 회계보고 메뉴는 1단계부터 10단계의 단계별 전표검증을 통해 한달 어린이집의 살림을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운영비통장과 현금출납장의 최종 잔고를 확인하고, 예산의 초과 집행 검증을 통해 초과 집행된 계정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을 수립을 세울 수 있게 된다. 또한 필요한 부분에 돈이 잘 쓰여 졌는지 그래프와 도표가 지출의 흐름을 한 눈에 보이도록 친절히 알려주었다. 회계전표관리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단계별 점표검증을 통해 확인하고 또 확인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전표입력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인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통해 최소 일주일에 한번 전표입력과 한 달에 한번 회계보고 하기 전 회계 점표 검증을 통해 전표 입력은 잘되었는지? 관항목 입력 관련하여 실수 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였다. 또한 궁금하거나 막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헬프데스크에 문의하면 친절히 설명 해주거나 원격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하고 직접 도움이 필요하면 방문컨설팅을 신청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나는 원장경력 17년 차이지만 아직도 배우는 중이고 인천시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을 통해 회계 관리에 대해 배우는 중이다. 아직도 회계 관리 하는 것이 부족하고 여전히 서툴지만 인천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이 있어 참 든든하고 좋다.



[필요경비 정산] 용기와 결단의 연속 = ‘인천광역시 어린이집관리시스템’

아름드리어린이집 김효선

국공립 어린이집에서의 교사 경력은 벌써 15년이 넘었다. 수년 전 3년 정도 어린이집 회계를 맡아 본 경험도 있지만 정작 원장이 된 나는 ‘회계’라는 단어만 들어도 긴장이 되고 거부감이 밀려왔다. 그도 그럴 것이 국공립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그간 받아온 점검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에서 회계가 얼마나 중요한 영역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교사일 때는 실수를 해도 바로 잡아 줄 든든한 원장님이 계셨다. 하지만 이제는 원장으로서 내가 그 일을 오롯이 감당해야 했다.

문제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용기가 내게는 아직 없다는 사실이다. 2023년 4월 12일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한 원장으로서의 첫 근무가 시작됐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원장 업무의 영역을 하나씩 접하며 혼란은 더 가중됐고, 공부하고, 배우고, 물어야 할 것들이 내 앞에 산더미처럼 쌓이기 시작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험난한 산은 단연코 ‘회계’였다. 어린이집관리시스템에 접속할 때마다 떨리는 마음으로 ‘실수하면 안돼!’를 계속 외치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사용자 매뉴얼 책자를 책상에 펼쳐놓고 하나하나 읽고, 입력하고 또 다시 지우고 수정하기를 반복하며 전표 하나를 완성하는데 수 십분이 걸리기 일쑤였다. 그렇게 걸음마를 떼는 아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4월부터 어린이집관리시스템 교육이란 교육은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닥치는 대로 신청해 교육을 받았다. 같은 교육을 두 세번 듣기도 했다. 입문, 심화, 활용 교육을 받으며 조금씩 처음 들어 본 회계 관련 단어들이 귀에 들리고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교육을 들은 후에는 혹여 잊어버릴세라 바로 시스템에 들어가 시뮬레이션을 하며 차례대로 하나하나 교육내용을 적용해 보며 연습을 했다. 무엇보다 감사했던 것은 잘 정리되어있는 동영상 매뉴얼은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최고의 조력자가 되어주기 충분했다.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땐 안내데스크의 도움을 받아 또 고비를 넘기곤 했다. 그렇게 5개월간의 교육과 연습을 반복하며 겨우 회계 관련 언어들과 친근해 질 무렵 또 한차례 위기가 찾아왔다. ‘필요경비정산’이었다. 기존에 방식대로 상반기 필요경비 정산이 이미 끝난 상태였다. 그런데 이제는 시스템상에서 필요경비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사실 인천광역시 어린이집관리시스템을 사용하며 또 상반기 필요경비 정산 엑셀작업을 하면서 이 작업이 시스템상에서 이루어진다면 참 편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아동 개인별정산에 들어가 보았지만 내 얇은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었고 도전하기는 더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아직 시스템상에도 개인별정산이 완벽하게 연동되지 않은 시점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9월 필요경비정산교육이 시작됐다. 우선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아야 했기에 비대면 첫 교육부터 신청해 들었다. 다행인 것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이 꽤 있었다. 아동등록과 청구항목 설정, 필요경비 세목 청구와 수납, 납입통지서, 영수증 등은 계속 사용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다. 개인별 필요경비 정산을 위해서는 이것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았다. 새롭게 생긴 탭들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했다.

우선은 비대면교육을 통해 배운 것들을 8월 회계에 적용해 보기로 했다. 이미 회계보고가 끝났지만 기등록전표연계를 통해 청구, 수납 작업을 연습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뼈격대기 시작했다.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첨부

되어야만 이루어지는 작업이었다. 그동안은 지면으로 출력했던 것들이어서 처음부터 앞이 캄캄했다. 이 부분 또한 늘 작업을 하면서 ‘참 종이 낭비다’ 싶은 부분이기도 했다. 다시 또 걸음마를 배우는 것 같았지만 8월 회계서류를 꺼내 필요한 증빙서류들을 스캔하기 시작했다. (나중에서야 안 사실이지만 모바일 앱을 사용하면 훨씬 간편하고 빠르게 끝낼 수 있는 작업이었다) 처음 혼자 시도해 보는 필요경비정산 작업이어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

9월 첫 번째 필요경비정산 대면교육은 내가 한 작업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사실 지난번 비대면 교육에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터라 직접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이 몇 가지 있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부분과 8월 필요경비정산을 연습한 후에 듣는 교육이라 그런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 궁금증도 해결되었다.(분기별 필요경비 수납, 전입금으로 필요경비 처리 등) 용기를 내어 시작하기를 잘 했다는 생각에 열은 미소가 지어졌다.

교육에서는 많은 원장님들이 기다렸던 회소식이 전해졌다. 당장 9월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했던 필요경비정산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는 소식이었다. 마음이 한시름 놓이긴 나도 마찬가지였다. 아직 연습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안도감에서였다. 교육 후에 나에게서는 한가지 숙제 같은 것이 남았다. 좀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다. 적어도 나에게서는 말이다. 바로 상반기 필요경비정산이었다.(이미 상반기 필요경비정산은 끝난 상태였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어서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달렸다. 웃는 내 모습을 상상하고 싶지만 후회하고 있는 내 모습도 상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 하는 것이 내게는 더 이득이라고 결론을 내고 상반기 필요경비 정산을 해 보기로 결정했다.

3월부터 차근차근 시작했다. 모바일 앱을 사용하니 증빙서류 첨부 시간은 많이 줄일 수 있었다. 중간 입소 영아로 인한 증빙번호 재정렬이 불가피해 증빙번호가 달라지는 일도 생겼지만 그것도 이번 년도에는 가능하기에 처리할 수 있었다. 상반기 필요경비 개인별 정산을 마친 후 이미 마친 필요경비 정산(엑셀작업)과 비교해 보았다. 성공이었다. 소수점 아래 수의 오차가 있기는 했지만 거의 99%의 일치률이었다.

6개월간의 필요경비를 정산하기가 쉬운 작업은 아니었다. 하지만 아직도 내게는 서툰 인천광역시 어린이집관리 시스템과 친해지고 내년을 준비하고 조금 더 용기를 얻기에는 충분했다. 여전히 원장으로서 배우며 익히는 시간이지만 나를 울리고 또 웃게 한 인천광역시 어린이집관리시스템과는 밍기도 또 고맙기도 한 애증의 사이가 되었다. 이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은 예감이지만 그래도 이번 필요경비정산기능을 활용하면서 내게 필요한 용기와 결단을 연습하게 해준 거에 대해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앞으로는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나도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원장이 될 수 있기를 조심스럽게 바라본다.

[필요경비 정산] “유레카” 앞으로는 내가 아닌 너만 믿을 게!!!

해담어린이집 정윤정

2007년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평가인증, 열린 어린이집, 지도점검, 교사 관리, 부모모니터링, CCTV, 원아, 학부모 관리, 원아 모집, 시설 개보수 등등 원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부분에서 어려운 점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점 한 가지를 뽑으라면 말할 것도 없이 회계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21년 새로 개원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만 5세 아동과 장애 통합 아동에 대해 6개월에 한 번씩 구청에 정산서를 제출하다 보니 기존에 엑셀 방식으로 정산 하였던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을 잘못하고 있었는지 검토할 길이 막막하여 계산기를 두드리고 엑셀 수식에 입력을 잘못했는지를 보고 또 보면서 여러 번의 확인을 거친 후 정산서를 제출하였다.

물론 상하반기 모든 영유아의 필요경비와 특별활동비를 정산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산을 할 때마다 금액이 딱 안 맞기도 하고 또 현장학습을 다녀올 때 어떤 아이들이 결석을 하였는지 일일이 파악해서 그 아이는 빠고 엑셀에 필요경비를 넣어야 하고 집행한 금액을 N분의 1로 했을 때 정확하게 원단위로 안 떨어질 때도 있다 보니 정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상당하였고 더불어 받는 스트레스와 야근도 많았다.

그러다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으로도 필요경비를 정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육도 받지 않은 채 겁도 없이 필요경비와 특별활동비 정산을 해보기로 시도하였다. 정확히 알고 시작해야 하는데 주변 원장님들의 “카더라”라는 이야기만 듣고 시스템을 내 마음대로 만져 보았다. 그래서 정산이 내 마음처럼 딱딱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뭘야 왜 이런 거야?” 하며 그냥 반 학기를 엑셀 서식으로 다시 정산을 하게 되었다.

엑셀 서식으로 정산을 하다 보니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속 시산표에 나와 있는 특별활동비, 필요경비의 세입과 세출이 내 엑셀에 있는 금액과 상이해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어디서 잘못된 것인지 찾고 또 찾기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3월부터 원아 한 명씩 세입을 다시 맞추어 보고, 야간 연장 보육에 의한 저녁 석식비 수납이 누락된 원아는 없는지, 법정 아동이나 전입금으로 들어오는 아동을 누락시키지는 않았는지, 세출에서는 현장학습 및 행사에 결석생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숫자를 잘못 입력하지는 않았는지, 법정 아동, 만 5세 아동 지원금은 그 밖의 지원금으로 들어오는데 실제로 이 비용을 지출할 때는 특별활동비와 필요경비로 지출하게 되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필요경비를 수납한 후 원아가 퇴소할 경우 보호자 반환금으로 전표를 등록하다 보니 발생하는 차액 부분등을 일일이 찾으면서 맞추어가느라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엑셀 수식이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하며 정산서를 제출하였다.

특별활동비와 필요경비를 정산할 때마다 ‘이거 누가 좀 대신해 주면 안 되냐’, ‘이렇게 매월 원장 혼자서 수입과 지출을 입력하고 또 6개월마다 정산하는 것이 맞냐’라는 푸념과 한숨을 내쉬며 시스템을 사용해 왔다. 그러던 중 교육을 통해 다시 재정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인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 필요경비 정산 교육에 참여하여 노성순 센터장님을 통해 아동 등록, 청구 항목 설정, 청구 작업, 수납작업, 계좌 연계, 개인별 정산, 정산 등록, 정책 정산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는지를 찾아보며 수정해 보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 교육을 받는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내가 셋팅해 놓은 부분에서 잘못 설정한 부분들은 온앤온에서 파견된 전문가분께

서 개별도움을 주셔서 궁금한 부분들을 해소하며 내가 한 것이 맞지 않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 필요경비 정산 대면 교육을 통해 교육받기 전에 내가 해왔던 시행착오와 새로 배운 것들을 적어보고자 한다.

〈어린이집 운영의 다양성을 반영한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필요경비 및 특별활동 정산을 위해 기본적으로 시스템 안에 우리 원을 이용하는 원아들을 보육 통합으로 엑셀 업로드 한 후 외국인인지, 야간연장을 이용하는 아동인지등을 확인한 후 청구항목설정으로 들어가서 이미 셋팅되어 있는 비용 구분을 토대로 청구항목을 실행하면 되는데 교육받기 전에 이미 특별활동과 필요경비를 과목별로, 연령 별로, 금액별로 청구항목을 설정하고 부모 부담 행사비, 현장 학습비, 시도 특성화 비용도 연령별, 과목별, 금액별로 세세하게 청구항목을 설정하다 보니 세입 전표가 600건이 넘어서 전표를 등록하면서도 ‘이게 맞는 건가?’ ‘시스템이 더 복잡해진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표를 등록했던 기억이 난다.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은 어린이집 운영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내용으로만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시스템을 사용하다 궁금한 부분들은 매월 실시하는 회계교육, 동영상 매뉴얼이나 Q&A, 원격 지원, 정책 정산 매뉴얼, 커뮤니티등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해 놓았는데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하지도 않고 교육도 받지 않은 채 시스템을 탓했던 나의 모습을 돌아본다.

교육을 통해 청구항목 설정을 잘못 설정했으면 사용 안 함으로 하고 다시 청구작업을 진행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시스템 탓만을 하며 복잡하게 청구항목설정을 하고 원아 개별적으로 계좌 연계하여 전표 관리 등록을 했던 것이다. 전월에 청구항목만 잘 설정해 놓으면 전월 내역과 동일 설정을 통해 1분도 안 걸리게 청구작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원아 한 명씩을 불러서 청구 작업을 매월 실시하였던 나의 실수를 깨닫게 되었고 관리시스템은 어린이집 원장들이 편리하게 시간을 단축하도록 구성하였다는 것과 대면교육에서 받은 내용대로 시스템 절차에 맞게 단계별로 찾아가면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건너뛰면서 이용하다 보니 오류가 생겼음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다.

어린이집별로 특별활동의 과목, 연령, 금액이 다르고 시도 특성화 비용이나 현장학습 비용, 부모 부담 행사 비용도 다 다르게 책정하여 운영하므로 그 부분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것을 모른 채 시스템이 어렵다고만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 청구 수납 내역으로 전표를 등록한 것은 바로 전표가 삭제가 되지 않고 연계 전표로 가서 삭제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엉뚱한 탭을 눌러 가면서 “왜 삭제가 안 되는 거지?”하며 혼자 끔공 앓았었다.

또한 필요경비 정산 부분에서 보육료탭→개인별 정산→정산등록을 하려 할 때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으면 개인별 정산을 할 수 없는 것도 교육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이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만 5세, 법정 지원 아동의 보조금이 그 밖의 지원금으로 들어와도 세부적으로 나누어 전표를 등록하지 않다 보니 또다시 정산을 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반복해야 했는데 정책 정산 탭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우리 원처럼 만 5세, 법정 아동, 만 5세 외국인 아동이 있는 기관의 경우 아동 확정 및 정산서 확정을 누르면 자동 연계되어 정산이 수월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몇 날 며칠 야근하며 머리를 움켜쥐고 어느 부분이 누락되었는지 찾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어서 시간과 노력을 현저하게 줄여주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정산 등록에서 수납 내역을 선택하면 선택 정산 금액에 액수가 나타나고 집행 내역을 선택하면 집행 내역에 금액이 나타나서 차액이 발생하는 것을 토대로 정산할 때의 오류를 바로 바로 정정할 수 있어서 필요경비 및 특별활동 정산이 상당히 편리하게 구축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대면교육 받은 것과 함께 시스템 매뉴얼의 다양한 콘텐츠를 잘 숙지하여 활용만 하면 그동안 회계 업무로 쌓였던 직무 스트레스와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는 좋은 시스템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유레카!”라고 할 정도로 요즘은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시간이 단축되고 정확한 월별 정산 내역을 보면서 정말 신세계가 열린 듯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이로 회계 서류를 출

력하여 보관할 때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은 시간이 지나면 종이에 인쇄된 글씨가 없어지기 때문에 복사 용지에 한번 더 복사해서 카드 영수증을 풀로 붙여 보관하였고 카드지출증빙의 경우 세금계산서, 카드 전표를 첨부해야 하며, 계좌이체 지출증빙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거래명세서, 통장 이체 내역, 전자세금계산서를 출력하여 지출결의서 뒷면에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종이도 많이 사용했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통해 증빙 자료를 PDF나 이미지, 모바일을 이용하여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니 종이 서류로 묶으면서 들여야 했던 시간들이 많이 단축되고 종이를 이용했던 부분도 없어지면서 복사 용지 낭비를 줄이는 효과도 있고 남은 시간을 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에 사용할 수 있어서 보육의 질을 높이는데도 일조함을 느끼고 있다.

교육을 들으면서 증빙자료 업로드에 대해 '이걸 언제 일일이 업로드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였는데 핸드폰에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앱을 다운 받아 바로 증빙자료 추가에서 사진을 찍으면 5초도 안 걸려 증빙자료가 업로드되며 pdf 나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된 자료는 블로그를 통해 바로 저장할 수 있어서 반복하지 않아도 되고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기 때문에 편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필요경비 정산에 대한 교육과 관리시스템의 정산기능을 활용하면서 나의 실수를 다른 원장님들이 동일하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관내 새로 개원한 국공립 원장님 8분과 함께 원장 소모임을 꾸려 회계시스템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각 원의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열어 서로 어느 부분을 잘못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며 수정을 통해 시스템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사용할수록 시간과 노력이 절감되며 그 시간들을 어린이집 운영에 더 활용할 수 있음을 깨닫는 기회의 장을 만들기도 했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고수하면서 많은 시간, 노력을 들이면서 힘겨워했던 나였는데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의 필요경비 정산교육과 관리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있다. 유레카와 같은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통해 시간도 단축되고 자원도 절약되고 부모님이 납부하셨던 필요경비와 특별활동비, 지원금으로 들어오는 보조금을 정확하게 정산할 수 있게 되어 원장의 직무 효율성도 높아지고 지도점검 및 반기별 정산때에도 두려움없이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에 있는 자료로 정산 출력만 하면 되니 이보다 수월한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내 방식이 아닌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투명한 보육과 보육과정의 질을 높이는데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과 함께 벌써 3년!!

국공립송도센트럴시티어린이집 **도경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첫발을 내딛은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5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원장으로서 첫발을 내딛으며 설레는 마음과 함께 어린이집의 모든 것을 꾸려나가야 한다는 부담감 또한 있었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으로서 모범이 되고 아이들과 학부모는 물론 교직원 또한 행복한 어린이집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운영 철학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원장으로서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중 운영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재무회계 규칙에 근거한 투명하고 올바른 회계 운영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 그렇게 하루하루 어린이집 전반적인 운영과 회계 관리가 자리 잡을 때쯤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이 생긴다는 소식을 접했다. 처음 소식을 접했을 때는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이 있는데 무언가 새로운 체계를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싫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인천시에서 도입하는 관리시스템이었기에 당연히 어린이집 운영에 도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관리시스템이 도입 되기 전 원장 연수와 인천육아종합지원센터 컨설팅 등을 통하여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의 체계와 구축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인지하였기에 주저하지 않고 인천광역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 그나마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부부는 인천광역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 어린이집 회계 등 관리 시스템으로 온오프 정보 시스템의 걸음마 넷 프로그램을 이용했었기 때문에 인천시 관리 시스템의 체계성과 운영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던 부분이다. 다만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의 문제였던 것 같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 교육을 통해 시스템의 전반적인 이용 방법을 알 수 있었고, 컨설팅을 통하여 인천시 관리 시스템 이용 방법을 직접 어린이집 컴퓨터를 통하여 실제 예시와 조작하는 세세한 방법을 알려주셔서 그 시작이 더욱 수월할 수 있었다. 그렇게 우리 어린이집은 인천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지난 3년간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도움이 되었던 부분과 시스템의 편리성을 정리해 보았다.

1. 어린이집 회계 관리

인천시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 및 증빙 등 어린이집 회계와 관련된 모든 부분이 관리 되어지는 회계 부분의 편리성과 어린이집에 도움 되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다.

첫째, 예산 편성 시 각 어린이집 정원에 맞는 예산 편성 자료가 올라와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할 때 많은 참고가 되고 있으며, 보육료, 호봉 등의 기준이 이미 반영되어 수월하게 예산을 편성 할 수 있다.

둘째, 국민은행과 연동되어 계좌 전표가 조회되고, 같은 계정과목의 목을 해당 체크란 마우스 클릭을 통하여 일률적으로 전표 입력이 가능하다. 단순하지만 이 과정으로 회계 전표 입력에 대한 시간이 적잖이 절약되었고 참 편리한 기능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전표 검증이 가능하여, 예산 집행 시 통장 잔고와 맞지 않거나 예산이 초과된 목이 있는지, 급식비가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등 월 회계보고 전 자체 점검이 가능하다.

넷째, 회계 관리 시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헬프데스크를 통한 전문성 있는 상담과 원격지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회계에 관한 전반적인 의문점 해결과 시스템 사용의 어려움을 그때 그때 도움 받을 수 있어 어린이집 회계 관리의 정확성과 체계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

2. 아동 및 교직원 관리

보육통합시스템과 연계하여 아동의 입소, 퇴소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등록 관리 등이 가능하며, 재원 증명서, 이용 아동 연명부, 보육교직원 관리 대장 등 연동해서 사용 할 수 있는 서식들이 기본 저장되어 있으며, 해당 원아 또는 교직원 클릭 시 관련 서류가 자동 작성되는 편리함이 있다.

3. 물품관리

어린이집 비품 및 교재교구 등을 전산으로 등록하여 물품 대장 및 라벨 출력 등을 전산 관리할 수 있다.

사실 이 글을 쓰기 전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에 관하여 깊이 있게 생각해보지 않았다.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기에 도입하였고, 도입하였기에 어린이집 회계 관리 및 시스템을 적용하여 운영해 왔던 것 같다. 인천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 한 것은 3년이지만, 느끼기에 어린이집 개원과 더불어 관리시스템을 사용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미 인천시 관리 시스템은 어린이집에 꼭 필요한 운영의 한 부분으로 크게 자리매김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렇게 이미 어린이집 운영의 한 부분으로 크게 자리매김한 인천시 관리 시스템을 돌이켜 보았을 때 그 시작점은 분명 부담이었으나 지금은 단순히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어린이집과 함께 하는 인천광역시의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올해부터 어린이집 필요경비 정산 기능이 추가되었다. 아직 정산 시스템은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2024년 3월을 기준으로 필요경비에 대한 정산 부분을 고려하여 전표를 입력하고 정산 기능을 사용 하였을 때 현재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 필요경비 정산 부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회계, 관리, 운영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부담감이 있다. 지침에 맞는 예산을 세우고,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해 나가며, 전표 하나하나의 목을 입력하고 증빙을 첨부하는 일은 늘 수행하는 일상의 업무이지만, 그 일상에서 종종 홀로 고민스러울 때가 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그 고민들과 어려움을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과 함께 나누고, 함께 답을 찾아나가며, 인천광역시 관리 시스템 안에서 바람직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며 앞으로도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이 어린이집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시스템 상의 편리한 기능들을 더욱 개발, 도입하여 구축해 나갈 수 있기를 응원한다.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용수기

도토리어린이집 최양숙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용을 처음 접했을 때

도토리 어린이집을 13년간 운영을 하면서 제도로 된 회계 시스템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인천육아정보관리지원센터, 계양구육아종합관리지원센터, 계양구청등에서 회계관리 교육을 여러번 진행하여 교육을 받고 설명을 들어도 매번 회계 정산에 어려움이 있어 회계보고에 자신감이 없어 전문 업체에 의뢰해 가며 그동안 회계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인천 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도입이 되면서 회계를 직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막상 교육을 듣고도 시스템상 관.항.목 등을 정리하는 것이 헛갈리고 잘못 입력이라도 하면 오류가 나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두려움도 컸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사용법을 모르고 회계보고를 할 수 없으니 용기를 내어 배워 보겠다는 마음으로 사용에 도전을 하였습니다.

도움을 주신 상담사님들~

회계교육도 듣고 어느정도 익숙할 것 같은 자신 있었지만 막히는 부분이 나올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관리시스템 상담사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하나 자세히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설명을 따라 하기에 어려운 부분은 원격을 통해 이해를 도와 주셔서 어려움 없이 기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계보고 후 한 달이 지나고 나면 다음 달 회계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기억이 안나는 경우가 있을 때 재차 상담을 통해 배우고 익혀 나가며 어느 정도 지출 내역 기입과 관.항.목 적용을 능숙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리시스템 사용중 어려웠던 점

카드 결제 영수증, 이체증, 거래명세서, 계산서 영수증 등을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어 업로드 하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진 저장하는 과정에서 두 번씩 겹쳐 올리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여 다시 확인 하고 수정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거로움이 많았습니다.

장점으로 생각되는점

사용 지출 내역에 대해 원장 스스로가 기억이 나니 시간이 지나도 사용처가 분명히 기억이 나 지도 점검시에도 헛갈리지 않고 답변을 할 수 있어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이 전에는 회계업체에 의뢰하여 회계보고를 하다보니 카드사용 후라든지 이체 내역등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바로 바로 나지 않아 점검시 질의 에 바로 대답을 못했던 기억이 있어 당황 했던 적이 있던 터라 본인이 회계를 직접 접해 입력하고 사진을 찍어 올리니 기억에 더 남아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업로드 하는 과정도 익숙해지고 시스템 구축이 편리하게되어 있어 회계보고 편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리시스템 사용시 자신만의 노하우

결제 내역이 있을 때마다 시스템에 들어가 영수증도 업로드 해보기도 했는데 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름 제 방식을 찾게 되었는데 한 달 사용한 영수증, 계산서, 이체증, 등을 따로 (복사하여 시간이 지나면 원본 글씨가 흐려지는 관계로) 바탕화면에 월별로 사진을 찍어 저장 후 지출 내역을 기록하고 사진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하니 한 달 사용 내역

을 전반적으로 알아볼 수도 있고 기록하는 시간도 절약되고 영수증 분실 우려도 없이 수월하게 사용하였습니다.

단점으로 생각 되는 점

지도 점검 시 지면으로 출력을 하여 자료를 보관하는 단계에서 출력하여 정리하는 시간이 오래걸리니 이중으로 일을 하는 듯 느껴져서 어린이집 모두가 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지면으로 출력하는 일이 없이 시스템 상으로 점검이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바라는 점이 있다면

회계보고 이외 시. 군구에 제출 해야하는 정산서를 원본으로 직접 제출이 아닌 관리시스템 상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인천형 어린이집 정산서를 관리시스템에 직접 하고 있는 것처럼 보조교사 인건비, 연장반 교사 인건비, 미지원 시설 조리사 인건비 등 정산도 관리시스템에 올려 정산을 할 수 있다면 근무시간에 구에 직접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정산을 마감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로인해 지도점검도 전산상으로 이뤄져 문서를 보관하는 일이 없이 문서 간소화에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짧은 생각을 하며 인천회계시스템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나은 시스템이 되길 바라며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으로 함께해요.

국공립에스케이뷰센트럴어린이집 **임향화**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때는 회계보고를 하기 전 일 때가 많다. 전표 정리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어린이집 한 달 가계부를 정리하는 느낌이 든다. 시험을 보듯이 틀린 답을 제출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든든한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은 어린이집 회계 시스템 구축 및 무상 제공, 사용자교육 및 어린이집 회계 업무 지원, 국고 지원 시스템과의 연계, 어린이집 전용 클린체크카드 사용, 시스템 구축, 운영, 교육, 홍보 등 상호 협력의 목적을 두고 운영됨을 알고 있다. 특히, 회계시스템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회계 매뉴얼을 준수하며 보육 통합정보시스템과 자동 연계되기 때문에 스마트한 회계업무 처리를 할 수 있다.

23년부터는 필요경비 정산에 관한 내용도 대면 및 온라인 교육을 통해 진행되고 있어, 관련된 교육을 통해 익혀 나간다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외워버린 번호가 있다. 급할 때는 1899-4181 차분한 목소리와 익숙한 목소리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다 해결 주는 능력자 선생님. 드라마에 나오는 어느 초능력자와도 비교할 수 없다. 무빙에 나오는 봉석이 엄마의 느낌일까? 연결되지 못한 전화에도 다시 확인하여 어린이집으로 전화를 해 주시는데, 솔직히 깜짝 놀라고 감사하고 죄송했던 기억이 있다.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이나,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을 미리 살펴봤다면, 초조하게 번호를 누르지 않았을텐데...

헬프데스크에 전화를 하는 경우는 궁금하거나 수정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였는데, 전화연결이 되지 않거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로그인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실시간 찾아가는 시스템교육”을 통해 유튜브에 탑재된 영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동영상 메뉴얼 상단에 1~5번까지 정리가 되어 있어서 원하는 항목에 관한 내용을 쉽고 편하게 익힐 수가 있다. 회계시스템이라는 낯설고 부담스런 프로그램의 활용을 위해서는 배우고, 익히고, 자주 사용하는 것이 답이라 생각했다. 동영상을 활용한 교육은 언제, 어디서나, 시간에 구애 없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시스템을 처음 이용하는 입문자라면 대면교육과 함께 “실시간 찾아가는 시스템교육”도 적극 추천 하고 싶다.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의 장점 중 하나는, 지속적인 교육의 지원이라고 생각한다. 입문자를 위한 초기교육을 시작으로 심화, 활용교육이 대면과 비대면 교육으로 나누어져 월마다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필요경비 정산에 관한 교육도 대면과 비대면으로 나누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신청은 인천육아종합지원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기간에 가능하다. 지난 8월에 진행되었던 시스템 활용을 위한 대면교육에 원장님들과 함께 참석했었다. 교육에 참석하는 경우 노트북을 지참하고 가야 교육을 들으면서 직접 활용해 볼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 노트북을 대여해 주시기도 하지만, 개인용을 지참하여 교육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

특히, 연습용 시스템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틀리더라도 괜찮다는 마음이 생겨 눌러보고 입력하면서 편히 익혀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비대면 교육과는 다르게 입력하는 대로 결과가 바로 보여지고 강사님께서도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바로 해 주시니, 현장감과 긴장감을 가지며 교육에 참여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교육 후에는 기념품도 주시니, 뿌듯함이 크다. 동영상상을 활용한 교육을 마스터하셨다면 인천 육아종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한 대면교육을 추천하고 싶다.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여러 해 사용하고 있더라도 지속적인 재교육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을 가보니, 모르는 것이 생기고 배워오는 것이 생겼다. 익숙한 방법만을 사용하다보니, 활용을 위한 스킬은 부족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의 또 하나의 장점은 회계 담당자의 편리성이다. 또한, 무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매월 마다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전혀 없다. 교육을 받고 나니, 프로그램 활용에 관한 숙지여부에 따라 담당자의 편리성과 업무시간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은 회계보고를 하기 전에 꼭 거쳐야 하는 작업으로 중요한 업무이다. 그러다보니, 신경을 써서 이루어지고 업무시간도 길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럴 땐 잊지 말자! 교육을 받자! 그러면 칼퇴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통한 어린이집 회계 관리의 편리함

동산어린이집 정지훈

2019년 3월 30대 후반의 적지 않은 나이에 오전 보조교사를 시작으로 어린이집 일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그동안은 부모의 입장에서 이용하던 어린이집이 직장이 되고나니 쉬울줄 알았던 어린이집 일들이 쉬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 낯설었고 몸도 힘들었지만 어린이집을 믿고 맡겨주시는 부모의 입장을 알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였고 2022년 9월 갑자기 퇴사한 야간연장반(월급여형) 교사의 퇴직으로 공석이 생기자 원장님의 권유로 어린이집 전반적인 회계관리를 담당하는 야간연장반 교사가 되었다. 어린이집 근무 자체가 처음이었고 보육교사가 되기 전에는 학원에서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회계 관련 일은 전혀 접해본 적이 없었다. 어린이집 회계라는 중요한 일을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 잠을 잘 이룰수도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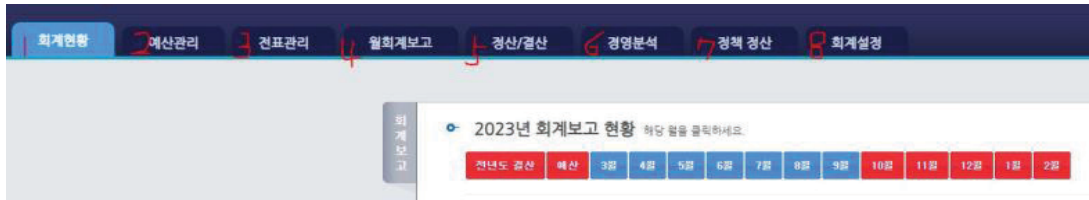
하지만 지금 1년 남짓 어린이집 회계 시스템을 사용하고 난 후의 소감은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든 사람은 천재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은 어린이집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편리하게 해준다는 생각이 든다. 올해 4월 중순부터 달라진 필요경비 정산으로 한동안 그야말로 멘붕이 왔었지만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교육을 대면과 비대면으로 입문, 심화, 활용, 재무회계교육으로 단계별로 나누어 매달 진행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렇게까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을 진행해주시는데 어떻게든 사용법을 익혀보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1년 남짓 사용하면서 이제 좀 편해지고 손에 익었는데 필요경비 정산 시스템이 바뀌어서 다시 적응해야 한다는 것이 은근히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했었다.

‘지금 쓰고 있는 것도 편한데 안 바꾸면 안되나?’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었지만 어린이집에 직접 오셔서 교육해주시는 컨설팅까지 해주시는 노고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교육을 해주시는데 열심히 배워보자!’라는 생각으로 비대면 강의를 2회 신청하여 들었고 잘 모르는 부분은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메인 화면 상단의 [메뉴얼]에 들어가서 동영상 강의를 여러 번 돌려 보고 직접 사용해보면서 활용 방법을 익혔다. 또한 바뀐 필요경비 정산은 한 두 번 보는 걸로 익혀지지 않아서 메인 화면[메뉴얼]상단의 [메뉴얼 다운로드]커서를 눌러 매뉴얼을 다운받은 뒤 필요한 부분을 인쇄하여 퇴근 후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집에서 천천히 읽어보았다. 한번 읽어서는 이해가 잘 안되었는데 두 번, 세 번 읽을 때마다 ‘아! 이렇게 하라는 뜻이구나.’하고 어린이집 정산 시스템이 무엇을 바꾸려는지 그 사용 의도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요컨대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이 보안을 거듭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어린이집 회계의 정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한눈에 쉽게 관리할 수 있는 편리성이 목표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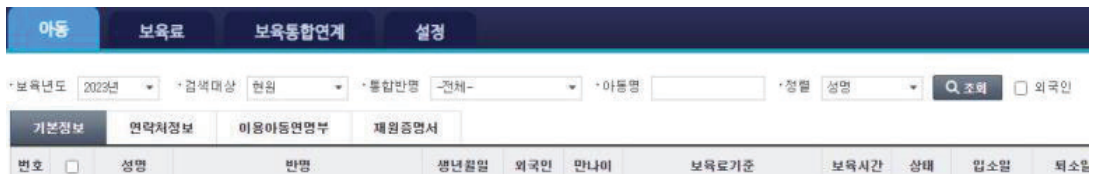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처음 뜨는 화면에서 공인인증을 하고 들어가면 이런 화면을 볼 수 있다. 크게 4가지의 세션으로 나뉘는데 전표 등록을 하고 영수증 처리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메뉴가 회계관리이고 이번에 바뀐 필요경비 정산은 아동관리로 들어가야 하므로 회계관리와 아동관리 이 두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된다. 큰 틀에서 4가지의 세션의 활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첫 번째 『회계관리』를 클릭하면 8개의 세부 항목이 나오는데 가장 자주 사용하는 부분은



3번으로 표기한 전표관리 항목이다. 이곳에서 수입/지출을 세목으로 설정하여 등록하고 영수증을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나중에 필요경비 정산이 되므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작업을 하게 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경비 정산시 실제로 금액을 사용한 아동과 전표를 연계하여 1/n로 자동 계산이 되기 때문에 사용한 금액이 다른 아동은 같은 금액을 사용한 집단끼리 전표를 반드시 분리시켜야 한다. 예컨대 만1세는 5,000원을 내고 놀이공원에 입장했고 만2세는 놀이기구를 추가하여 6,000원을 내고 입장하였는데 금액을 한꺼번에 결제했다면 만1세와 만2세의 전표를 반드시 분리해주어야 한다. 기타필요경비 정산을 위한 기초작업이므로 정확한 정산을 위해 전표 분리 작업을 제대로 해주어야 하고 이 작업만 잘해준다면 편리하고 정확한 빠른 정산이 되므로 그동안 일일이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며 더하기 빼기를 했던 수고로움은 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 『아동관리』를 클릭하면 4개의 세부 항목이 나온다.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서 아동정보를 엑셀로 다운받아 등록함으로써 아동등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그 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육료 항목인데 기타필요경비 및 특별활동비를 미리 청구작업 하고 입금이 되면 수납작업을 하며 익월에 또는 1분기마다 개인별 정산을 이곳에서 하게 된다. 수납작업은 앞서 나온 전표관리에서도 가능하지만 청구작업과 개인별 정산은 반드시 보육료 항목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청구수납작업을 5월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헤메느라 시간이 오래걸렸지만 몇 개월 사용하다보니 오히려 입금 확인시마다 일일이 입력할 필요 없이 입금내역과 청구항목을 연결만 시켜주면 자동으로 입력되어 시간이 많이 단축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졌다.

전월과 청구금액이 같다면 전월 청구작업 불러오기를 사용하여 간단하게 청구작업을 사용할 수도 있다. 단, 주의할 점은 전입금과 만5세 필요경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입금방법에서 반드시 전입금, 보조금으로 선택 후 저장하여야 한다.

인사

급여

보육통합연계

최저임금검증/계산

설정

검색대상: 재직

교직원명:

-전체-

조회

기본정보

급여기초정보

보고서식

경력(재직)증명서

출근부

번호	성명	직책	생년월일	연락처	핸드폰	입사(입용)일	퇴사(면직)일
----	----	----	------	-----	-----	---------	---------

세 번째 『교직원관리』를 클릭하면 5개의 세부항목이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분은 자주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교직원
기본정보가 (생년월일, 입사일, 퇴사일, 주소, 연락처 등) 기재되어 있고 급여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 경력(재직)증명
서를 간편하게 클릭 한 번으로 출력할 수 있다는 것 등 잘 활용하면 아주 편리하게 교직원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물품 관리

교재 · 교구 관리

이매지보기

도움말

전체

검색대상: 물품명

조회

상세조회

	번호	관리번호	배입일자	구분	분류	품종명	규격(모형명)	배입금액	수량			현재량	수령인	장소	비고	
									수량	단가	계산				재고1	재고2
☐	206	2023010206	2023-09-07	구입	비품	HP노드북	HP노드북	295,000	1		295,000	1	김 위내	인여 운영인 교사	0	0
☐	205	2023010205	2023-09-16	구입	비품	복합기서한		110,000	1		110,000	1	김 위내	2층복도	0	0
☐	204	2023010204	2023-09-16	구입	비품	복합기서한		110,000	1		110,000	1	김 위내	1층현관	0	0

네 번째 『물품관리』를 클릭하면 3개의 세부항목이 나오는데 어린이집 물품을 사진과 함께 등록함으로써 많은 양의
비품도 손쉽게 관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어떤 물품이 어디있고 어떻게 처분했는지 언제 구입했는지 등 물품관
리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편리하다.

이 글을 마치며,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은 오직 어린이집의 관리 효율성과 정산의 정확성, 간편함을 위해
많은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진 어린이집을 위한 시스템임을 느낄 수 있었고 올해부터 시작된 시스템 필요경비 정산은
종이서류의 의존성을 낮춰 그동안 수입/지출 결의서를 뽑아 영수증과 함께 보관하던 관리의 불편함과 동시에 종이 사
용을 줄여 환경보존에도 일조하게 될 것 같다.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1년 남짓 사용하는 동안 환불, 반품, 교환, 필요
경비 청구/수납 작업 등 다양한 경우의 전표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 초조할 때마다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
템 헬프데스크에 계신 직원분들께서 많은 힘이 되어 주셨다.

초반에는 이 시스템의 개념 자체를 몰라서 전화로 문의해도 헬프데스크 직원분들의 대답조차 이해하지 못했는데
친절하게 원격으로 접속하여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던 헬프데스크 직원분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든다. 여러 어린이집
에서 많은 전화가 와서 일일이 응대하기 힘들었는데도 항상 친절하게 받아주시고 업무를 이해하게 도와주셔서 그분
들의 노고가 아니었다면 아직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다.

프로그램을 사용할수록 사용자인 어린이집이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신경써주
신 개발자의 고심이 느껴진다. 이 시스템의 활용을 위해 연구, 개발하신 분들과 더불어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도움 주
시는 모든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모르는 부분은 배워가며 잘 활용해보고자 한다.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은 어린이집 운영의 ‘전진’을 위한 도구

국공립아라신안꿈꾸는어린이집 신유리

진정으로 위대한 일은 오랜 시간을 걸쳐 서서히 이루어지며,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성장해 가는 법이다. - 세네카

어린이집은 우리 아이들을 안정적이고 따뜻한 환경에서 보육하는 기관이며, 그런 만큼 다양한 사람들과 각종 관계들로 맺어져 있다. 각종 관계들 속에서는, 감정과 분위기 등의 보여지지 않는 것들과 보여지는 것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인천광역시 어린이집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업무를 통해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최종 형상물이다. 또한, 관리 시스템에는 총 4가지 메뉴가 있으며 회계관리, 아동관리, 교직원관리, 물품관리의 각 메뉴들은 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의 업무를 체계화해둔 것으로 생각해두면 될 것 같다.

첫 번째로 회계관리인데 필자가 처음으로 입문한 메뉴이다. 과거에는 업체 대행을 통해 회계를 관리 및 운용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과거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내 업무를 스스로 확인하며 체계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업체 대행을 이용했을 때는 원장의 의견을 업체에 전하고, 업체에서는 반영 및 수정을 하고, 그 변경사항을 원장에게 다시 전하며 확인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불필요한 확인 및 수정, 보고가 빈번하게 일어났었다. 또한, 요구된 사항이 반영되었는지 재차 확인을 해야하고, 안되었으면 또 될 때까지 확인을 해야 하는 등 불가피하게 소모되는 과정들이 많았던 것 같다. 하지만 관리시스템을 통해 원장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업체를 통해 요청 및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없어짐으로써 시간이 절약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또한, 주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보니 예결산 및 정산 내역들을 수시로 확인하게 되면서 예산집행의 경중을 따질 수 있게 되었고,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며, 효율적인 집행을 하게 된 것 같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우리 어린이집에 맞게 운용됨으로써, 어느 누구도 대신하지 못할 고유 영역임과 동시에 원장의 전문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 것 같다.

두 번째 메뉴는 아동관리이다. 아동관리 메뉴의 핵심은 공정함, 투명함이라고 생각한다. 어린이집에서는 수익자 부담 비용의 근거를 정하고, 운영위원회와 논의한다. 이후 수납액을 정하고 집행을 하되, 수익자 부담액의 개별 정산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좀 더 명확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정산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물론 각 기능을 익힘에 있어서 초기에 어려움은 따르지만, ‘자동연계기능’(입금통장에 적힌 키워드를 설정해두면 자동으로 전표 등록이 이루어짐)이라던지 청구할 때 ‘전월내역과 동일설정’등의 기능은 업무 속도마저 단축시켜주는 훌륭한 기능인 것 같다.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메뉴는 ‘정책정산’이다. 사실 그 동안은 법정아동 정산 시, 수기로 이루어지다보니 금액을 맞추고 각각의 영수증을 첨부하고, 출력하고 제출하는 등 번거롭고 불편한 점이 많았다. 하지만 관리시스템의 ‘정책정산’ 메뉴를 사용하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정산이 완료되고 보고까지 이루어진다. 따로 서류를 준비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물론 아동관리메뉴에서 정산 시에는 영수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등의 증빙자료를 업로드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개별정산이나 정책정산에서의 편리함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 같다.

사실 2023년 상반기의 필요경비나 정책정산메뉴를 익히느라 개인적으로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를 이끌었던 힘은, 아직 익숙하지 않고 불확실하긴 하지만,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면 할수록 뭔가 편해질 것 같은 느낌 때문이었다. 우선은 원장이 기능을 익히기 위해 시간과 공을 들여야하는 것은 기정 사실인 것 같다. 하지만, 일정정도의 시간을 인내하고 견뎌서 기능을 익히고 나면, 너무나도 편리하고 효율적인 메뉴임을 알게됨과 동시에 업무의 처리 속도도 훨씬 빨라지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세 번째 메뉴는 교직원관리이다. 하지만 교사들의 근무상황은 시간외근무에 따라 시시각각 변동가능성이 크기도 하고, 별도로 시행해야 하는 공단신고의 번거로움, 세금관련 업무의 미숙함으로 인해 충분히 숙달하지는 못했지만 차후 또 한번의 고도화를 통해 개선되고 익히게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네 번째 물품관리 메뉴는 이 또한 너무나도 편리한 기능이다. 물품관리와 교재교구대장을 수기로 작성하지 않고 시스템에 사진을 비롯한 매입정보와 처분정보까지 입력함으로써 업무를 일원화 할 수 있으며, 수시로 내용을 입력 및 수정하며 언제든지 바로 출력해 보관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특히나 신규개원 어린이집일 경우에는 강력 추천하는 기능이다.

사실, 필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회계 컨설턴트의 업무도 겸하고 있다. 컨설턴트로서 컨설팅을 다니다보면, 현장에는 너무나도 훌륭한 원장님들이 많다. 물론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운영을 넘어 회계 분야까지도 전문적인 분들이시다. 하지만 관리시스템으로 바로 넘어오지 못하시는 원장님들의 공통점은 바로 ‘불안’과 ‘번거로움’이다.

어린이집은 정해진 일과와 프로그램이 있는 곳이지만 정해지지 않은 돌발상황도 많이 발생하는 조직 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회계 또한 어느 한 순간 뒤틀리면 잘못된 곳을 찾기 위해 그 수고스러움을 각오해야하기도 한다. 하지만, 업체를 통해 해결한들, 마지막 확인작업과 책임은 원장님 고유의 영역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업체측의 실수로 손해나 책임져야 할 일을 경험했던 적도 있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한 ‘불안’은 원장이 직접 관리시스템을 운용하게 되는 횟수가 늘어나는 만큼 감소할 것이다. 또한, 실수한 부분은 콜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도 하고, 가장 빈번한 경우인 회계메뉴의 계정집행은 반납하고 다시 재계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 겁날일만도 아니다.

또, 각종 메뉴는 초반에 일정 정도의 시간투자를 통해 그 기능을 익혀야만 하며, 이것 또한 바쁜 현장에서 쉬운 일이 아니고 번거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 원장님들은 능력자이시다. 관리시스템을 통해 회계관리, 아동관리, 교직원관리, 물품관리 메뉴를 모두 익히신다면, 원장으로써의 전문성과 동시에 효능감까지 획득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관리시스템을 통한 모든 업무의 효율화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느끼게 되는 서로간의 감정, 분위기등의 보여지지 않는 것들까지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더욱더 운영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입문 성공기 - 익숙함을 버리고 조금은 귀찮음과 두려움에 도전하다

미추홀경찰서어린이집 김혜숙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회계업무는 필수이다. 2022년 신규 개원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이전부터 사용했던 타 회계시스템으로 회계를 시작했다.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으로 전환 독려 공문도 받고 주변 원장님들의 추천도 있었지만 최대한 미루기로 했다. 왜냐하면 기존의 회계시스템이 아무리 복잡해도 그 익숙함을 버리기가 쉽지 않았다. 낯선 것에 대한 도전은 조금은 귀찮음과 두려움이 있다.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매출전표를 입력하고 말일에 보육통합에 회계보고를 한다. 회계자료를 모두 출력해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 통장사본 등 증빙자료를 하나하나 오리고 붙여 손으로 잡혀지지도 않을 만큼 두꺼운 회계서류를 만들었다. 회계점검이 온다고 해서 검토를 해보려고 두꺼운 회계서류를 펼쳐보면 마술처럼 빈 백지만 남아있는 영수증에 놀라서 그 후로는 영수증 옆에 복사한 영수증 하나를 더 붙였다. 인천광역시어린이집 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면 회계 서류를 더 이상 출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보를 듣고 드디어 큰마음을 먹고 2023년 3월 인천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문을 두드렸다. 시작이 반이라 했던가?

제일 먼저 어린이집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첫 화면 창에 있는 실시간 찾아가는 시스템교육을 시청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기초사용법을 하나씩 탐색해보는 것을 시작으로 등록절차에 따라 신규어린이집으로 등록했다. 다행히 헬프데스크 상담원이 숙련된 업무지식으로 친절하게 상담해주셨다. 자료 전환은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상담원이 원격으로 도움을 주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어린이집 시스템 회계관리 사용법도 숙지하면서 함께 예시된 예산서를 기초로 우리어린이집 상황에 맞게 예산도 작성했다. 매월 전표관리에 들어가서 전표 등록을 하고 증빙자료를 촬영하거나 캡처해서 증빙자료 모음에 첨부하니 간단하게 회계를 정리할 수 있다. 인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시로 회계교육을 지원해주어 효율적인 회계 정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인천시어린이집 관리시스템에 입문한 올 한해를 돌아볼 때 다음과 같은 긍정적 변화를 공유하고 싶다.

첫째는 어린이집 재무회계의 목적이 명확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기함으로써 합리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은 매월 전표 등록 후 증빙 자료를 오리고 붙이고 이것을 다시 연말이면 두꺼운 표지로 묶어 몇 년씩 공간을 확보하여 보관을 해야 했다면 이제는 인천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으로 회계보고 및 회계증빙, 회계 점검까지 가능하다. 카드사용 후 자동으로 영수증이 첨부 되는 기능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고도 남음이다. 지출의 목적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회계검증 및 중간 정산 기능을 수시로 확인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자가 검증을 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하다.

두번째는 숙련된 헬프데스크 상담원들의 지원이다. 원장으로서 회계업무를 오랫동안 했지만 아직도 계정과목 정하기가 명확하지 않은 지출항목이 있다. 그럴 때 마다 회계업무 매뉴얼을 뒤적여보거나 원장님들 단독방에 문의 후 답변을 참고하기도 하지만 시간 소요가 많아 업무 효율성이 떨어졌다.

1899-4181는 <무엇이든 물어보살>의 보살님처럼 시원하고 명확하고 신속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어서 업무의 능력을 향상 시켜준다. 때로는 전표 추가 등록이나 이미 회계보고가 끝난 전표를 수정해야 할 때 등 전화상담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원격으로 대면 컨설팅처럼 빠르게 문제 해결을 해주기도 한다. 항상 친절하게 문제를 즉시 해결해주시는 헬프데스크 상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세 번째는 인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체계적인 교육 지원이다. 기초부터 초급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 기타필요 경비 정산 및 추경하기, 회계연도 결산하기 등 교육지원을 하고 있다. 인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그동안 ZOOM 화상교육에서 올해는 대면교육을 확장해서 수시교육의 기회를 많이 주셔서 감사하다. 현재는 기타필요경비를 어린이 집관리시스템내에서 정산보고까지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새로운 시도의 성공을 위해 교육을 두 번씩이나 들었지만 여전히 지면으로 정산하는 것이 익숙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익숙함을 버리고 조금은 귀찮음과 두려움에 도전한 인천광역시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입문기는 반은 성공이라고 자부한다. 무엇보다 전반적으로 회계업무를 위한 시간이 많이 줄었다. 그만큼 유아교육프로그램 및 어린이집 운영 전 반을 다시한번 체크해보는 여유로움이 생겨 어린이집 출근하는 발걸음이 가볍다.



인천시어린이집회계관리시스템은 나는 한 단계 올라서게 만들었다.

센텀베뉴어린이집 문수정

나는 6월 1일자로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들어선 순간 왠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 졌겠구나! 느껴졌다. 회계 관리 부분에서 민간업체를 써야하나? 인천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을 써야하나? 걱정반, 두 려움 반으로 시작하였다. 인천시어린이집회계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게 원칙임을 알면서 약간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지금도 제일 힘든 부분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단언하건데 회계 NO.1 바로 회계 관 리라고 말한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쉽게 가고 싶어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는 일반 회계업체를 통하여 업체에서 어린이집 회계부분을 맡아 관리하게끔 하였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이제는 민간업체를 통한 관리가 아닌 인천시어린이집회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우리어린이집을 관리하는게 운영자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다 짐을 굳게 하고, 난~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기에 몇차례 하루에도 대여섯번 씩이나 인천시어린이집회계관리시스템 헬프데스크 1899-4181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았고, 이제는 헬프데스크 의 전화번호를 외울 정도이며, 헬프데스크는 목소리만 들어도 ‘안녕하세요. 원장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서로 반가운 인사를 해주시곤 한다. 어떨 땐 반복된 전화드림이 죄송하기도 창피하기도 했었지만, 헬프데스크는 언제나 친 절하게 안내해주었다.

나는 일단 회계시스템사용에 있어서 답답함보다는 창피함을 무릅쓰는 게 더 나올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제든 어디서든 콜센터에 전화를 할 때마다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핸드폰번호라도 알 수 있다 면 커피쿠폰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다.시스템의 매뉴얼에 대한 답답함을 해소 해 준 부분에 있어 헬프데스크는 정말 구 세주였다. 계정과목에 입력 오류 또한 지난달의 계정과목 변경, 수입과 지출, 통장내역의 불일치, 전표추가 등 전화상 담이 안되면 바로 원격지원으로 하여금 분명히 찾아내어 주는 헬프데스크는 천재였다. 이제는 직접 관리하고자 나 스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던 즈음, 스스로 회계시스템에 접근하여 한 계단, 한계단을 올라가기 위해 인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스템 기본교육이 올라 올 때마다 교육신청을 하여 수강하였다. 참으로 신기한건 들 올 때 고 개를 끄덕이며 “아~ 그래, 그래. 맞다 이거지”라며 열심히 교육을 들었으나 어린이집에서 컴퓨터를 켜서 들어가보면 “어? 어렵다, 또 어렵다!!” 너무 답답하고 그랬었다. 또다시 ZOOM교육에도 참여하여 반복하여 들으며 시스템에 서 서히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센터에서의 교육을 통하여 스스로 시스템을 들어가 보고 막힘이 있다면 언제든 1899-4181에서 도움을 주는 든든한 헬프데스크라는 조력자가 있어서 어렵지만 한달 한달 회계보고를 하고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도움으로 기본교육을 마치고 다시 1:1컨설팅을 신청하였다. 컨설팅을 통한 컨설턴트와의 교육은 최고의 선택이었다. 시스템사용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조목조목 지원을 해주었으며 회계현황메뉴, 예산관리메뉴, 전표관리메뉴, 월 회계보고메뉴, 정산/결산메뉴, 경영분석메뉴, 정책정산메뉴, 회계설정메뉴 등 실제로 내 어린이집의 해당 월 전표등록부터 시작하여 회계보고에 이르기까지 쉽게 접근하여 활용하고 있다. 컨설팅체크리스트를 통한 이해와 실제 경험을 통하여 느낀 점이 있다면 “아~ 이렇게 시스템을 사용하는구나~, 이런 정도면 회계 관리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으며 이제 조금 알아가는 나는 시스템의 사용법을 하나하나 알아 갈 때마다 회계 관리 시스템은 신세계였음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스스로도 아동등록, 교직원등록까지도 하면서 관리한다. 이번 컨설팅을 통하여 스스로 회계 관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지원해주었음에 감사를 드린다.

그동안 민간업체에 맡겼던 내가 부끄러웠다. 스스로 계정과목을 입력하고 수정하고 분할하고 skip 하고, 오늘의 통 장내역을 확인하고자 할 땐 즉시조회의 클릭까지 할 수 있음은 센터의 교육과 컨설턴트의 지원이 큰 도움이었다. 가능

하다면 5개월의 회계를 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집컨설팅을 통하여 다시 한 번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받아보고 싶다. 인천시어린이집회계관리시스템에서는 회계관리, 아동관리, 교직원관리, 물품관리 4개 관리부분이 있지만 아직은 회계관리 부분과 아동관리과 교직원관리 기초정보까지 등록을 해 놓은 상태이다.

아동등록에 있어서 보육통합에서 다운받아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신입아동과 신입 보육교직원이 있을 시 수동 입력을 하거나, 다시 다운받아 업로드 하는 부분이 불편하였다. 가능하다면 보육통합시스템과 연동되어 아동등록과 교직원등록을 수시로 하지 않아도 관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회계 관리 부분에서 한눈에 회계보고 한내역을 예산과 함께 볼 수 있으며, 월 일괄출력에서는 쉽게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출력 기능까지 확인하며 원에서 직접 인쇄하여 장부를 보관 할 수 있게 했고, 매월의 전표등록은 미등록계좌를 확인하여 매일 매일의 등록을 하고 지난달의 전표검증의 10단계를 통한 검증기능은 예산대비 월마다 잘 사용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보는 좋은 기능이었다. 시스템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예산이다.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 할 때면 계정 과목에 따른 관항목과 산출기초를 어떻게 작성하고 예산을 편성하나? 걱정에 걱정이 앞섰는데 여기에서는 아주 편리한 예시예산이 있었다. 예시예산이란 우리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이 84명인 어린이집을 클릭하여 불러와서 참고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먼저 예시예산 불러오기와 산출기초를 우리 어린이집에 맞추어 반편성, 아동수, 보육교직원수, 보육료단가, 개월 수, 필요한 경우 항목들을 추가하고, 수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관항목에 따른 세부적인 항목들을 참고 할 수 있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데 편리한 기능이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한눈에 보며 차액예산이 0원임을 알 수 있었고 약간의 차이가 난다면 바로 산출기초를 수정하여 세입과 세출예산을 정확히 편성하여 활용해보았다.

5개월을 사용하고 있는 지금은 1차 추경이 필요할 때를 알게 되었다. 아직까지도 겁은 나지만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해보려한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든든한 지원자인 헬프데스크 1899-4181가 있지 않은가? 2024년에도 예산을 작성할 땐 전년도예산을 불러오기 해서 작성하면 된다고 하니 유튜브메뉴얼을 반복재생하면서 활용하여 내년예산도 잘 편성할거라고 기대해본다. 정산과 결산 탭에서 가장 활용성이 큰 부분은 기타 필요경비와 특별활동비와 누리운영비, 정부보조금, 세목정산과 결산서 탭이 있어서 월계, 누계 그리고 세입대비 집행률, 집행금액, 차입잔액을 월별로 확인가능하며 당월 또는 전월 금액이 달라질 시 계정과목을 누락하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전표관리에 들어가서 수정하여 보안을 할 수 있었다.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결산서를 준비할 시기가 도래된다. 결산서의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금액 그리고 차액, 집행률은 그에 따른 다음달의 집행사용부분을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었다. 또한 집행률은 다시금 추경예산편성으로 이어짐을 보게 되었다.

시스템의 또 하나의 기능인 공지사항 탭을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공되는 기본적인 매뉴얼에 안내와 보육 사업에 대한, 노무관리에 대한 변경소식안내, 현장에서 사용되는 문서양식들,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궁금증이 발생할 때 도움이 되는 자주하는 질문등은 소소하게 한번정도 클릭하여 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어 도움이 되고 있다. 시스템을 사용해보면서 하면 할수록 습득만 하면 완벽하게만 사용하면 정말 수월하고 사용하기에 너무 편리 할 것만 같다는 생각을 한다. 민간업체의 도움으로 회계관리를 진행하고 회계장부를 건네받았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월 일괄출력을 통하여 당월 집행한 사업의 월계표와 계정과목별 수입 지출 원장, 당월 통장내역과 일치한 현금출납장, 월별시산표를 통하여 집계현황을 체크해보는 관항목별 총계정 원장, 그리고 수입, 지출결의서를 한 장출력 또는 동일일자 동일계정잔장출력으로 설정하여 관련된 영수증까지 우리어린이집만의 완벽한 회계장부가 만들어졌다.

참 잘 만들어진 인천시어린이집회계관리시스템이다. 사용하면서도 언제쯤이면 보육통합시스템만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숙제처럼 남아있지만 분명 지나고 나면 언제 이렇게 힘들어했었지 하면서 회상 해 볼 날이 분명 올 것이다. 이제는 회계관리 뿐만 아니라 정책정산의 기타필요경비와 특별활동비 정산부분까지도 활용하여 영유아별 개별정산과 상반기, 하반기정산을 활용 하여 우리 어린이집의 재정관리, 우리 어린이집의 투명한 회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기본교육과 1:1컨설팅, 심화교육까지도 이수한 지금은 정책정산을 통하여 필요경비정산까지 꼭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며 관리운영할 것이다. 인천시어린이집회계관리시스템을 스스로 접근하여 활용하기까지 우리 어린이집 회계관리를 한단계 올라서게 만들어준 1899-4181 헬프데스크, 인천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교직원 교육을 통한 어린이집관리시스템기본교육, 심화교육, 컨설팅지원사업까지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해낼 수 없었을 것이다. 늘 끊임없이 현장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걸어 갈 수 있게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필요경비 정산] 첫알빠! (첫 걸음 어렵다고 느껴도 알고 보면 빠른 길!)

씨튼어린이집 조영현

처음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큰 산과 같았다. 인천시에서 도입하는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이라 어쩔 수 없이 회계를 비롯한 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에 오히려 속히 도입하여 가장 어려울 수 있는 회계 부분을 적응하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나름 해왔다. 하지만 그렇게 2년을 보내고 올해에는 또 다른 작은 산이라 부를 수 있는 필요경비 정산이라는 개편되는 시스템을 또 다시 공부 해야 하는 시기를 접하게 되었다. 어찌 보면 처음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을 접할 때는 큰 산으로 느꼈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굴곡이 있는 언덕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만큼 배우는 것이 어려워도 실행하는 것에 익숙해져 할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는 편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금 배우고 실행하여 적용하는 필요경비 정산 기능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다.

필요경비는 수기로 작성하여 정산하기까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정산이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엑셀 서식을 스스로 만들어 회계관리 프로그램에 나타난 수입과 지출을 작성하여 기입하여야 하는데 해당되는 아동의 수에 따라 개인 별로 다르게 작성해야 하는 작업으로 나에게서는 많은 시간과 집중력이 소요되는 작업이었다. 또한 정산하는 해당 월에 부모 부담으로 납부하는 원아와 법정 부담금으로 지원을 받는 원아에 따라 다르게 입력하여 원아에 따라 결석 혹은 미 참여 하는 원아에 대해서는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데 이 또 한 자주 작은 실수를 하게 되어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반해 회계 관리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 같아 기대가 된다.

하지만 회계관리 프로그램의 필요경비 정산도 처음은 쉽지가 않았다. 가장 어려운 것은 생소한 용어이다. 청구, 수납, 정산등록, 개인별정산 등 어려운 용어에 프로그램을 접하는데 혼돈이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용어의 혼돈이 개인별 차가 클 수가 있어서 원장님들과 회계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용어의 혼돈과 용어에 맞는 시스템의 탭 작업이었다. 필요경비는 운영비가 아니지만 운영비에 섞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산하는 시기가 다가 오면 매년 긴장을 해야 하고 회계연도 마감인 2월과 필요경비 정산이 12월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연말에 운영비와 분리 정산을 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정산이다.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진과 각계 전문가들이 개발하여 도입하게 되었다고 들었을 때 기대가 되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려운 필요경비 정산을 만들어 우리 어린이집에 도입하게 되니 역시 새로운 프로그램에 적용하는데 어려울 수 밖에 없었다.

필요경비 정산은 일반 회계 관리시스템과 다른 특징이 있다. 그중 한 가지로는 부모가 부담하는 회계관리로서 청구 작업이 우선 되어야 한다. 우리 어린이집에는 부모 부담과 지원을 받는 법정 부담금을 같이 작업해왔다. 개인별 정산을 매월 해야 하는데 이전 달에 필요경비 정산을 수정하려면 어린이집 회계 관리시스템에서 월 회계 보고한 것을 수정을 해야 하는 다소 복잡한 과정이 있어 매월 개인별 정산을 해야 할 때 심사숙고하며 개인 별 정산을 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 필요경비 정산도 우선적으로 일반 회계 관리시스템이 먼저 뒷받침 되어야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과정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게 되어 정산하는 나로서는 천천히 그리고 꼼꼼히 살펴봐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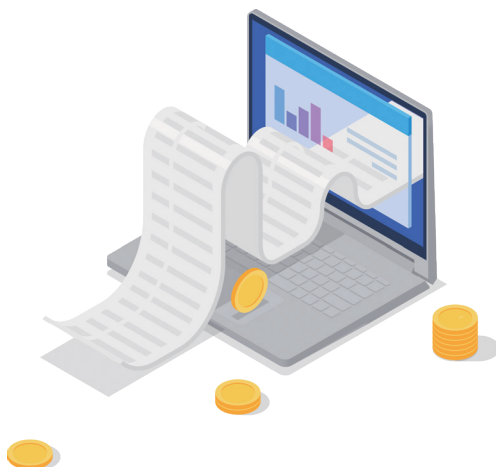
지금 돌아보면 이번 학기 초에는 이번 학기부터 도입을 해야 한다고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에 긴장하며 도입하는 3

월이 되었다. 이야기 듣기로는 계도 기간이 있다고 들었지만 분명 내가 작업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잦은 전화 문의로 도움을 받으며 시작하게 되었고 4월과 5월이 지나면서 복습도 하게 되면서 그렇게 조금씩 적응하면 6월이 되어서는 기대하던 운영비와 분리되어 효율적으로 필요경비를 정산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되었고 현재는 자신감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올해부터 정산하는 시기가 기존의 연말 정산이 아닌 회계연도 정산으로 변경되면서 그간 일반 운영 회계정산과 필요경비 정산 시기가 달라 복잡했는데 이제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월말에 회계보고와 함께 개인 정산까지 잘 마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나에게 있어 이렇게 낮은 필요경비 정산에 적응하기까지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의 헬프데스크 선생님들의 도움이 매우 컸다. 한번 듣고 작업하고 다시 수정하기 위해 전화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흔쾌히 원격으로 작업을 도와주는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함께하여 주어 이해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도움을 주어 정산이라는 개념에 수납과 청구하는 작업이 왜 필요 한지를 도움을 받으며 알게 되었고 이해가 되었을 때는 작업을 하는데 있어 매우 편리하다는 생각과 다시 배운 것을 복습하게 되면서 성취감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조심히 다루어야 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큰 만족감도 분명 느끼고 있다. 매월 개인별 정산을 수기로 엑셀 파일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 쉽게 수납 내역을 입력만 하고 사용했던 집행 내역만 맞추어서 클릭만 하면 되는 간단한 작업이고 매월 개인 별 정산 내역을 볼 수 있어 수납 액과 지출액을 보고 차액인 잔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운영비에서 구분하여 비용을 사용할 때 매우 용이해서 효율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 정산서 제출도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에서 정산서 확인과 확정 그리고 정산 보고까지 한번에 원시스템으로 할 수가 있어 비용, 시간 등 여러 번거로움이 줄어 들것으로 예상되어 보고하는 나와 보고 받는 담당 주무관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정책 정산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회계 프로그램은 전산화 하여 정확하고 편리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통계를 하며 회계 작업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고 작업이 편리하기 위해서는 회계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더 나은 방법으로 변할 수 밖에 없는 프로그램으로 진화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필요경비 정산은 나에게서는 회계 관리의 마지막 부분을 습득하게 되어 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며 스스로에게 성과를 인정하게 하고 원을 운영하는데 있어 한 단계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필요경비 정산] 필요경비 정산, 더 이상 미루지 말아요! 엑셀파일은 이제 안녕~

키즈트리어린이집 **이선영**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을 만난 것은 처음 도입되었던 2020년 9월부터였습니다. 기존에는 민간회계업체를 통해 예산작성과 추가경정예산안, 회계보고 등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잘못 입력된 부분을 뒤늦게 찾게 되어 수정이 지체되거나,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서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 해서 결산 부분이 꼬이게 되는 상황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린이집 회계를 하고 싶은 생각이 늘 있던 차에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을 알게 되어서 한순간의 고민도 없이 바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택은 정말 신의 한수였습니다. 그동안의 불편함과 석연치 않았던 부분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친절하고 헬프데스크의 상담 선생님과 시스템에 대한 동영상도 잘 제작되어 있어서 처음 사용하고 시스템을 익히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배우며 실천하다보니 혼자 어린이집 회계를 하고 있다는 불안감에서 점점 벗어나고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나와 같은 상황에 있을 인천시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공유 하자는 생각이 들어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위촉받아 회계컨설턴트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인 저의 하루 일과는 한마디로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원활한 원 운영을 위해 학부모 상담을 비롯해서 보육활동을 계획하고 지원하며, 원아들의 안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설점검을 하고 교사교육 실시 등 모든 것에 만전을 기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자리에 앉아 집중해야 하는 어린이집의 회계는 바로 처리가 안 되어 쌓여 가기 일쑤입니다.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의 편리함으로 매달 회계보고는 무리 없이 해나 가지만 반기별로 정산해서 학부모님들께 보고해야 하는 필요경비나 특별활동비 정산은 크나큰 과제로 남게 됩니다.

반기별로 정산으로 8월과 2월 말쯤이면 몇 일을 끙끙대며 능숙하지도 않은 엑셀로 정리하고 또 계산하며 최상의 집중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불편함과 과제처럼 느껴지는 특별활동비나 필요경비에 대한 개인별 정산을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현장 목소리를 담아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의 정비로 아동 부분에서의 개별 정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현장에서 원장님들을 만나 컨설팅을 진행해야 했기에 먼저 숙지하고 사용해 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했습니다. 회계부분에서 전표관리로 이동했던 전표들의 영수증과 거래명세서를 첨부하고, 아동 부분에서 원아들을 업로드 하며 아동별 청구작업과 수납작업을 실행하고 차근차근 정산의 준비를 진행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활동비나 필요경비 지출 건에 맞춰 해당 원아들과 매칭을 하였더니 항목대로 척척 자동 정산이 되어졌습니다. 한 달 동안 지출하였던 경비에 대해 원아별 정산 횟수와 지출 금액이 한눈에 보여졌습니다.

이전에 개인별로 엑셀을 이용해서 초집중으로 숫자에 몰두하며 진행하였던 정산이 신문물을 만난 것처럼 신기하였고 시원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하나씩 알아가는 기쁨과 머릿속에 시스템 정리가 되어간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지난 달 세팅하였던 그대로 청구작업을 불러오기로 실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세팅이 불러 오기만으로 손쉽게 개인별 정산의 밑 작업이 완료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아별로 금액을 수정할 수 있어서 신입 원아나 퇴소 원아의 정산에도 편리하였습니다. 개인별 정산에서 현장체험이나 행사 시 결석 아동이 발생되더라도 클릭 한 번으로 그 아동을 제외하고 순식간에 정산이 되어졌습니다. 그동안 힘들고 막막했던 개인별 특별활동비나 필요경비 정산이 이렇게 손쉽게 이루어지다니 사용하면 할수록 만족감이 높아졌습니다.

현장의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불편함에 귀 기울이며 좀 더 편리하고 다양하게 변화해가는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의 노력에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이런 경험과 노력을 기반으로 회계컨설턴트로서 어린이집 현장에서 원장님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앞으로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해하시거나,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었다가 시스템을 사용하겠다’는 원장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보통합을 앞두고 또 다시 정산시스템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용을 주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다른 일거리가 생겼다’고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이런 불만과 어려움, 불안감은 같은 원장으로서 이해되기도 하고 공감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정책의 방향은 잘 알지 못하지만, 현재 어린이집에서는 회계부분, 그리고 개인별 정산은 꼭 진행해야 하는 필수 항목입니다. 그래서 꼭 해야 하는 일이기에 좀 더 편리하고 만족감을 주는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용을 안내드리게 됩니다. 원장님들에게 시스템 사용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 동영상, 헬프데스크 상담 선생님 등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사용해볼 수 있도록 격려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던 원장님들이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지만 컨설팅이 끝나면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지 않고 편리하다’고 이야기 해주시거나, ‘직접 회계와 개인별 정산을 하지 않았기에 불안했지만 스스로 해 볼 만 하다’고 이야기 해주실 때는 컨설턴트로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저도 아직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에 대해 배워나가야 할 게 많습니다. 교직원과 물품관리는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을 통해 알고는 있지만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다 활용해보자는 것을 최종의 목표로 노력해보려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적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질을 항상 고민하는 교육자인 원장으로, 주어진 요건에서 최상의 상황을 만들어 내는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운영자인 원장으로 성장하고 실천하는데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은 든든한 동반자인 것 같습니다.

혼자서도 잘 할 수 있어요. 모바일로도 척!척!척!

우방어린이집 강문정

교사일 때에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활동에 필요한 교구 만들기와 아이들과 활동하기 행사 등에 분주한 몇 해를 보내고 어린이집 첫 원장이 되었을 때에는 원아모집과 재원유지에 에너지를 쏟다보니 정작 회계등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은 업체를 이용하고 원장이면서 관심이 없는 부분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합리화시키며 대신 해주는 업체에 의지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다양한 교육을 통해 회계에서 사용하는 언어들 습득하게 되고 ‘내가 해도 될까. 진짜 내가 해도 될까’ 라는 마음을 품고 소규모 업체의 어린이집 회계프로그램만 사용하며 매달 회계보고를 위해 하나씩 계정과목을 설정하며 활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인천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비상근컨설턴트 채용공고를 보게 되면서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인 회계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면 배워야 하고 배우게 되면 우리 원에 먼저 사용하게 될 것이고 사용하게 되면 알게 되니 나처럼 어렵게 생각하고 시도하지 않은 원장님께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컨설턴트가 우선 되어야겠다는 마음에 지원하고 과정의 연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론적인 부분은 알아들겠는데 처음 보는 사이트에 하나하나 설정하며 셋팅을 해 나가는데 쉽지 않고 어려워 서 같이 하는 원장님들과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을까 하며 걱정의 이야기를 나누며 시스템 활용에 첫 발을 뒀었습니다. 인천어린이집관리시스템의 시작은 보조금 보육료 전용통장을 바꾸고 카드를 발급하고 그동안 자동이체 되었던 것들을 모두 변경된 계좌로 다 바꾸고 실제로 카드를 사용해야 계좌내역을 볼 수 있고 실제 활용이 가능하니, 이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첫 컨설팅을 나갔는데 통장과 카드는 발급받았으나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서 등록절차를 진행하는데도 한참을 걸리기도 하고 테스트 화면으로 진행하다보니 열심히 들으시고 맞다고 하시고 고개를 끄덕이고 하시다가도 ‘이거 어렵네 꼭 해야하는거 아니죠? 난 원지 알았으니까 진짜 시작할 때 다시 해야겠네’ 라고 하시며 2시간의 이야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기운 빠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적도 있었습니다.

시스템에 인증서 등록 설정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계속 틀리며 계좌를 등록하는 데도 한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인증서가 만료되어 인증서 재발급까지 하게 되면서 고마워하시며 ‘애쓰시니 열심히 배워야지’ 하시며 저에게도 기운을 불어 넣어주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원장님 내가 초급과정만 준수업으로 3번을 들었는데 그래도 겁나서 이거 인증키 복사하려면 보육통합에서 가져오는거 맞지요? 내가 해볼게요 맞는지 봐주세요’ 하시며 학습한 것을 입으로 말하시면서 해내시는 원장님을 보며 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어느 원장님은 인천시스템의 편리한 기능을 다 아시고 활용하고 저에게 확인하며 신나하셨는데 그래도 틀릴수 있다 하시며 염려되기도 하고 업체에서는 회계뿐아니라 교사급여에 4대 보험 관리까지 해주니 말기는 것이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어린이집의 특급기밀인 어린이집 통장내역을 보여준다는 것이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컨설턴트인 제가 운영하고 있는 원장인지 혹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문요원인지 궁금해하시며 첫 이야기 단추를 풀어내기도 합니다. 그럴때마다 원장님들의 입장에서 안심시키며 ‘원장이어야 우리가 무엇을 모르고 궁금해하는 것을 제대로 알려줄텐데’ 하며 이야기를 꺼내는 원장님께서는 ‘저도 지금 운영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먼저 사용한 제가 도움이 될까 해서 나왔으

니 힘내서 함께 해보아요~' 또 '우리원까 보여주기 좀 꺼려지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오신분이니 못한다 잘한다 말 옮기지는 않겠지?' 이렇게 시작하시는 상황에는 비상근 컨설턴트로 정중히 시작하게 됩니다.

'계정과목 이게 맞지요? 헛갈린덴 어떻게하죠?' '원장님 계정과목에 커서를 놓으면 하단에 설명이 나와요. 확인해 보시고 내가 생각한 계정과목이 맞는지 매칭해보시고 진짜 모를때는 보육통합시스템 1566-3232 헬프데스크에 물어보는 것처럼 인천어린이집관리시스템 1899-4181 헬프데스크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이젠 이번호도 외워두시면 좋지요' 라며 시스템 홍보도 자연스레 하게 되었습니다.

계정과목 복사기능, skip기능, 분할처리등 하나하나 완성해가며 계좌전표의 내역이 전표관리로 다 이동되어 하나도 없는 것을 보았을 때 원장님들의 환한웃음은 컨설턴트를 하는 저에게 더욱 힘이 되었습니다.

'음 이번에 혼자할수도 있을 것 같아요. 회계보고 하기전에 다시 한번와서 확인해줄수 있나요? 회계부분을 해보니 다른 부분도 궁금하고요.'라고 이야기하시며 추가컨설팅까지 요청하시는 원장님을 만나면 정말 나도 바쁜 원운영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시간내어 나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 순간 기분이 너무 좋고 힘든 시간이 하나도 힘들지 않게 느껴지는 요술 같은 때도 경험하였습니다.

이렇게 컨설턴트를 진행하면서 날이 갈수록 편리해지고 익숙해지고 있는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모바일로도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매번 컴퓨터나 노트북을 통해 접속을 하고 관리를 하였던 것을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여 매뉴얼대로 익히고 사용하게 되었는데 참 편리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 스마트폰 인증서를 가져오고 하는 부분부터 로그인하기까지가 생소했지만 어느새 이야기를 전해들은 원장님들은 모바일부터 가입할 수 있게 알려 달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처음 메인화면을 보고 어리둥절했지만 전표관리부터 들어가며 날짜입력 전표추가기능까지도 활용하면서 컴퓨터에서 했던 그대로임을 알게 되고 작은 화면이지만 쉽게 이용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빙추가를 하면 바로 증빙서류를 사진추가를 하거나 미리 사진촬영했던 것을 갤러리에서 선택하여 추가할 수도 있고 증빙자료 화면에서 추가를 할 수 있는 점이 편리하고 용이 한 것 같아 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표 금액도 분할 할 수 있고 그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전표추가 기능을 포함하여 시스템의 회계기능이 들어 있어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회계관리를 바로 할 수 있어 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장점인 어디서나 시간만 되면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원장님 저는 누워서도 관리하기도 해요~라고 극강의 편리함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사용하고 있는 1인으로 모바일앱은 제일 편리한 회계관리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 기능이 있어서 시간의 여유가 있을때는 질의하고 답변이 왔는지 확인하면 통화보다 더 친절한 설명으로 해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원장의 전문성 어린이집회계의 투명성을 목표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과 인천광역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길에 뛰어들지 3년차, 아는 것 같으면서도 헛갈리고 보육통합시스템처럼 매일 들어가면 밀리지 않을 수 있는 회계관리를 밀리기도 하면서 우리원 회계보고도 늦어지기도 하지만 시스템 활용에 나도 다른 원장님도 시스템에 능숙해지는 그날까지 꾸준히 오늘도 로그인 한번 전표관리 한번 영수증 첨부 한번등 회계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원의 회계를 관리하고 또한 비상근 컨설턴트를 하면서 더욱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에 대해 편안해지고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기능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어린이집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자부심이 되었고 앞으로도 인천광역시 소재 어린이집 원장님들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그날까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컨설턴트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원장님들~ 혼자서도 잘 할 수 있어요~~~ 저도 하고 있어요! 모바일로도 척! 척! 척! 누워서도 할 수 있어요. 바로바로 할 수 있으니 밀리지 말아요!!!

회계시스템은?운영의 오아시스

에원어린이집 박경희

저는 보육 경력 20년차 원장으로 정책의 변화에 따른 보육사업에 적응하며 어린이집을 운영해 왔습니다. 보육통합 시스템이 처음 도입했을때의 긴장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컴맹 수준의 고령의 원장님들이 시스템 사용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시대의 흐름에 발 맞추어 열심히 배우던때를 기억합니다. 이제 자신있게 보육통합시스템을 사용할 줄 알게 되었고, 회계 부분은 내가 통장내역만 적어서 업체에 보내면 회계장부를 만들어 주니 수입료가 들어갈뿐 편하게 운영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변화가 인천회계관리시스템의 도입이었습니다.

이것은 보육통합시스템을 접할 때와는 또 다른 중압감이 있었습니다. 바로 회계!! 타은행의 운영통장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국민은행으로 변경하고 기존의 통장에서 출금되던 자동이체들을 모두 변경 해야하는 번거로움과 변화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인천회계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되는데 하면서도 걱정 만 할뿐 회피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열린 어린이집을 준비하는 과정에 인천회계관리시스템에서 회계보고를 하면 점수를 더 받을 수 있고 구청에서도 인천회계관리시스템의 회계보고를 권장하기에 올 해부터 인천육아지원센터에서 해주시는 회계교육을 받고 인천회계시스템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처음 인천육아지원센터로 회계시스템 입문교육을 갔을때는 노트북을 연결하고 강사님과 함께 컴퓨터를 처음 배우는 학생처럼 하나하나 따라서 클릭,클릭 하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을 들으니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다시 또 들어보아겠다고 생각했는데 다행이도 교육이 매우 있었습니다.

입문교육과 심화교육을 대면으로 교육받고 나니, 활용교육은 비대면으로 교육 받아도 이해가 잘되었습니다. 필요 경비정산교육 또한 비대면 교육이었지만 시스템을 사용해 보고 교육을 받으니 이해가 잘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받을 시간 안되시분들은 전문가 요원 컨설팅을 신청하시면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두시간 동안 자세히 친절하게 잘 교육해 주십니다. 젊은 원장님들이나 컴퓨터 활용이 용이한 분들은 쉽겠지만 저한테는 대단한 도전이었습니다. 보육통합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어서 아동탭과 교사원탭은 파일 업로드로 만으로도 아동과 교사등록 자료가 회계시스템으로 들어와져서 쉽게 이용 할 수 있었습니다. 3월부터의 회계 자료들은 자료변환으로 타 회계업체의 자료들이 전부 인천회계관리시스템으로 잘 정리되어 들어왔습니다. 또한 헬프데스크의 콜센터 직원들의 친절하고 정확한 설명들이 항상 도움이 되었습니다.

국민은행을 사용하니 인천회계관리시스템안에 사용내역이 이미다~ 들어있어서 내가 일일이 수작업을 해서 통장내역을 업체에 보내주던 일이 없어졌습니다. 국민은행 통장내역의 전표관리에 계정과목을 잘 찾아 저장만 하면 쉽게 월 회계보고가 됩니다. 회계 라고 어려운것도 없이 전표관리만 잘 작성하고 통장잔액만 맞으면 회계보고가 쉽게 되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표관리에서 결제방식선택후 영수증만 첨부만하면 지출결의서에 내용이 바로 인쇄되어 출력되니 일일이 영수증을 풀로 붙이던 수작업도 필요없습니다.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10년 넘게 사용해오던 회계업체에 자신있게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매달 지출하던 수입료를 더 이상 납부하지 않으니 운영면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회계시스템에 회계부분을 잘 이용 하다보니 자신감이 생겨서 아동관리

템은 뭐지?, 교직원관리템은 또 뭐지? 하면서 물품관리템도 클릭클릭 해보니 내가 몰랐던 편리한 기능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듯 합니다. 필요한 기능들이 다 있어요^^

아동관리템에는 아동들의 기본정보가 들어 있어서 필요경비 청구 작업을 통해 청구수납내역 전표등록에 계좌내역 연계만 하면 필요경비 수납과 지출내역 연결로 필요경비정산까지 이어집니다. 청구와 수납현황을 한 눈으로 볼 수 있으니 이 또한 신세계였습니다. 이런건은 정말 해봐야되는데 수식이 맞아 떨어졌을때의 기쁨이 있네요^^

이제 필요경비 정산의 어려움까지 해결되었습니다. 교직원관리템에서는 보육교직원들의 급여관리를 직접해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작성시 보험료도 설정템에 다 생성되어 있어서 개인별 급여를 작성하고, 급여명세서와 급여대장도 만들고 나니 회계업체를 사용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교직원관리템은 아동관리템과 기능이 거의 같습니다. 재원증명서나 재직증명서도 이곳에서 내용만 작성하면 완성~ 바로출력됩니다. 물품관리템에서는 종이문서 물품대장을 만들 필요 없이 구매물품의 수량과 금액을 적고 사진만 첨부하면 물품대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필요시 출력도 가능합니다.

내가 작성한 예산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 경영분석표에서 막대그래프와 페센테이지로 계정차트와 자금차트가 그려져 있어서 매월 수입액과 지출액 비교가 보입니다. 어린이집 경영면을 한 눈에 보고 알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그야말로 운영에 필요한 모든 기능이 다 있어요. 운영에 오아시스~ 인천회계시스템에서 전표내역 작성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매일 매일 들어와서 전표작성을하니 월 말까지 쌓이는 전표가 없어서 회계보고를 바로 할 수 있었습니다. 지출내역이 있을때 조금씩이라도 전표관리를 해 주세요^^

보육통합 월회계 보고를 하고 보고한 내용으로 지출결의서와 수입결의서를 출력해 회계장부를 만들고 나니 내가 만든 회계장부에 두드림이 느껴졌습니다. 인천회계시스템을 사용하고 느낀점은 드디어 내가 진정 내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아닌 회계업체가 운영 한거였죠~ 이웃 타기관 원장님들에게 어린이집을 정말 잘 운영하고 싶다면 꼭 인천회계시스템을 사용해 보라고 홍보도 하고 원장님들이 어려워 하는 부분은 내가 가서 컨설팅처럼 도와 주고 있는 내모습이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정말 회계프로그램 사용하길 잘했다 라고 여겨집니다.

매달 내가 만든 회계장부가 차곡차곡 쌓이는걸 보면 든든하고 뿌듯합니다. 시작하기까지,마음먹기까지, 또 시작하는 방법을 몰라서, 누군가가 내 것 좀 해줬으면 했는데 그렇게 미루고 미루던 내가 오히려 원장님들께 “사용해봐요 진짜 편하고 좋아요. 내 어린이집 경영이 한 눈에 보입니다,” 라고 하면서 추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을 못하신분들의 걱정은 대부분 저 처럼 뭐부터? 어떻게? 가 제일 걱정일겁니다. 아이가 첫 걸음을 걸을 때 두려움 없이 바닥에서 발을 떼야 한 걸음을 옮길 수 있습니다. 시작은 일단 새로운 변화에 두려움을 버리세요 그리고 배움의 기쁨을 즐기세요.

이것 또한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려울뿐 시작을 해보니 진작할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며 시작을 미룬 내 성격과 게으름을 후회하였습니다. 끝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많은 도움 되도록 인천 어린이집 회계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왼쪽은 업체장부 오른쪽은 제가만든 장부입니다.

2023년

인천광역시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용수기 공모전
사례집

기획 총괄

마미정(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전영란(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지원팀장)

김시은(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회계컨설팅사업관리자)

발 행 일 2023년 12월

발 행 처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500 남동체육관 4번 게이트

전 화 032)431-4606~9

팩 스 032)431-4610

홈페이지 <http://incheon.childcare.go.kr>

이 메 일 iccic@icda.or.kr

디자인·인쇄 진원디자인프린텍(032-467-4544)

